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 시즌 5



그리스도의교회 성경공부 시리즈 9

#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시즌 5

“예레미야서”

그리스도의교회 교재집필위원회



해가 거듭될수록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분명히 예전과는 결이 다른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온라인 예배, 원격 교육, 재택근무 강화, 온라인 소비,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소비 증가 등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을 여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바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는 당연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바람 속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순교해 온 한국 교회,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지켜온 한국 교회가 코로나 19를 앞세운 온갖 유무형의 탄압 앞에 예배를 멈추고 교회 문을 닫는 등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어떤 이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위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일수록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해도 분명 교회는 세상보

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런 세태일수록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공부 교재를 출간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그런데도 “구역 부흥이 곧 교회 부흥이다.”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역이 부흥하려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본 교재는 그리스도의교회 통합 교재로서 신·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바쁜 현대인들이 성경 지식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공부 교재 집필을 위하여 수고하신 목사님들과 교육위원 여러분 및 본 교재를 발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그리스도의교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부흥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회장 김 홍 철 목사

머리말 .....	004
01 예레미야의 소명 .....	011
02 이스라엘의 죄악 .....	018
03 여호와께 돌아가자 .....	024
04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	030
05 한 사람의 가치와 영향력 .....	036
06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경고 .....	043
07 성전에서 설교하는 예레미야 .....	048
08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	053
09 신뢰를 잃어버린 유다 .....	058
10 야훼와 같은 신은 없다 .....	062
11 언약의 파괴와 예레미야 암살 음모 .....	069
12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웃 백성에게 하신 약속 .....	076
13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	083
14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법이다 .....	089
15 만일 네가 돌아오면 .....	096
16 포로의 귀환을 약속하다 .....	104
17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	111
18 토기장이의 비유 .....	118

19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	123
20	예레미야의 고난	128
21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133
22	유다 왕의 집과 왕들에 대한 예언	138
23	흩어진 양 떼들	143
24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149
25	알고 있지만	155
26	말씀이라는 쓴 약	161
27	말씀하시는 하나님	166
28	거짓 예언자 하나나	173
29	누구의 말에 반응하는가	178
30	회복시키는 하나님	182
31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187
32	말을 사는 예레미야	191
33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에 관한 약속	197
34	유다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	203
35	레갑 족속을 통한 교훈	209
36	회개하지 아니한 유다 왕 여호야김	216

37 회개하지 아니한 유다 왕 시드기야	224
38 묻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유다 왕 시드기야	232
39 예루살렘과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최후	240
40 유다 총독 암살 음모와 풀려난 예레미야	248
41 이스마엘의 반란과 그다라 총독의 죽음	256
42 요하난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266
43 요하난과 백성이 이집트 다바네스에 정착하다	275
44 유다 사람들에게 재앙이 선포되다	285
45 바룩의 탄식과 하나님의 격려	293
46 심판과 위로하시는 하나님	298
47 공의의 하나님	305
48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310
49 암몬, 에돔, 메섹, 게달과 허술, 엘람이 받을 심판	317
50 바벨론이 받을 심판 1	324
51 바벨론이 받을 심판 2	333
52 심판과 희망	346

# 예레미야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 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8절

## 일러두기

---

1. 이 책에 인용한 성경 본문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개역개정판』을 원칙으로 하되, 독자들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적으로 『새번역』을 사용했습니다.
2. 인명과 지명은 『개역개정판』의 표기를 따랐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새번역』과 현대 표기를 따른 곳도 있습니다.

# 01

## 예레미야의 소명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19절
찬송	320장(통350장), 325장(통359장)
간직할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렘 1:5)
주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 말씀 앞에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가치는 쓰임새에 있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벽에 걸어놓고 보기 위해 그림니다. 조선공은 바다에 띄우기 위해 배를 만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물 위에 띄어놓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세종대왕 함정을 벽에 걸어 놓고 보기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대안은 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를 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쓰신 분이 모세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베드로와 바울도 쓰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예레미야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 말씀을 나누며

### 1.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1-6절)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가정적 신앙 배경에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 힐기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사역 기간에서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요시아 왕 재위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무려 41년간 예언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준비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만 특별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대답을 에베소서 1장 3-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늘

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지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창세 전이라면 최소한 6천 년 전이라는 말이 됩니다. 실상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지요. 대충 그리고 잠깐 그저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오래전에 택하실 리가 없음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3-6)

## 2. 하나님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을 쓰신다 (7-10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순종의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사역을 위한 모든 준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에게 보내든지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하여 그대로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소명 이후 41년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 하면서 사

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 자체이심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충성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또한 ‘임마누엘 신앙’을 견고히 가집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또한 말씀을 이룰 능력과 은혜를 함께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허무는 사역 4가지와 세우는 사역 2가지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게 되듯이, 먼저 잘못되고 악한 것들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허무는 사역이 4가지나 되는 것은 그만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말씀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헐어버릴 네 가지를 뽑기, 파괴하기, 파멸하기, 넘어뜨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단지 조금의 보수가 아닙니다. 아예 전부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전혀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 일찍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그들의 말로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끝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들이 받아야 할 뽕기, 파괴하기, 파멸하기, 넘어뜨리기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건설하고 심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역도 말씀에 의지하여 눈물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뽕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오늘 우리도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성실한 농부처럼 건설하고 심어야 하겠습니다.

### 3. 하나님은 징표를 보여준 사람을 쓰신다 (11-19절)

징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은 예레미야에게 준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은 심판보다 소망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한 심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두 가지 진리를 말해 줍니다. 하나는 살구나무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다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 살구나무는 꽃을 피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룸을 깨닫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언어유희’와 관련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라는 “샤케드”와 ‘지켜보다’라는 “쇼케드”는 자음이

똑같습니다. 이는 살구나무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부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끓는 가마 환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 해석은 ‘채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예루살렘과 영원한 왕조 그리고 영원한 이스라엘’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철저히 그리고 속히 회개하지 않는 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 등을 통해 미래에 있을 사건들을 이미지화된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지, 친구, 이웃들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사람임을 글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징표를 보여주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사람을 쓰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하나님이 쓰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그렇게 쓰시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하나님의 부르심(소명)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 준비와 예레미야의 준비를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까?
- 2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 중 나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 3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사명을 분명한 이미지로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실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 02

# 이스라엘의 죄악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37절
찬송	254장(통186장), 259장(통193장)
간직할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렘 2:13)
주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신다.

###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할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죄를 측정하려면 표준에서 얼마나 떨어져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표준은 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 가치를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증명해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고, 여호와의 성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보여주는데 그중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터진 웅덩이들이 된 모습 (1-19절)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으로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도리어 에덴동산의 축복을 다 빼앗겼고,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에서 떠났기에 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터진 웅덩이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시간과 물질 투자가 전혀 쓸모없게 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에게서 어떤 불의함을 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둘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광야 길에서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총체적 타락 때문입니다. 거룩함의 모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들, 예언자들이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 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 결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돌보심을 받는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싸우는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터진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시홀의 물’이란 ‘나일강’을 말합니

다. 이는 애굽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난 날의 도움은 하나님이지 결코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이나 앓수르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애굽과 앓수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 먼저 터진 웅덩이를 내 인생의 공급처로 삼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조금도 미련 없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방으로 짓눌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 2.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된 모습 (20-28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애굽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며, 그들을 지켜주고 복을 주기 위해 주신 명어를 꺾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이 겨우 선택한 것은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길을 결코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갔는지는 발자국이 알려줍니다.

골짜기 길에 어지러이 달린 발자국이 발견된다면 그 발자국의 주인공은 빨리 달리는 암낙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한놈의 골짜기에는 몰렉에게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바쳤었고,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으로 잠시 멈추어졌지만,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에 대해 정말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는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욕이 일어나 혈떡거리는 들암나귀들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을 제어하여 벼는 밭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하게 하지 말라”(25절).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라고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에 대해 “내가 잣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22절)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꺼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순간에 걸어온 발자국을 보면서 ‘잘 걸어왔구나!’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3. 옷단에 묻어 있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 이미지 모습 (29-37절)

결혼하는 처녀의 ‘패물’은 결혼한 여자임을 표시하는 특별 장식물을 말합니다. 신부는 이것을 평생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신부의 예복 또

한 평생의 특별한 옷이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단지 옛날의 구닥다리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규들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랑을 얻으려고 자신을 꾸미는 매춘 행위처럼 우상을 탐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부패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영적부패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옷단에 묻어 있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와 가족을 죽게 한 사건입니다(왕상 21:16). 또 하나는 무죄한 자의 피로 예루살렘 거리를 채운 므낫세의 악행입니다(왕하 21:16).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회개하라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듣고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였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 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자 더욱 대담하여 자신들의 무죄를 선언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베푸심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편에도 서고, 앗수르 편에도 서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형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도 앗수르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후로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서 결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 말씀을 마치며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 판에는 꼭 새겨져야 할 말이 있습니다.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세 가지 이미지를 긍정과 부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터진 웅덩이가 아닌 생수의 근원 하나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아닌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는 옷단이 아닌 신부가 된 처녀의 패물, 예복! 당신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 말씀을 새기며 ||

- 1 왜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 2 지금까지 걸어 온 길을 되돌아 볼 때 내 발자국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 3 결혼하는 처녀의 패물처럼 내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 03

#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25절
찬송	528장(통318장), 524장(통313장)
간직할 말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렘 3:22)
주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 말씀 앞에서

“집 나가면 생고생, 개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영적으로도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 멋진 인생을 살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공급에서 끊어졌으며,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이를 보고 깨달아야 할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를 보내며 외치게 하신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창녀의 낯을 버리고 돌아가야 한다 (1-5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창녀의 낯’이란 수치를 모르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로 인해 3년 동안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그쳤습니다. 이후로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으며 뻔뻔한 얼굴을 하고, 도리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뿡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라바 사람이란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바로 ‘음행과 행악’입니다. 여자들은 창녀처럼 음행을 위하여 앉아 있기도 하였고, 남자들은 약탈을 일삼던 베투인족을 말합니다.

시므온 지파를 기억하십시오. 2차 인구조사 결과 열두 지파 중 1차 조사 3위의 인구수에서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발람이 알려준 계략대로 모압 우상숭배에 초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모압 여자와 음행했기 때문입니다(민 25:1-3).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순간의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엄청난 축복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찌든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뜻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심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 노여움을 끝까지 품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악행을 그치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 2. 하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돌아가야 한다 (6-15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정결한 신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배역한 아내들이 돌아오라’고 하지 않고,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자 남편이라는 뜻일까요? 그 대답은 ‘남편’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남편’은 히브리어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주인으로도 번역됩니다. 남편이 가장되듯이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권자이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창조신앙’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14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만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들은 누구일까요? 이는 미래에 남왕국 유다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중 소수의 사람만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될까요?

첫째,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교훈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미 80여 년이 지났지만 남왕국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둘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기억하며 죄를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범죄는 이미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대적으로 의롭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긍휼의 하나님을 선포케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 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범죄로 인해 위급한 지경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어서 말입니다. 이 중에는 예레미야도 있고, 요시아도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명철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우상숭배와 범죄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회개하였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 3.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돌아가야 한다 (16-25절)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명칭은 ‘메시아를 통한 회복’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명철과 지식으로 양육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성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냉장고가 생기면서 나타난 변화처럼 아주 획기적 변화입니다. 이제 ‘여호와와의 언약궤 중심’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아주 다릅니다. 먼저 언약궤 중심이란 분명한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자는 대제사장뿐이며, 그것은 1년에 1회 대속죄일 때뿐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확대된다면, 예루살렘이 여호와와의 보좌가 된다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는 은혜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됨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방인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놀라운 청사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없앤 것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대제사장처럼 지성소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버림과 우상숭배는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청사진을 거부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죄를 자백한 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먼저 수치를 모르는 창녀의 낮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바알 곧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만드신 위대한 청사진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일가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중보하며,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삶의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사용하는 것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 오래된 습관에서 찾아보십시오.
- 2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 3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청사진을 망치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04

#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31절
- 찬송** 179장(통167장), 176장(통163장)
- 간직할 말씀**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렘 4:4)
- 주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 말씀 앞에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이다, 어느 정도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대다수의 사람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불안해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4장의 말씀은 이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비록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멸망에 가까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노아의 홍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겠으며, 누가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릴 것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좋은 일도 그렇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겠으며, 홍해를 갈라 백성들을 인도해 낼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남왕국 유다의 범죄로 인한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 말씀을 나누며

### 1. 묵은 땅을 갈아야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1-10절)

묵은 땅을 갈아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 중 하나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 13:22). 우리는 어떻게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와 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와 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셋째로,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신의 포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마

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며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는 올바른 길입니다. 넷째로, 굽은 베를 두르고 애곡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장된 회개, 거짓된 회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묵은 땅을 가는 네 가지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돌이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왕조,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평강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오해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부채질한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계속 평화를 외칠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위기의 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마음의 할례를 행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2. 마음의 악을 씻어야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11-22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 보통 하나님의 징계는 택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 있는 험벗은 산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는 구름같이 올라오는 적들을 말합니다. 그 병거

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릅니다. 이들은 대적할 마음조차도 산산이 부숴놓습니다. 적들이 지나간 후에는 모든 것이 파괴된 잔해만이 남을 뿐입니다. 누가 이들을 불러들였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을 낳고, 악한 길을 걷게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예레미야에게 전쟁의 소식을 알려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처참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나팔소리와 경보를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전화기로 먼 나라의 상황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전쟁 준비 상황을 전해주는 수화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였습니다. 이 역할로 쓰임 받은 예레미야는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수화기로,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와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3.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치 않아야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23-31절)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진멸치는 않으시니까 그럭저럭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절대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멸치 않으시는 것은 사람의 죄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지 큰 죄의 값이 사망은 아닙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대가는 사망, 즉 영원한 불 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바벨론 군사들을 보내어 심판하는 모습을 앞당겨 보았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본 네 가지 모습입니다. 땅도, 하늘도, 산들도, 사람도, 공중의 새도, 모든 성읍도 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폐허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심판에도 진멸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수단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요행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더 늦기 전에 바른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31절 말씀뿐일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혈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

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지막 불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돌이키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이 돌이키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 말씀을 마치며

이제 전 지구적인 종말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와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는 길은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사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악을 씻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를 구할 때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천국의 소리를 전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묵은 땅을 갈아엎는 방법을 자신의 말로 다시 기록해 보십시오.
- 2 전쟁의 모든 소리가 예레미야의 심령에서 들렸던 것처럼 지금 내 심령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 3 한 주간 나에게나 우리 가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05

## 한 사람의 가치와 영향력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1-31절
찬송	290장(통412장), 296장(없음)
간직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 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렘 5:1)
주제	하나님 앞에 선 의로운 한 사람이 나라와 지역을 구한다.

## 말씀 앞에서

평택시 도일동에는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원균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원균 장군 묘가 도일동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역사적 이유 때문이고 패장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실종된 송혜희 양 아버지가 더 유명합니다. 1999년 2월 13일 딸이 실종된 이후 그녀의 아버지 송길용씨는 전국을 다니며 전단지를 나누어주며 딸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트럭에는 빼곡하게 송혜희 양의 얼굴이 인쇄된 전단지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한 지극한 부성애는 23년째인 지금도 여전합니다. 딸 송혜희 양을 찾

기 위한 부친의 간절한 소망처럼 여기에 한 사람을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켜 줄 중보자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용서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최소 한 사람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 말씀을 나누며

1. 여호와와 길을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1-9절)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면 “모릅니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 엉뚱한 길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베푼 호의가 실제로는 호의가 아닌 피해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길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참 인간다운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와 길을 몰랐기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3절의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

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 하므로.” 그들은 징계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일제히 멩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천하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들짐승들에 의한 찢김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엇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물론 사자, 이리, 표범은 침략자들을 말하며, 바벨론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와 길 잃어버리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원인이요,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한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우스운 것은 풍요로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섬긴 것은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숭배는 자연스럽게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도다.”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와 길 잃지 않고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즐기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 2. 심각한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불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10-19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반역했다는 것은 ‘속였다, 가증하게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해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의 현존’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람처럼 여겼습니다.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가려도 그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당연히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겨 심히 반역한 남왕국 유다에게는 불 심판이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로 삼고 불을 내려 태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실체화됩니다. 그들은 강하고 오랜 민족입니다.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입니다. 바벨론 군사들로 인한 피해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 떼와 소 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때에도 다 진멸시키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18절). 바벨론에 항복하고, 기꺼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 사람들은 살아남아 이방 땅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섬길 때가 행복했는지 아니면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참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 3. 무섭고 놀라운 일들을 도리어 좋게 여기며 살게 된다 (20-31절)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예언해야 하고, 제사장에게는 권력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명확히 가르치는 일로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권력이라면 오직 섬김의 권력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권력이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눈도, 귀도 다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누가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모두 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 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 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허물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막은 것을 어리석게도 하나님 탓을 합니다. 가장 억울한 분이 하나님이시겠지요! 이제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새 사냥꾼에게 다 빼앗기기 전에 돌이켜 고아의 송사를 바르게 하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 말씀을 마치며

송혜희 양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꼭 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자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정말로 굳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중재자가 없음으로 그 중재자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한 사람

이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루어 간다면 이 땅은 다시 여호와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심각한 반역을 그치고 하나님의 불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제자리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세상을 이루어 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바로 당신이 그 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바로 당신입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의로운 한 사람의 부재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망한 것과 비교해 보면서 의인으로 살아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 우리는 세상에서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3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06

##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경고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30절
찬송	84장(통96장), 449장(통377장)
간직할 말씀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 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렘 6:8)
주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버림을 받는다.

## 말씀 앞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위기에 처한 유다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할 때는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고 맙니다.

본 장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확실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처한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사용할 침

략자들이 예루살렘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듣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하심 (1-8절)

예레미야는 거두절미하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피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침략자들과 싸울 준비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잔인하며 파괴력이 대단해서 예루살렘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벽도 보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파괴되는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목자가 짐승 떼를 끌고 들어와 풀을 뜯게 되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수많은 목자로 비유하는 이유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 머물던 곳이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의 뿔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자들은 자신감에 가득 차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유다는 침략자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유다가 두려워해야 될 자는 침략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다

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유다는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침략자들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6절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목책(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을 만드는 것까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는 샘물이 1년 365일 끊임 없이 솟아나듯 예루살렘에서 그 악한 것들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오직 포악한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훈계 곧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을 떠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 2.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 (9-21절)

유다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 숨겨져 있는 포도송이를 찾아내서 따는 농부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침략자들에게 멸망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10절)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 듣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보잘것없는 자로부터 높은 자와 예언자, 제사장까지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의 집, 밭, 가족 등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으로 쌓아 놓은 것이 한순간에 빼앗기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 당시 선조들과 맺었던 옛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방황이 시작된 옛적 길을 찾아가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16절)고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통해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17절)며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옛적 길과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3.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 (22-30절)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은 북방에서 오는 큰 나라를 통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매우 잔인하며 사랑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손과 코 등을 베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했고, 왕의 눈도 뽑았습니다(렘 39:7). 이런 큰 나라 앞에 약소국가인 이스라엘은 대적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침략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들을 보낸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히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나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죄악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로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버린 은처럼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듣는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듣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회복되어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낸 큰 나라를 통해 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sup>1</sup> 예루살렘의 온갖 죄악은 하나님이 보낸 침략자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킬 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야 할 문제들은 무엇인가 나누어 봅시다.
- <sup>2</sup>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옛적 길과 파수꾼의 나팔소리를 통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고 결단해 봅시다.
- <sup>3</sup>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회복할 방법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 성전에서 설교하는 예레미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34절
찬송	218장(통369장), 524장(통313장)
간직할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렘 7:3)
주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독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와 종교·정치지도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그 후손들은 무조건 보호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선포함 (1-15절)

예레미야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백성들을 향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3절)는 것과, 성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외치는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4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5-6절)를 제시합니다. 첫째, 길(생활)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둘째,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정직하게 살고), 셋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넷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섯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3, 7절)고 약속하십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침략자들이 눈앞에 다가와 있지만, 이스라엘이 타국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듣지 않음으로 예루살렘을 실로와 같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처음으로 성막을 세운 곳입니다. 그러나 주전 1,050년경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는 빼앗기고 성막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다.”는 예레미야의 설교는 모든 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 2.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16-28절)

성전에서 설교를 마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그림처럼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오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여신)에게 과자를 만들어 바칩니다. 이런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들은 갖가지 외형적인 종교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23절)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과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 3. 우상숭배하는 백성들 (29-34절)

하나님께서 “네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시온의 영광과 존귀함을 모두 내려놓고 수치의 상징인 민둥산에서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와의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워 더럽히고,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화로'의 뜻) 사당을 건축하고 자기 자식들을 번제로 인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는 제사 방식을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긴다는 유다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의 우상인 몰렉에게 사람을 번제를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죽이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죽이심으로 그곳을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절기로 인해 흥분된 자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자기 자기 생각이나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섬김으로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신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함으로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자리가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 08

##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8장 1-22절
찬송	438장(통495장), 499장(통277장)
간직할 말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렘 8:7)
주제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 말씀 앞에서

1912년 4월 14일, 북대서양에서 2,224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나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상상할 수 없다. 현대의 조선 기술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중 하나는 당시 북대서양에 빙산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자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말씀입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회개를 거부하는 유다 (1-9절)

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돌아오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6절에 ‘돌아오다’는 표현을 여섯 번이나 사용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회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세상의 이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행동을 저버린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었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4절)고 말하면서 그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둘째, 반역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며, 악을 누우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처럼 자신들의 행동을 끝까지 합리화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셋째, 자연의 이치로 설명을 합니다. 학과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정한 시기를 알고,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주의 백성은 오히려 질서를 역행하며 자신의 본능으로 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2. 진노의 대상이 된 유다 (10-17절)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거부한 유다에게 임하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그들에게 내

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 아내들까지 침략자들에게 넘겨주 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유다에 속한 자들이 모두 거짓을 행하기 때문입니다(10절). 힘없는 자로부터 힘 있는 자와 예언자, 제사장까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속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도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11절). 특별히 예레미야는 제사장 들과 예언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평안하지 않은데도 평안하다고 외치고, 치료가 불가능한데도 상처가 가볍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벌하시 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넷째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비유해 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침략자들이 유다를 공격 하게 하지만 유다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싸워 볼 엄두도 내지 못 합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고 서로를 위로합니다(14 절).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날이 이르면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 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과 탄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 다.

### 3. 유다에 대한 애가 (18-22절)

예레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 다. 예레미야의 노래는 더이상 하나님의 명령처럼 경고에 머무르지 않

습니다. 이제는 그 이상의 감정인 아픔과 슬픔, 두려움과 공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순종의 결과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두려운 심정의 소리와,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지만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21절)라고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물론 징계를 받을 만하지만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자기 백성을 벌할 때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운데 오히려 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하여 변화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성전에 계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한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눈물로 노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말씀을 마치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돌아오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만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예레미야도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를 향해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돌이켜야 할 문제들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2 유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하고 깨달은 부분을 나누어 봅시다.
- 3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신뢰를 잃어버린 유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9장 1-26절
찬송	272장(통330장), 445장(통502장)
간직할 말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9:24)
주제	연단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했을 때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죄에 도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심판을 면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하나님이 연단하심 (1-11절)

바벨론의 공격으로 혼란에 빠진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형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속이는 일을 밥 먹듯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로 쫓겨 난 이후 죄악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죄를 짓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정의와 공평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물들어 있는 사회를 정화하시는 방법은 심판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해서 그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연단 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치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같이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7절)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나면 주의 백성들은 다시 순수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12-16절)

이스라엘의 심판을 설명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12절을 통해 왜 이런 상황이 닥쳤는지를 아는 자

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며 13-16절에 심판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알을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이 반역한 부분에 대해 다섯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둘째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고, 셋째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고, 넷째는 완악한 마음 곧 자기 고집대로 살았고, 다섯째는 조상들이 가르쳐준 바알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섯 가지로 벌 하십니다. 첫째로 고통을 상징하는 쭉을 먹게 하시고, 둘째로 독을 탄 것 같은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셋째로 그들을 흠으시고, 넷째로 진멸하도록 칼을 보내시고, 다섯째로 진멸 곧 끝장을 내실 것입니다.

### 3.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 (17-26절)

하나님께서서 곡하는 여인들과 지혜로운 여인들을 불러서 애곡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슬퍼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애곡으로도 하나님의 슬픔 마음을 위로할 수 없어서 이웃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큼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은 어느 정도인가요? 21절에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새번역)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참혹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사체가 분토같이 들에 버려져 있고 둘째는 아직 추

수하지 못한 곡식단 같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심판을 통해 연단 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들을 진정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깨달아 진정한 백성으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 하는 까닭은 무엇이며 지금 우리가 받는 연단은 무엇이 있습니까? 연단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 2 우리 가정이나 교회, 나라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한 것인지 나누어봅시다.
- 3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10

야훼와 같은 신은 없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0장 1-25절
찬송	63장(없음), 70장(통79장)
간직할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렘 10:12-14)
주제	우상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든다.

말씀 앞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심하게 비난받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우상숭배를 가장 심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특별합니다. 이 둘은 이스라엘의 노골적인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신앙(야훼를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마약중독자가 마약을 끊지 못하고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상에 중독되어 우상을 찾았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우상중독 증세를 보이는 이스라엘이 우상들의 집합소라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아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우상들에 강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우상숭배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상들의 나라로 끌려갈 처지에 놓인 유다 사람들에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을 야훼(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밝혔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1-5절)

예레미야는 먼저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1절)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터이니 허투루 듣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신앙의 기본자세는 듣는 데 있습니다. 듣기 위해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2절)고 권고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향하는 “여러 나라의 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상을 숭배해선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또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천체를 신으로 숭배하여 별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신들이 주는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

적인 징조는 두려워하고, 긍정적인 징조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방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천체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선언합니다(창 1:14-19).

예레미야는 천체와 관련된 우상숭배를 금한 다음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수입한 우상들에게 관심을 돌립니다(3-5절). 우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이 질문에 예레미야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다”라고 답합니다.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조각하여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조각한 우상에 은과 금을 입혀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으므로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해야 합니다. 우상은 재료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생산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우상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든다. 우상은 신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만든 제품에 불과하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료로 그것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눈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도 못 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누군가 메고 다녀야만 하는 우상이 복은 물론 화도 주는 능력이 없으니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 2. 야훼(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다 (6-16절)

예레미야는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찬양과 고백으로 표현합니다(6-8절).

야훼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6절).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그분을 경외합니다. 주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반면에 우상은 허무하고 무능한 것들이기에 그것들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 역시 어리석고 무능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8절, 새번역) 이 단락은 사람들이 우상에 개선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찾는 것을 비난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자의 우상 실체 폭로는 9절에서도 이어집니다. “그 우상에게 얽게 펴서 입힌 그 은은 스페인에서 들여온 것이며, 그 금도 우바스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우상들은 조각가가 새긴 것, 은장이가 만든 공예품입니다. 그것에다가 청색 옷과 자주색 옷을 걸쳐 놓은 것이니, 모두가 숨쉴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9절, 새번역)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작품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점에서 이사야 예언자와 생각을 같이합니다. ‘우상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우상을 만든다.’(참조. 사 2장, 40:18-20, 44:9-20, 46:1-7)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 고백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료하게 밝힙니다. 첫째,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야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야훼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상들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습니다(11절). 12-16절에서는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야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하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이십니다.

다(12절). “호령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오도록 하시는 분, 비가 내리도록 번개를 일으키는 분이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는 분”이십니다(13절). 야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16절).

### 3. 귀양 선언과 예레미야의 기도 (17-25절)

예레미야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야훼를 좇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영안이 어두워진 유다 백성은 야훼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죄(우상숭배와 불순종)의 대가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사람들에게 속히 짐을 꾸리라고 명령합니다(17, 22절). 포로가 되어 타국에 끌려갈 것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가겠지만, 이를 뒤에서 지휘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당신의 백성을 먼 곳으로 내치시지만,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18절).

“아!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19절, 새번역)

암울한 현실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괴롭기만 했습니다.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기에 그저 고통을 홀로 견안고 아픔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이러한 곤경에 처하게 된 책임을 목자(종교지도자)들에게 돌립니다.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홀어지게 되었구나!”(21절, 새번역) 목자들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여우 떼의 소굴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22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 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4-25절)

## 말씀을 마치며

이스라엘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주신 ‘언약’과 ‘야훼의 성전’(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야말로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상에 불의가 가득한데도 언약이 있는 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한 안전이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활동 기간 내내 이스라엘과 맞붙어 이 두 가지에 대한 헛된 믿음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를 흔들며 버리고, 익숙한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윗 왕가에 주신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기만 했던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맹목적인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운데 거했던 이스라엘과 무수한 예배와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구약시대 유일했던 성전이 산산이 파괴되었는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수없이 많은 우리의 교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없고, 불법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가 없는 위로는 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약에 지나지 않아 최악의 현실을 무감하게 만들고 마주 대하기 싫은 문제들을 잠시 잊게 할 뿐입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까닭을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이라고 지적하나요?
- 2 예레미야가 말한 우상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 스스로 만든 우상에는 어떤 게 있나요?
- 3 다윗 왕가에 주신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기만 했던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맹목적인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1

언약의 파괴와 예레미야 암살 음모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1장 1-13절
찬송	191장(통427장), 314장(통511장)
간직할 말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뿔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렘 11:4)
주제	하나님께서서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요시야 13년부터 여호와김 4년 까지 꾸준히 새벽같이 일어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23년의 세월 동안 소득 없어 보이는 일을 위해 조롱과 박해를 견디며 처절한 낙심과 절망을 하면서도 한결같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본받아 꾸준히 순종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찬양지차로 반응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

지 중 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예레미야 자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사역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에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모범이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예언자들의 말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행동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전혀 쉽지 않았으나 그는 자기 어깨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고통을 짊어지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파괴된 언약 (1-13절)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언약을 파괴해 왔는지를 설명하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왔음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 시내산 계약' 파괴와 그에 따른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먼저 예레미야에게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2절).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골자를 저자는 4-5절에서 3단 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야훼(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해야 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첫 번째 조건이 성취될 때(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준수), 비로소 야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왕)이 되시고, 그들은 야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야훼께 순종함으로 두 번째 조건(야훼는 왕-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내용을 예루살렘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선포해야 했습니다(6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그들의 선조에게 “순종하라.”고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은 듣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습니다(7-8절).

야훼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9절). 이스라엘은 야훼께 반역하고 그 옛날 조상이 숭배했던 우상들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10절). 이들의 우상숭배는 그들의 조상이 시내 산에서 야훼와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당사자인 야훼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며 야훼께 매달리지만, 하나님께서 더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성읍의 수만큼이나 많고, 바알의 제단이 예루살렘의 골목길 수만큼 많아도 환난 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11-13절).

## 2.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14-17절)

예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피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 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14절, 새번역)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했으므로 더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14절). 이스라엘은 한 때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불렸으나 이제는 말라비틀어진 죽은 나무, 가지가 부러져 불에 탈 만한 썩음으로나 적합한 나무로 변해버렸습니다(16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불타 없어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음을 강조합니다(17절).

### 3. 아나돗 사람들의 예레미야 암살 계획 (18-23절)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스가랴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순교했습니다(대하 24:21). 본문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경험한 암살 음모를 회고하고 있습니다(19절). 이 단락에서는 무엇 때문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레미야가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아마도 “바벨론과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권면이 백성들에겐 가장 듣기 싫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를 선포하는 일을 매국 행위로 간주하여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 나면 그가 선포한 메시지도 함께 없어질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를 죽인다고 해서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더욱더 아팠던 것은 그의 목숨을 노린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아나돗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더 자기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예언자가 자기의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를 말씀해 주셔서 예레미야는 그 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심정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박멸하자. 굶자.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는 강력한 어조로 그것을 실행하려 했습니다(19절).

예레미야는 의로운 재판관이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야훼께 음모를 꾸민 자들을 벌해 달라고 간구합니다(20절).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야훼께 자기의 억울함을 헤아려달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암살 음모를 꾸민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의 집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멸할 때 아나돗 사람들도 함께 칠 것입니다. 장정들은 칼에 맞아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22-23절).

## 말씀을 마치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야훼를 완전히 떠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야훼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우상을 따르면서도 야훼를 섬기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유다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한 신(야훼)을 섬기는 것 보다 여러 신(우상들)을 섬기는 게 재앙을 당할 때 도움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을 섬기며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만을 바란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문을 외우듯 드리는 기도에 따라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이교도적인 생각이며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피해갈 수 없는 강령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삶은 위선이며, 우상숭배입니다.



##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웃 백성에게 하신 약속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2장 1-17절
찬송	325장(통359장), 344장(없음)
간직할 말씀	내가 그들을 뽑아 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렘 12:15)
주제	악인들의 잘못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과 신실함을 보여야 한다.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12장에서 신정론(神正論, theodicy)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정론은 ‘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을 가리킵니다. 이 이론은 ‘신이 전능하면서도 선하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물음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암살하려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라고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은 일종의 동문서답입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은 앞으

로 겪게 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탄식하며 울부짖는 게 유일한 기도일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라는 질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해 보았을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부와 명성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예레미야가 왜 악인들은 잘 되기만 하는지를 묻다 (1-4절)

예레미야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악인이 잘되는 것을 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지..., 왜 선한 세상에 악인들을 나무 심듯이 심으셔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나라나서 못된 열매를 맺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1-2절). 악인들은 입으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문제로 삼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인들’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악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주의 백성 모두를 악인으로 취급합니다.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그에게 큰 분노

를 안겨주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했던 자들이 아닌 대중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떠들어대던 거짓 예언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에서 잘나가는 악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 죽일 날을 정해서, 갈라 내어 달라고 간구합니다(3절). 예레미야는 그 까닭을 4절에서 밝힙니다. 첫째는 자연계가 악인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더는 인간의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단정하고 제멋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힘이 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경건한 사람들의 낙심과 타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 2.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질문에 답하시다 (5-6절)

예레미야는 자기가 악인들의 손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사람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앞으로 말과 경주를 할 때는 얼마나 더 힘이 들겠느냐? 또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고 있다면, 급류하는 요단강 물속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앞으로 그가 겪을 일들은 지금까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새 밭의 피’라는 말씀입니다(5절).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분노하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그의 집안사람들이 이 일에 앞

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네 친척, 네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네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6절, 새번역)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예레미야가 받게 될 보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야훼(여호와)께 신실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예언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악인들이 행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라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하여 오히려 “더 큰 믿음과 신실함을 보여라.”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능력을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고통과 연단이 따릅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은 각자 감당해야 할 자기 몫의 고난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더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0:38, 16-24).

### 3. 주님께서 슬퍼하시다 (7-17절)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으며,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지속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불의에 찌들대로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습

니다.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예언자들을 꺾박하며 그들의 예언을 방해했습니다. 이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버리기로 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복잡한 심경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일을 ‘자기 집을 버리는 일’과 비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버리는 일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자기 집을 버리는 사람처럼 많이 아파하셨습니다(7-9절).

한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던 이스라엘을 많은 이방 통치자가 와서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이스라엘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린 포도원이 주님을 향해 통곡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침략자가 몰려와 포도원을 결판냈습니다. 사람들이 밭을 심어도 가시만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10-1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16절, 새번역)

반면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14-17절).

## 말씀을 마치며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12장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일로 나의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느냐?” 되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낀 것들로만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악인과 배신자들이 잘되는 것처럼 보여도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분명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찌 보면 악인들이 주님의 백성들보다 잘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 명예를 위해서라면 영혼과 신의까지도 서슴없이 팔아넘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탐합니다. 이웃의 고통에는 안중이 없고, 그들의 번영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충실히 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불의에 항거하고, 믿음과 신의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지 말고 제 것을 포기해서라도 이웃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 말고 너희는 다만 믿음과 신실함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

실 것이다.”(마 6:33, 새번역)

악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가능케 할 의’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사명입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sup>1</sup>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 <sup>2</sup> 예수님을 믿다가 가족들에게서조차 외면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옳은지 생각해 봅시다.
- <sup>3</sup> 우상숭배와 불의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예언자들을 핍박하며 그들의 예언을 방해했습니다. 세상살이에 찌든 우리도 가끔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막힌 귀를 뚫는데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3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인가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1-27절
찬송	251장(통137장), 330장(통370장)
간직할 말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렘 13:15-16)
주제	이스라엘을 정죄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 앞에서

13장에서는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피해 갈 수 없으며, 심판의 임박함을 근거로 회개를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공동체가 임박한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곧 닥칠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11절에는 ‘베로 만든 허리띠’, 12-14절에는 ‘포도주 항아리’의 상징이 등장합니다. 이 두 상징의 핵심은 ‘파괴’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베로 만든 허리띠 (1-11절)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베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의 바위틈에 그 띠를 숨겨 두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다음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숨겨 두었던 그 띠를 다시 가져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파고 숨겨두었던 그 띠를 꺼내 보니 썩어서 전혀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럽게 사람의 허리에 착용 되던 베 띠가 이제는 완전히 썩어서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띠를 차고 거리를 배회하면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게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썩어 쓸모없어진 베 띠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한때 좋았던 베 띠가 썩어버린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10절). 썩은 띠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으며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운명이 비로 이 베 띠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썩은 베 띠가 주는 교훈은 11절에 담겨있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

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11절, 새번역) 사람이 허리에 띠를 동여매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허리띠에 동여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띠가 사람의 몸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마치 썩은 허리띠처럼 되어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포도주 항아리 (12-14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을 뜻하는 속담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무조건적인 부흥과 번영을 기대하는 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겪을 심판과 파멸만 외치던 예레미야가 이 속담을 인용하자 사람들은 “인제야 당신이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는군요.”라며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쳐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쳐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13-14절, 새번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할 것 없이 모두 술에 취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역사의식을 갖고 깨어있어야 하는 리더들이 분별력을 잃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리더들의 타락은 백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부딪쳐서 깨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결코 자비나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며 완전히 파괴하실 것입니다.

### 3. 교만에 대한 최후의 경고 (15-27절)

예레미야는 자만에 빠진 유다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백성들에게 아직도 죽음을 면할 기회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날을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어두운 산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회개할 때를 놓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에는 죄의 길을 너무 오랫동안 멀리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는 무엇 때문에 회개를 권면하는 것일까요? 이미 밝힌 것처럼 유다 공동체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신실한 소수(남은 자)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될 사람들에게 머지않아 유다에 심판이 임하더라도 그들만큼은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가 될 것을 당부합니다(15-16절).

안타깝게도 유다의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17절). 사람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거나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과 왕후에게 애가를 부르라고 권합니다(18절). 예언자는 왜 애가를 부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13장에서 언급되는

교만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유다의 모든 영광과 그 영광을 상징하는 왕관들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슬피해야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왕족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이 함께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은 포위되었고 그 누구도 포위망을 뚫을 수 없으니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의 불순종과 죄악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예레미야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사막의 바람에 나무끼는 검불처럼 산산이 흩어질 것입니다(24절). 둘째, 그들이 심판을 받아 끌려가서 살 게 될 이방인의 땅은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잊고 헛된 것을 따른 것에 대한 응징입니다(25절). 셋째, 유다의 치마를 얼굴까지 끌어올려 수치를 당하는 노예처럼 대하실 것입니다(26절).

이스라엘이 죄짓는 것은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27절). “너의 음란한 소리”는 발정기에 접어든 짐승의 소리를 뜻합니다. 예언자는 성적인 욕구가 너무 강해서 어쩔 줄 모르는 발정기 짐승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발정기의 짐승처럼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들녘과 언덕에서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예언자가 이 백성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지내려느냐?”라는 책망뿐이었습니다.

## 말씀을 마치며

13장은 “언제까지?”라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강

한 분노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예언자의 상한 마음과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을 징죄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그들이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이스라엘 회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여러분은 이 말을 해 보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리 분별 못하고 제멋대로 막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말을 던집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충고의 말로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던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가요?”

### || 말씀을 새기며 ||

- 1 13장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심판 원인을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교만하게 군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 2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 3 예레미야가 밝히는 ‘유다의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 14

##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법이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1-22절
찬송	204장(통379장), 223장(없음)
간직할 말씀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렘 14:20-21)
주제	제대로 배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키우자.

### 말씀 앞에서

14장은 시편 등을 통해 잘 알려진 탄원시의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간접적으로 탄식하고(1-6절), 직접적으로 탄식하며(7-9, 19-22절), 예언자가 탄식하고(13절),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17-18절). 가해자도(이스라엘), 피해자도(하나님), 중계자(예레미야)도, 주의 백성이 저지른 죄가 그들에게 안겨준 심판에 대해 아파합니다.

예레미야는 매우 구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백

성에게 처한 운명을 생각할 때,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유다에게 혹독한 가뭄을 내리는 것으로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나안에 가뭄이 닥치면 순식간에 기근이 임합니다.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데,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제일 크게 고통받을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이런 현실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며 구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극심한 가뭄 (1-6절)

야훼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했습니다(1절). 매우 극심한 가뭄입니다(3-4절). 이스라엘이 비를 내려주는 천둥의 신으로 숭배했던 바알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세상에 비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니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들녘의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낳은 새끼까지 내버립니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집니다. (3-6절)

주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황량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 2. 예레미야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 (7-12절)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진심을 담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백성이 지은 죄가 변명의 여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를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세 개의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정도와 심각성을 고백합니다(7절).

비록 이스라엘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심각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기도는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라도 선처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의 백성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쉽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죄와 뻔뻔함에 지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려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8절, 새번역)라며 원망 섞인 탄식을 이어갑니다. 예레미야는 한층 강도를 높여 탄식했습니다.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 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

를 그냥 버려 두지 마십시오.”(9절, 새번역)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차가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부터 불안합니다. 이 표현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당신을 거역해 왔기 때문에 더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10절)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심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12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 3. 예언자들의 거짓 신탁과 백성의 간구 (13-22절)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백성들 잘못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들을 현혹한 예언자들에게 있으니 백성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거짓 예언자들의 행보는 언제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참 예언자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참 예언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백성은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의 간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현혹한 지도자들이나 현혹당한 백성들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적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을 내려 거짓 예언자들을 쓸어버리고, 백성들을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질 것입니다(15-16절).

17-18절은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멸망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처녀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한 예레미야의 탄원을 왜 거부하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 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언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 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17-18절, 새번역)

이스라엘에 닥친 슬픈 운명을 생각하며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란 것은 ‘평화와 치료와 회복’이었습니다(19절). 그러나 공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 모두 시내 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대의 죄와 조상 세대의 죄를 모두 모두 인정했습니다(2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

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자비를 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 가뭄을 끝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치신 분이 야훼이지만, 그들을 살릴 분도 야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야훼께만 소망을 두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대로 해 주실 것을 갈망합니다(22절).

## 말씀을 마치며

예레미야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발, 백성들만이라도 살게 해 주세요.”라고 간구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잘못 배워서 그런 것이니 정상참작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현혹한 거짓 예언자들이나 현혹당한 백성들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잘못 인도한 사람들과 잘못 인도받은 사람들 모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 가르친 자나 배운 자나 모두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하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기에 제대로 배우지 그랬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게 공부하는 까닭은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배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변별력’(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리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서입니다. 리더가 잘못된 말을 하는데도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까닭은 말씀이 진리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 전하는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되겠지만,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 또한 저질러선 안 됩니다. 눈먼 자가 대중을 인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 정신을 차려야, 깨어 있어야, 살길이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키우십시오.” 이게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제1명제를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을 뜻할까요?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 2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진짜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은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그들의 입맛에 맞아서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까닭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도, 내게 필요한 말씀(또는 권면)이라 하여 뻔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아멘.”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나요?
- 3 하나님께서는 잘못 인도한 사람들과 잘못 인도받은 사람들 모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사례를 찾아보고, 그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5

만일 네가 돌아오면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21절
찬송	368장(통486장), 401장(통457장)
간직할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15:19-20)
주제	역사를 바라 볼 세계관과 안목을 키우자.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야훼(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즉 그의 모든 사역과 선포가 야훼께로부터 온 것으로 여겨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는 이 말씀을 받아먹었으며,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지 않았습니  
 다. 사람들끼리 기뻐하며 모여 있는 자리에 앓을 수도 없었고, 함께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홀로 거하게 하셨으며, 홀로  
 거하되 슬픔과 분노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내면을 가득 채웠  
 을 분노는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분노뿐만 아니라, 고립된 채 살아가  
 는 자기의 삶에 대한 분노였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기쁨으로부  
 터 배제된 채,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으로부터 분리된 채, 분노로 가득 채  
 워진 예언자의 모습. 이것이 본문이 그리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  
 다.

## 말씀을 나누며

### 1. 피할 수 없는 네 재앙 (1-4절)

어떻게든 야훼 하나님께 간구해 이스라엘에 임할 재앙을 취소하거나 보  
 류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예레미야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는 “심판으로  
 유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것뿐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뿌리째 뽑을 만한 네 가지의 재앙  
 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2-3절). 재앙이 휩쓸고 간 유다의 모습은 참  
 흑합니다. 한 때 이웃 나라들에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은 열방 사  
 이에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표본이 됩니다(4절). 예레미야는 이 단  
 락에서 다음의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

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이 임할 것입니다(2절). 하나님께서는 “떠나라!”는 명령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언자에게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염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염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2절) 이스라엘에 네 가지의 선택권을 주는 듯하지만 모두 멸망에 이르는 길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죽음과 포로 생활이 기다릴 뿐입니다.

셋째, 네 가지의 벌이 그들의 숨통을 끊을 것입니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며, 들짐승이 그들을 먹어 치우게 할 것이다.”(3절) 죽은 사람의 사체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지속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악행을 기억하십니다(4절).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으며(주전 697-643),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왕하 21:3-16, 24:3-4). 그는 유다 사람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요했으며, 온갖 별들을 비롯한 천체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또한, 성전 뜰에다 온갖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으며,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들에게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점성술과 점괘를 보는 것은 기본이었고, 늘 점쟁이들을 가까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의 죄값을 왜 백성들이 나눠 치러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잘못된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잘못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도 함

께 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이미 선포했습니다(14:13).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외치는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렘 31:29-30; 겔 18:2-4).

## 2.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 (5-9절)

과거에 이스라엘은 재앙이 내리면 하나님께 호소해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와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5-6절).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네 안부라도 물으려고 들러 보겠느냐?”(5절, 새번역) 원래는 열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 치시는 상황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마저 기대할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7-9절). “내가 이 땅의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키질하여 흩어 버리겠다. 모두들 자식을 잃고 망할 것이다. …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과부를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하겠다. 내가 대낮에 침략군을 끌어들여 갑자기 그들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치게 하고, 모두들 놀라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겠다. 아들을 일곱이나 둔 여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대낮은 이미 칠혹 같은 밤이다. 그 여인은 비천한 신세가 될 것이다. 살아

남은 자식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7-9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려 하셨지만, 목이 굳은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 3. 예레미야의 탄식과 주님의 응답 (10-21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더는 소망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탄식합니다. 그는 깊은 신음을 내며 삶을 비관합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10절, 새번역)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다 했을까요? 사람들이 준 것도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핍박할 때, 우리는 할 말을 잊게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가는 것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 순종에는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하기엔 너무 고통스럽다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치료의 하나님께서 모른 척 지나칠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그에게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참고 견디면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11절).

이스라엘을 향해 진군해 올 바벨론 군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북방의 철과 놋”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12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보화를 넘기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보화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재

양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두루 행한 죄악 때문입니다(13절). 모든 일이 끝나면 그나마 전쟁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 살아야 합니다(14절).

하나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예레미야는 “주께서 아시오니”라는 말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15-18절).

주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던지 “기억하소서 … 돌보소서 … 보복하소서 …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신속히 간섭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15절). 또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16절). 예레미야는 그동안 나라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았던 것도 강조합니다(17절). 그러나 문제는 예레미야가 아무리 간곡하게 호소해도 그의 삶은 건디기 힘든 아픔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18절, 새번역)

19-21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아픔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예언자의 불평에 잘 어울리지 않는 대답입니다. 아파하는 예언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품위를 지키지 않는다며 야단을 치십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예언자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으며 본문 어디에도 그가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그의 흐트러진 소명 의식과 사역의 초점을 분명하게 재점검하라는 권면

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소명을 재확인해 주기 위해 “돌아오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셨습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19절, 새번역)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그를 튼튼한 놋쇠 성벽처럼 만들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맞서게 하실 것입니다(21절).

## 말씀을 마치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하다보면,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사가 내 뜻대로 되진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도 오해를 사는가 하면, 열심히 하는 데도 결과는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일도 이런 데 하나님의 일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남들이 하지 않는 말을 외쳤고,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걸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안목으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닌 영성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정세가 그러했고, 내부에 산적한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때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심, 곧 첫사랑을 잃은 게지요. 나라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빌미로, 먹고 사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상에 눈길을 두었고 ‘공평과 정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졌습니다. 예레

미야는 망할 때 망하더라도 피해는 최소화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만이 살길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종교(또는 성전) 이데올로기에 찌들대로 찌들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안목조차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사역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정도로 심각한 자기 봉착의 상태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앞날을 생각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일으켜 세웁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소명과 각오를 분명히 다지라고 촉구하십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신념에 집착하다 결국 패망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맹목적인 ‘종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취할 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2 코로나19(COVID-19)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로 팬더믹(pandemic)이 지속하면서 교회에 모이는 일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절하며 시민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선 불편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방역 당국의 지침을 무시하고 교회의 본질을 쫓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16

포로의 귀환을 약속하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6장 1-21절
찬송	418장(없음), 430장(통 456장)
간직할 말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 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 (렘 16:14-15)
주제	주님은 우리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백성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백성이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할 뻔했습니다(11:21). 16장에서도 예언자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의 따돌림과 헐박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한 이래 줄곧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모든 게 즐겁다는 말은 예레미야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삶

은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감정 표현에 충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언자는 아픔을 호소하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언자의 개인적인 회고와 감정 변화를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영성은 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은 타들어 가고 있는데 겉으론 태연한 척하는 것은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데 혼자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성과 냉정을 유지하는 것만이 영성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솔직하게 속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게 제대로 된 영성입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예레미야의 생애에 대한 주님의 뜻 (1-13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2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자신이 삶을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맨 먼저 세우신 복된 제도이며(창 1:28, 2:24; 신 7:14),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시 113:9, 127:3-4)이 분명할진대, 왜 결혼을 금한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혹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이를 갖지 않는 게 좋으며, 아이를 갖지 않으려면 아예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임할 환난을 생각할 때,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명보다 더 복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면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도 그들을 위해 곡을 하거나 묻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시체들은 땅 위에 덩구는 거름 덩이처럼 취급됩니다. 칼에 맞아 죽거나 굶주려 죽은 사람들의 사체는 새와 들짐승들의 차지가 됩니다(4절). 생존자들은 제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버거울 것입니다.

결혼을 금하신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마저도 금하셨습니다(5-7절).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해도 모두의 장례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생존자의 수는 적고 경황이 없어서 죽은 사람들을 애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의 장례식에서 죽은 자를 위해 제 몸에 상처를 내고 머리카락의 일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홀린 피와 머리카락) 망자에게 일종의 ‘노잣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산 자의 미안함(죄책감)을 어느 정도 보여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 몸에 상처를 내는 이방 풍습을 금하였는데(레 19:28; 신 14:1),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은 이런 이교도적인 풍습을 행하고 있었습니다(41:5, 47:5, 48:37). 예레미야가 슬픔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신학적인 근거를 5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푸는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들였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잔칫집에 가서 하객들과 함께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8-9절). 하나님께서 유다 땅의 모든 기쁨의 소리를 끊으실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상갓집과 잔칫집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사회가 완전히 몰락하여 더는 공동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몰락한

백성은 결국 자기들이 모르는 땅으로 끌려갈 것이며, 거기서 그들이 바랐던 대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13절).

예레미야는 이 모든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하고 물으면, 조상들과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일러 주어야 합니다(10-13절).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 자기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선조들의 죄가 화근이 되기는 했지만, 결국 유다 백성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포로의 귀환을 약속하다 (14-1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날이 되면, 더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출바벨론의 하나님’, 또는 ‘출열방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탈출시킬 것이며, 그들의 조상이 기업으로 받았던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야훼(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며,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엔 회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 3. 피할 수 없는 심판 (16-21절)

하나님께서 어부들과 사냥꾼들을 불러모아 물고기와 짐승을 잡는

것처럼 사람들을 잡아들일 것입니다(16절). 하나님의 낫을 피해 어떤 이는 산중에, 어떤 이는 언덕에, 어떤 이는 굴에 숨어도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제일 큰 까닭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시체 같은 우상으로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우상들로 거룩한 땅을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 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자기가 받은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뢰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19-20절, 새번역)

조상들이 섬기고 그들에게 전수해 준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숭배해 온 우상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손수 그들을 가르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려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야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21절) 열방도 야훼가 어떤 분인지 직접 알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 열방도 회복(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회복되는 날, 열방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16장은 유다 땅에 임할 극심한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며 자녀도 낳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게다가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칫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모두 그 땅에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죄를 지었냐고 항의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 없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기에, 자기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인’은 말 그대로 불도장을 뜻합니다. 불로 달군 인두 같은 거로 지지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양심이 기능을 못 하게 되고,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즉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곤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기네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더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용서를 빌고 회개하느냐?’라는 생각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감히 주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골방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죄

인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sup>1</sup> 우리는 꼭 들어야 하는 말씀보다는 듣기 좋은 말씀에 더 반응하기 쉽습니다. 말씀은 꿀 송이처럼 달기도 하지만, 식물의 가시처럼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가 되어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sup>2</sup> 환난을 겪을 때, 우리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날 최고의 방법입니다.

17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1-27절
찬송	288장(통204장), 469장(없음)
간직할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 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렘 17:7-8)
주제	하나님을 찾을 때 찾으라.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앞 장에서 열방까지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유토피아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16:19-21). 그는 다시 유다의 암울한 현실로 눈을 돌립니다. 17장은 여러 개의 독립적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잡다한 메시지 모음집’으로도 불립니다. 이 장의 공통분모는 ‘주의 백성이 죄를 지었으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본문의 구성은 ‘지울 수 없는 유다의 죄’(1-4절),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5-8절), 치료가 불가능한 인간의 마음(9-11절), ‘예레미야의 기

도'(12-18절), '안식일 준수'(19-27절)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예언은 단지 앞날을 죽 집게처럼 꼭 집어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현재의 삶을 통찰하고 미래에 임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곧이듣지 않고 빈정대며 조롱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으나!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15절, 새번역) 그들은 자기들에게 심판은 없을 거라 착각하면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는 기쁘게 들되,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는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야훼(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던 그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참 목자'로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지울 수 없는 유다의 죄 (1-4절)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사람들의 죄를 비난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마음 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제단 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철필은 돌처럼 단단한 용지에 글귀나 그림을 새길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문제는 새겨진 곳이 그들의 마음과 제단 뿔이라는 점입니다. 원래는 부드러워야 할 백성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데, 온갖 죄와 우상에 대한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의 내적 존재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영이 우상을 사랑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유다의 죄가 제단 뿔 위에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제단 뿔에 발라 하나님의 죄 사함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제단’(단수)의 히브리어 원문은 ‘제단들’(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단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우상숭배가 방방곡곡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는지, 자녀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2절). 유다는 우상 중독 증세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의 네 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상징이었는데, 유다 곳곳에 세운 제단의 뿔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합니다(4절). 이방인들이 침략해 와서 유다를 짓밟고 주민들을 노예로 끌고 갈 것입니다. “너는, 네 뿔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네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네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주전 597년과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이 유다를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 2.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치료 불가능한 인간의 마음 (5-11절)

이 단락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등을 돌리는 사람과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각기 다른 땅에 심은 두 나무에 비교하십니다. 기본적인 차이는 물이 있고 없음에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른 하나는 차고 넘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저주

를 받을 것이며, 메마르고 소금기가 많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심어진 떨기나무와 같습니다(6절). 광야에 심어진 떨기나무는 남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생존 자체를 항상 위협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에서 선한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푸르름과 생기로 가득한 나무입니다. 사람이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제때 열매를 맺어 많은 이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9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10절).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습니다(11절). 고대 사람들은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 새들은 그들을 품어준 자고새가 자기 어미가 아닌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곧바로 어미에게 등을 진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 예를 통해 불의로 축적한 부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3. 예레미야의 기도와 안식일 준수 (12-27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14절). 그가 야훼의 주권에 매달리는 기도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신뢰해 왔기 때문입니다(15-16절).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 것도 아니지 않으나!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뢰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뢰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15-16절, 새번역)

예언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17-18절) 예레미야는 야훼께 죄를 범한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되실지라도, 그분을 의지하는 자기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되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원수들을 벌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가르침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갈등과 분노에 대해 굉장히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예언자의 원수들을 벌해달라는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픔(특히 주의 종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9-27절에서 예레미야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일곱 차례 사용하여 본문의 주제를 확실히 밝힙니다. 예레미야는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우

상을 숭배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타국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는 유다가 안식일을 범한 일을 예로 들어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마음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한 예로 삼아 백성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런 권고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예언자의 말을 꺾는 것으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죄에 익숙해진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벌해 달라는 예언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포로 생활도 피해갈 수 있고 자기네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져 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 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거느리고,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다.”(24-25절) 겉으로 보기엔 희망 있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은 더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면 회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야훼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 말씀을 마치며

흔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려주기를 구하는 기도를 ‘저주의 기도’라고 합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신약의 가르침이 귀에 익숙한 우리로선 구약에 곧잘 발견되는 ‘저주의 기도’가 꽤나 당황스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견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기도이지만, 본문에 나오는 ‘저주의 기도’ 역시 ‘기도’라는 점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인 까닭은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원수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기도’ 이면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기보다 우리 스스로 직접 원수를 갚고 보복하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김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sup>1</sup>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영성이 요구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영영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먼 길을 가기 전에, 양심에 화인을 맞아 더는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 <sup>2</sup>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을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 스스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 사례를 발표해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견주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 고민해 봅시다.

## 18

## 도기장이의 비유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23절
찬송	549장(통431장), 516장(통 265장)
간직할 말씀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렘 18:6)
주제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진흙이다.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1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6절)고 하신 말씀입니다(1-10절).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범한 죄와 받을 벌에 대한 경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11절)고 하시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11-17절). 세 번

째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암살하려는 음모자들을 대항하지 않고 그들의 악행을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19절)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8-23절).

## 말씀을 나누며

### 1. 토기장이의 비유로써 하나님의 주권 (1-12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2절)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토기장의 집으로 갔더니, 토기장이가 녹로(물레)를 돌리며 그릇 빚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못 빚어져 진흙이 터지면, 그 진흙으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그릇을 빚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6절)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흙의 미래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듯이, 진흙과 같은 인간도 하나님 손에 미래가 달려 있기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먼저 보게 하시고 이어 진리를 확신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 2. 유다의 죄와 받을 벌에 대한 경고 (13-23절)

하나님께서서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헛된 우상)에게 분향하며, 옛길에서 넘어져 결길 곧 닳지 아니한 길로 행하며 방황하는 것’(15절)을 보시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행동과 행실을 고치라)”(11절)는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는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 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 줄 책략(현자)이 있고,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가 있으니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고 그의 모든 말을 무시하자”라고 대중을 충동하여 구덩이(함정)를 파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18절).

그러자 예레미야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20절)라고 하면서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21절)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그들의 아들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재앙을 내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예레미야 1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언제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온유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으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공평하게 제재하시는 거룩한 성품인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며, 치시겠다”라고 하시면서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길과 행동과 행실을 고치기를 기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공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이라고 합니다.

셋째,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지만 사역자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 사역자로 충성하면서 교회 성장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19

##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9장 1절-15절
찬송	522장(통269장), 521장(통253장)
간직할 말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렘 19:4)
주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다.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19장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손에 들고 유다 지도자들을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유다 땅에 벌을 내리겠다는 이유와 내릴 재앙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2절)고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9절). 다음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지도자들 앞에서 손에 들고 있는 옹기를 깨트리라고 하신 후에 그들에게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

라”(11절)고, 유다가 파멸되는 참상에 대하여 전하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10-13절). 세 번째는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15절)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 (1-9절)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토기장이가 빚은 옹기 그릇을 사서 들고 유다 지도자들과 함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 즉 아들을 죽여 몰록 우상에게 바치는 더러운 곳인 ‘도벳’ 이라고도 하는 곳으로 가서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3절)고 선포하라고 말씀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유다 나라를 이방 나라처럼 불결한 곳으로 만들었으며, 자신과 조상과 유다 왕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의 신들에게 분향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으며, 죄 없는 의인들의 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4절).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바알신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는데, 이런 악행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적도, 말한 적도, 그리고 뜻한 적도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5절).

그렇다면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유다에 어떤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을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7절).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8절).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 포위되어 곤경에 빠지면, 자기 아들과 딸을 잡아 그 살을 먹고, 또 각기 친구끼리도 서로 잡아 친구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9절).

## 2. 깨진 옹기의 상징 (10-15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손에 들고 있는 옹기를 함께한 유다 지도자들 앞에서 깨뜨리라고 하셨는데(10절), 이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 예언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 예언은 ‘옹기가 산산조각으로 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깨진 옹기처럼 다시는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멸시키겠다.’(11절)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체를 매장할 곳이 없어 도벳에까지 시체를 매장할 것이라’(11절)라고 하셨으며, 이어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12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이 성읍을 도벳처럼 만들어 놓겠다’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도벳 같이 시체가 많은 땅이 되어 더러워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앙을 받게 되는 이유를 13절에서 지적하기를 유다가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방의 미신 종교를 수입하여 옥상에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다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끈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15절)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예레미야 19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이방 미신 종교의 신들을 수입까지 해서 숭배를 했습니다. 먼저는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여 바알신 우상을 숭배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번제물로 바쳤습니다(5절). 다음은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별들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향을 피워 올리고, 이방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쳐 숭배’하는 등 우상숭배의 극치를 이루는 죄악을 범했습니다(13절).

그런데도 유다는 점점 더 강도가 높은 죄악을 범했기에 하나님은 그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째, 유다 땅을 살육의 골짜기가 되게 했고(6, 7절), 둘째, 지나가는 사람들의 놀림과 모욕 거리가 되게 했으며(8절), 셋째, 유다 사람들에게 저희 아들의 고기와 딸의 고기와 그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함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란 ‘한 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상숭배란 ‘한 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므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나 국가의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살피고 국가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유다가 숭배했던 우상과 오늘날의 우상숭배를 주제로 토론해 봅시다.
- 2 깨진 옹기 비유의 행동 예언이 주는 교훈에 관하여 각자의 견해를 발표해 봅시다.
- 3 왜 예레미야의 예언에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무관심했는지 의견을 나눠 봅시다.

## 예레미야의 고난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0장 1절-18절
찬송	387장(통440장), 337장(통363장)
간직할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렘 20:7)
주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난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20장은 세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유다에게 임할 재앙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제사장 바스홀에게 핍박받는 내용과, 핍박하는 그를 향하여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친구들이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므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 나라로 끌려갈 것이며, 거기서 칼로 살해당하는 재앙이 임할 것”(4절)이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1-6절). 둘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강권 때문에 예언자가 되어, “회개하지 않으면 과멸하고 멸망할 것”(8절)이라는 예언을 반복하다가 핍박받는 아픔을 탄식하는 것과 역경 중에

서도 믿음으로 힘을 얻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7-13절). 셋째는 예레미야가 자신이 당하는 핍박의 고통으로 인하여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14절)이라고,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4-18절).

## 말씀을 나누며

### 1.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둠 (1-6절)

‘하나님께서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전의 총감독으로 일하는 제사장 바스홀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때리고 목에 썩우는 나무 고랑(차꼬)을 채워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기까지 했습니다(2절).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풀어주었는데, 이때 예레미야는 바스홀에게 먼저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3절)라고 개명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권세를 확장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바스홀’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이라는 뜻을 가진 ‘마골밋사빕’ 즉 ‘사면초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4절)라고 하셨는데, 이는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너에게 다음과 같은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너의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찢려 쓰러지는 것을 너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4절). 예루살렘의 모든 재물과 재산과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보

물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모두 약탈하고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도록 하겠다(5절). 너와 너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너의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에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6절).”

## 2. 예레미야의 고난과 기도 (7-18절)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께 “나를 권유하시므로(선택하시므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때문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7절).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기에 조롱과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예레미야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8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다의 폭력을 고발하고 유다 민족에게 임할 바벨론 침략 전쟁의 재앙’을 예언했기 때문에 날마다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심장)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골수(뼈속)까지 타들어 가므로 견디지 못하고 그만 항복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9절).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반대자들이 백성들에게 고발하라고 선동하는 것과 자기 친구들도 실수하여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였기에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10-12절). 그리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

라”(13절)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음모의 고통 때문인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18절)라는 탄식을 하였습니다.

## 말씀을 마치며

예레미야 20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는 제사장 바스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스홀이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종교지도자인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박해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는지,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폭력(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신체적)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는 유다 민족이 예레미야를 조롱하며 핍박했는데, 이유는 유다 민족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침략 재앙이 임한다고 반복적으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그것밖에 없기에 반복적인 예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예언을 선포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사랑했기에 그들이 회개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자의 말씀 강론을 받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예레미야처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생활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sup>1</sup> 예언자 예레미야는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두들겨 맞고 결박되어 감금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토론해 봅시다.
- <sup>2</sup> 예레미야는 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 각자의 견해를 발표해 봅시다.
- <sup>3</sup>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예레미야의 행동이 주는 교훈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21

##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14절
찬송	263장(통197장), 320장(통350장)
간직할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렘 21:8)
주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2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바스홀과 스바냐를 사신으로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1-2절)라고 한 일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될 것’(4절)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위기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8절)고 하시면서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9절)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집에 '아침마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탈취당한 자를 구해주고, 억압받는 자를 건져줄 것'(12절)을 명령하시면서 불순종하게 되면 '너의 대적이 되어 너희를 칠 것'(13절)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 (1-7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포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사신으로 보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2절)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너희는,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인 군대와 싸우려고 무장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의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성 한가운데로 모아 놓을 것이며, 진노(노여움)와 분노와 대노(울화)로 너희를 공격하겠다.”(4-5절)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칠 것이니 그들이 큰 전염병(무서운 열병)에 죽을 것이다(6절).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전쟁)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포로가 될 것이다(7절). 느부갓네살 왕

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조금도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죽일 것이다(7절).”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 2. 유다 백성과 왕에게 주신 말씀 (8-14절)

예레미야 예언자는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8절)고 하셨다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길이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것”(9절)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유다를 침략한 침략군인 바벨론 군대에 나아가서 항복하는 것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불순종한다고 해도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했다”(10절)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심은 바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고,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성읍에 불을 지를 것’이라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성읍들의 운명은 바벨론 왕의 손에 달렸는데, 그가 불을 질러 버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음으로 유다 왕에게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와의 말을 들으라”(11절)고 하면서,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끝 자가 없으리라”(12절)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은 종교적인 의식만으로 되

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를 행하는 것(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도 함께 중요하다는 것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예레미야 21장이 주시는 말씀은,

첫째는 시드기야가 자신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시면서 시드기야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도움을 청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보다 먼저 회개를 원하시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보다 나의 삶을 살피고 회개하는 일이 급선무인 것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시드기야와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세 가지의 재앙을 경고했습니다(6-7절). 이 재앙에 관하여 얼핏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유대 민족의 죄악이 얼마나 악독했으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비참하게 죽도록 했을까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써의 항복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한 환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때 환란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므로 항복하고 회개하며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죄악을 범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내가 시드기야 왕이라면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의견을 나눠 봅시다.
- 2 왜 하나님은 유다에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을까요? 토론해 봅시다.
- 3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각자의 견해를 발표해 봅시다.

## 유다 왕의 집과 왕들에 대한 예언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2장 1절-30절
찬송	395장(통450장), 406장(통464장)
간직할 말씀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22:5)
주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유다 왕의 집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불순종하면 성전이 황폐하게(폐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1-9절). 둘째는 유다 왕 3명의 장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의 담대한 예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살룸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10-12절).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의 하는 일을 책망하면서 침략군에게 죽어 나귀처럼 매장 될 것과 그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13-23 절). 고니아 왕과 그의 모친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24-30절).

## 말씀을 나누며

### 1. 유다 왕의 집에 회개 권고 (1-9절)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에서 유다 왕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억울하게 탈취당한 자의 고통을 외면했으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했으며, 무죄한 자를 죽여 피를 흘리게 하는 악행’(3절)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의 악행을 회개하고 고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군마)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4절)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계속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5절)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6절) 이는 ‘쓸쓸하고 기쁨이 없고 생산도 없는 곳으로써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7절) 이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 민족을 침략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일에 대하여 이방인들이 다음과 같이 증거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 민족이 서로 묻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을 왜 폐허로 만드셨을까? 저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겼기 때문이다'(8-9절)라는 것을 지적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 2. 유다 왕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 (10-30절)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 3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요시아 왕의 아들 살룸(여호아하스) 왕에게 “너는 포로로 잡혀간 외국 땅에서 너의 고향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죽을 것”(11-12절)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요시아 왕의 아들로 유다 말기에 있었던 악한 왕인 여호야김에게 세 가지로 나누어 예언했습니다. '너의 향락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큰 집(궁전)과 넓은 다락방(누각)을 지었다. 또 백성들을 인부로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잔인한 일까지 했으므로 너에게 화가 있을 것'(13-14절)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너는 남보다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15절), 너의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아 주었기에 형통하였었다.'(16-17절)라고 그의 부친의 모범을 예로 들어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는 부친과 정반대로 백성에게서 착취하고, 의로운 자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기에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너의 시체는 예루살렘 문밖에 던져져서 나귀같이 매장이 될 것이며, 너의 죽음을 슬퍼할 자도 없을 것'(18-19절)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왕에게 '너와 너의 어머니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죽게 될 것'(26절)이라고 했습니다.

## 말씀을 마치며

예레미야 22장이 주시는 말씀은, 첫째는 7절에서 “내가 너를 과멸할 자를 준비하리니”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유다 민족을 침략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징계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13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왕권을 이용하여 궁궐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 일에 동원된 백성들의 품삯을 착취했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품삯을 주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빚진 것은 없는지 살펴서 원망듣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궁궐을 화려하게 꾸미는 사치스러운 생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치와 허례허식을 멀리해야 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 23

# 흔어진 양 떼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1-40절
찬송	569장(통442장), 570장(통453장)
간직할 말씀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23:4)
주제	양들을 살릴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

### 말씀 앞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며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할 때입니다. ‘아니, 사역자에게 자녀들 신앙생활을 부탁하는 게 왜 곤란한 일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이 곤란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권사님의 교회 생활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교회의 모든 봉사를 앞장서서 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참여하는 봉사의 현장에서선 항상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의 중심엔 꼭 그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뒤가 다른 모습 때문

입니다. 교회에선 누구보다 선한 모습으로 보이시지만, 집에서는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폭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론 권사님은 하나님이 아닌 복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 예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화하면, “엄마가, 시험 기간인데 무슨 교회냐고 학원에 가라고 하셨어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제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왜 권사님의 요청을 곤란해했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는 아이들 대부분은 가나안 성도(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일컬음)라 불리며, 신앙은 있으나 교회에 가지 않고 있죠. 그 많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줄 모르고, 세상 사람보다 더욱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사는 처음 된 자들 때문입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당신은 목자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1절).” 하나님께서는 본 장의 1절을 통해 양 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한 책임을 목자에게 돌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본장에서 말하는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유다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로운 왕인 요시아 왕이 죽은 후

유다의 지도자들은 우상숭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범죄의 삶을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파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양 떼를 멀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목자는 목회자들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소정의 과정을 거친 공식적인 목자입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이 목자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자라는 역할을 착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른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목회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왕의 역할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 하며,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 놓으신 길을 먼저 알고 있는 ‘목자’일 뿐입니다. 목회자들은 그저 그 길로 양들을,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은 목회자들이 양 떼를 멀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는 선배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들만 목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한 대로 다음 세대들은 먼저 신앙을 갖게 된 선배 신앙인들을 통해 인도함을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예배 중에 조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자녀들도 예배 중에 졸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아시나요? 이처럼 모든 생활을 함께하는 부모의 신앙생활은 자녀들 신앙의 로드맵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목자인 줄 모르며, 목회자만 바라보고 있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음 세대들은 자신의 부모나 교회의 선배 신양인들의 모습을 통해 신앙을 배워갑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목자인 것을 잊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길을 잃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 2. 양 떼들이 흩어진 이유

하루가 멀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들의 소식이 다음 세대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입니다.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전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고 혼자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할 다음 세대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당연히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타락을 전체 목회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옳을까요? 다음 세대들도 소수의 비행을 일반화해선 안된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며, 타락한 목회자들을 비추어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의 모습을 본 후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뉴스에 나올 만큼은 아니어도 크게 다를 바 없는 듯한 목회자의 모습들, 주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세상을 닮은 모습을 보며 다음 세대는 신앙을 잃고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에 있어 적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않은 길을 걷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 역시 올바르게 않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 장 31-32절에서 목자들이 양 떼들을 떨하고 흩어지게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와 말씀이라고 말하며 무리를 가르치지만 사실 그 가르침은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목자들이 꾸민 꿈이었을 뿐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6-27절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 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바로 바알을 섬기는 삶입니다. 바알은 가장 대표적인 우상으로 풍요의 신입니다. 유다의 양 떼들을 흩어지게 한 목자들은 우상인 바알을 섬기며 그 길로 양 떼들을 끌고 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흩어지고 있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과 풍요라는 헛된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 목회자들과 부모들의 모습을 봅니다. 크고 높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회의 성공인 듯 목회하는 목회자들, 열심히 하나님께 빌면 풍요의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여러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 그들의 뒤를 따르며 자라고 있던 다음 세대들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 떼들이 떨어져 흩어지고 있습니다.

##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께서 본 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 떼들에 보낸 목자임을 깨달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역할은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책임감이 생기면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임을 깨닫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목자의 역할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지금도 많은 양 떼들이 흩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언어와 시선, 나의 행동들이 과연 양 떼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목자가 되어 양 떼들을 흩어버리는 것이 아닌 양 떼들을 모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자는 누구일지 토의해 봅시다.
- 2 목자들이 양 떼를 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토의해 봅시다.
- 3 잃어버린 양 떼를 찾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토의해 봅시다.

## 24

#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1-10절
찬송	461장(통519장), 406장(통464장)
간직할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렘 24:5)
주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말씀 앞에서

많은 청소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대학에 들어간 후 교회를 떠나게 된 청년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대학에 들어와 보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즐거운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기에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비단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나의 욕구를 세상에서 채움 받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를 풍요롭게 해 줄

것 같은 세상의 것들에 우리 역시 못 이기는 척 발길을 돌리고 있지 않을까요? 마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선악과를 향해 손을 뻗은 하와와 같이 말입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본 장을 보면 유다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며, 나머지는 유다에 남거나 애굽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 즉 바벨론의 포로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나뉘었고,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인 두 광주리를 보여 주십니다. 첫 번째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나머지 광주리에는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아서 먹을 수 없게 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에 빗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혈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5-7절)

자국을 멸망시킨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

운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포로의 삶은 예상 가능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며 수치와 고통이 가득한 일상일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리에 놓인 것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로 여기신 것입니다.

반대로 유다에 남은 자들과 애굽으로 떠난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뉘어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8-10절)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모국에 남아 그곳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 그리고 살길을 찾아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 향한 사람들을 향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이 있는 자리가 저주의 자리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어 포로의 자리가 아닌 여전히 기득권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 살길을 찾아 애굽으로 떠난 자들. 어찌 보면 포로의 삶보다 훨씬 나은 자리에 머물게

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바라보시며 나쁜 무화와 열매와 같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분노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온전한 재건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다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종종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마주한 땅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닌, 광야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의 자리로 떠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두려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과 같은 세상의 자리에 머무르려 합니다. 이처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겠다.”

## 2.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은 무화과와 같이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좋은 무화과처럼 돌봄을 받은 대표적 인물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친구들입니다.

먼저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풀무불은 쇠도 녹아버리는 곳이었지

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풀무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관리들의 계략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해선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창을 열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은 모두를 죽이는 사형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하시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앞서 말한 다음 세대들이 교회가 아닌 세상을 선택한 이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결정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와 같지 않은 이유도. 모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와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잡지 않을 때, 저들은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상황을 따

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길 원합니다. 비록 그곳이 포로의 삶과 같은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풀무불이 찬양의 공간이 되고, 사자 굴이 전도의 자리가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우리가 머무는 자리는 어떤 곳인지 토의해 봅시다.
- 2 고난이 예상되어 선택하지 않았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 3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세상 포로의 삶과 포로와 같은 고난이 예상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 25

## 알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1-38절
찬송	285장(통209장), 204장(통379장)
간직할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렘 25:4)
주제	들었다면 실천해야 한다.

### 말씀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많은 성도가 노트를 꺼내 열심히 설교를 적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행여나 한 자라도 놓칠까 열심히 적는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귀하다.’이고, 두 번째 생각은 ‘노트를 열어서 읽고, 실천하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주일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말씀의 주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많은 성도가 말씀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섰는데 한쪽에서 언성을 높여

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약속이 있어 빨리 가야 하는데, 다른 성도의 차가 앞을 막고 있었나 봅니다. 경적을 울리시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자 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차의 소유주가 나타났고, 얼른 차를 빼주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화를 낸 것이 부끄러웠는지 얼른 차를 타고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날의 설교 주제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시던 분은 교회의 직분자였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 필기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읽는 분이 있다면 더 많은 말씀에 노출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4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나, 우리는 그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을 뿐 삶으로 살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동요 ‘어린 송아지’를 아십니까?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라는 내용의 동요입니다. 언젠가 이 동요를 아이들에게 불러주는데, 동요의 내용이 신앙인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왜 올라갔을까요? 첫 번째 가설은 어린 송아지 처지에서 부뚜막이 뜨거운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괜찮습니다. 모르고 한 일을 혼내는 부모는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가설은 어미 송아지로부터 부뚜막에 올라가면 뜨거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뚜막에 올라갔을 것이라는 가능성입니다. 어미 송아지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이죠. 두 번째 가설은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도 예전에 올라갔던 부뚜막의 경험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또 올라갔을 가능성입니다.

어린 송아지의 가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를 통해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첫 번째 가설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설로 해석이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여러 우상을 섬기기에 정신이 팔려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 곧 엉덩이가 뜨거워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노트에 받아 적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성도가 유행처럼 성경 필사도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들도 알며, 그것들을 더욱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지식이죠.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는 세상의 가치도 알고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겉옷을 주면 내가 가장 추워진다는 세상의 가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 없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 2. 알고 있지만 할 수 없는 우리

본 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마 26:34).”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붙잡히신 후 베드로는 주님을 몰래 따라가, 군중 속에 숨어 주님이 재판받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어린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 저 예수와 한패지?” 베드로는 그와 같은 세 차례의 질문에 주님을 강하게 세 번 부인 합니다.

자신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주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붙잡혀 주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본 장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23년간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보다 당장의 풍요를 보장해 줄 것 같은 바알신을 더욱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 곧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세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예수께서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마 26:40-41).” 그러나 베드로는 그 경고의 말씀도 무시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험에 넘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기회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경고이며, 기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니 이웃을 사랑하고, 알고 있으니 속옷까지 벗어주며,

알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 내시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걷어차는 미련한 신부들이  
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 말씀을 새기며 ||

- <sup>1</sup>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 <sup>2</sup>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를 나눠봅시다.
- <sup>3</sup>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경고로 들리는지 나눠봅시다.

## 26

# 말씀이라는 쓴 약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 1-24절
찬송	200장(통235장), 546장(통399장)
간직할 말씀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 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렘 26:13)
주제	말씀이 쓰더라도 삼켜야 산다.

###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를 꼽자면 약을 먹이는 일일 것입니다. 쓰디쓴 약을 약병에 담아 입에 넣어주는 일이죠. 특히 고열로 힘들어하면서도 쓴 약을 먹지 않기 위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는 아이를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이 약을 먹어야 열이 내려서 편하게 잘 수 있을 텐데,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을 리 없는 아이들은 여전히 입을 꼭 다물거나 고개를 휘젓습니다.

최근 나오는 여러 서적을 보면 비슷한 양상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등의 주

제입니다. 고난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로하기 위한 달콤한 책들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말씀도 달콤한 부분만을 찾아 다닙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들. 언제부턴가 말씀마저도 우리의 입을 달게 하길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에 쓴 말씀이 아닌 입에 단 말씀만을 삼키며, 행여라도 쓴 말씀이 우리 입 앞에 놓이면 입을 꼭 다물거나, 고개를 휘젓고 있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달콤한 것만 먹어도 괜찮아?

본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쓰디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언자들의 말도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를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겠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쓰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온갖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만신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유다 백성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니 그 말씀이 불편했고, 썼습니다.

쓴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환자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만 쓴 약을 줍니다. 그 약을 먹어야 병이 낫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사가 환자의 어느 부분이 아픈지 말해주며 병을 낫게 해 줄 약을 주

었는데, 약이 쓰다며 먹지 않고 입에 단 음식만 먹는다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낫지 않고 결국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 직전에 놓인 큰 병에 걸린 유다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낫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예언자들을 통해 쓴 약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이 쓰다며 삼키지 않았고, 결국 재앙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쓴 말씀이 우리 입 앞에 놓일 때, 우리는 그것을 삼킵니까? 아니면 빨거나 먹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첨가하지 않아도 될 당분을 첨가하여 변질된 말씀으로 삼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됐든 우리를 치료할 쓴 말씀을 삼키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재앙의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 2. 쓰지만 삼키는 사람들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아주 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언자와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가만히 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쓴 말씀을 삼키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 말씀이 비록 쓰지만 삼켜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 장의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몇몇 백성들과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미가 예언자가 전한 쓴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

키셨던 것을 말하며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쓴 말씀을 삼켜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더라도 삼켰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정 중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날이 늘어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모든 날이 재앙과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쓴 말씀을 삼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난다면, 성도의 삶은 평안뿐일 것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오래전 비디오로 영화를 보면, 꼭 초반에 경고 영상과 함께 이런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 불량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경고 영상이 사라진 오늘날 무분별한 영상시청을 통해 다음 세대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절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고는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쓰디쓴 말씀은 신앙을 지킬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며,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쓴 말씀을 삼킨 성도들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돼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의 타락과 세상 사람들의 타락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

의 쓴 말씀을 삼키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된 성도가 건강해야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쓴 말씀을 기쁨으로 삼키길 원합니다.

|| 말씀을 새기며 ||

- 1 내게 주신 하나님의 쓴 말씀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나눠봅시다.
- 2 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였을지 나눠봅시다.
- 3 나는 세상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2절
찬송	323장(통355장), 595장(통 72장)
간직할 말씀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렘 27:8)
주제	나는 하나님이다.

### 말씀 앞에서

매일은 아닐지라도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으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로하게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살피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본문의 유다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살피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재정비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믿음으

로 참여하기를 바라며 본문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나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다 (1-10절)

본문을 시작하면서 혹여 적당히 말하여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백성들이 있을까 한 말씀도 빠트리지 말고 다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심을 봅니다.

그 시작의 말씀은 멩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멩에는 소의 코를 뚫어 매는 것입니다. 이는 소가, 원하는 길을 가거나 쉬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하며 멈추어야 하며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곧게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멩에를 매지 않으면 쟁기를 매지 못하고 쟁기를 매지 못하는 것은 일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멩에를 매는 것은 구속입니다. 나는 주인에게 순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멩에를 매고 있나요? 누구의 멩에를 매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멩에를 매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자기 환경이나 생각, 형편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옳은 신앙을 가진 유다에게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길 선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하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언자 예

레미야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은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였나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매우 억울해 합니다. 공예배에 잘 참석하며, 봉사도 잘했고, 십일조도 잘해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고민하고 괴로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는 반응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왜 전쟁에서 저 포로가 되어야 하는지 의아해 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너무 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렵게 살고, 돈도 명예도 없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오해를 사서 주위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모든 것이 형통하여 잘되면 좋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처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것을 주심 받은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살펴봅시다. 단호하게 하나님은 내게 집중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름대로 이해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정치에, 권력에, 재물에 속아서 복음을 다르게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에 속아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한 자는 적(사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포로인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6-7절에서 한 가닥 희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도 한 가닥 희망을 제시하시는데 언제일지는 몰라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날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의 명을 메고 순종으로 살아 환난과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자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 2. 심부름을 잘해야 한다 (11-17절)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어렵게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쟁기질해야 하니 보습을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읍에 나온 아들은 신기한 것에 홀려 구경하다 어느 생선가게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는 아버지 심부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습을 사서 받을 갈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러나 그는 생선을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니 이것을 사 가야겠다. 그러면 아버지도 좋아하시겠지!’ 생각하고, 생선을 사서 즐겁게 돌아왔습니다. 아들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상황을 보고 이 메시지를 전하면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변형된 다른 메시지를 외쳤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심부름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한해 농사를 시작도 못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 해도 굴하거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

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심부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자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말입니다. 성경에 당시 예언자로 활동하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대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히 빼앗긴 성전 기구는 속히 돌아올 것이라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고 외쳤습니다.

이를 예레미야는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한 자들이기에 저들의 예언은 거짓이라는 것을 외치며 속히 명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할 것이라 전합니다.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거짓을 더 신뢰하는 왕과 백성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복 받는 성도, 가정, 교회, 사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만이 흑암에서,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에 심부름 잘하시는 성도로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3.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18-22절)

18절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강조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불편하고 괴롭고 죽을 것 같다 해도 “하나님을 믿어라.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인생까지도 포기하지 말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되돌리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함은 하나님께 하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사업장애, 가정에,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보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여 죄짓지 말고 나와 기도하라 하시십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후련해 질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그분이 돌아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시기까지 구하여 나와 가정, 교회, 사업장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그늘 아래로 회복되기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엔 책임이 따릅니다. 말씀을 편하게 해석하여 내 형편이 이래서라는 핑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빈 마음으로 잘못된 선택, 듣기에 달콤한 말에 혹해서 다른 결과를 얻을 것인가요? 본문 예레미야의 외침을 가슴 깊이 새김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홍 같은 죄일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시다. 잘못되고 거짓된 말에 속아서 아직도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으나 포기하진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시다.

지금 전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살길이라고, 그분 안에 행복이 있다고, 생명이 있음을 외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 28

## 거짓 예언자 하나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8장 1-17절
찬송	94장(통102장), 410(통468장)
간직할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주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렘 28:16-17)
주제	말씀을 분별하는 은사를 사모하자.

## 말씀 앞에서

SNS로 인해 세상이 빨라지고 넓어지다 보니, 거짓 정보가 바른 정보인 듯 떠다니는 것을 쉽게 목격합니다.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사명감으로 옮겨 나르는 무책임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말에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번복하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받은 자답게 행위로 믿음

을 표현해야 하고 아니면 구하여 받도록 해야 하는데 받지도 않고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 그런 척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선지자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단하고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죽고 사는 문제일 경우엔 더 어려운 문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를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하나님의 말씀 1 (1-4절)

기브온 앓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나라고 소개된 그는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언자 예레미야는 더 막막한 예언을 쏟아 놓아 불안을 극대화한 상태에서 하나냐가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브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지나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어떻습니까? 속이 후련하십니까?

‘그래. 이래야 우리 하나님이지.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이 왜 우리를 버리시겠어? 어찌 당신의 백성을 이방인에게 붙이신다니 말이 안 되지.’ 하나냐 예언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말할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닦쳤는데, 옆을 보니까 쉽게 벗어날 방법이 보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쉬운 길로 가시겠습니까? 본문에서처럼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해 왔는데 피할 길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처한 광야를 믿음으로 벗어나 잠시 고난이, 고통이 있다 해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받아먹기에 솔깃한 말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냐의 솔깃한 말에 따라나섰습니다. 자신들이 걸어온 신앙의 노선과 생각이 엘리야보다 하나냐의 말이 더 맞다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런 고민에 빠지신 분 계실까요? 끝까지 버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남은 자를 쓰십니다.

## 2. 하나님의 말씀 2 (5-9절)

여호와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이같이 하옵소서.” 이마도 이 말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본인도 아니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발 자기가 틀리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어느 예언자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지, 어려움, 저주, 불편한 메시지 전하길 원하겠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도 같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저 성도가 저렇게 살

면 안 되는데 상처받을까 해서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데 오히려 오해하여 시험 들고 낙심하는 모습을 볼 때 엘리야의 심정이지 않을까요?

하나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였을 엘리야는 자신의 바램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사명에 충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가슴 저리게 듣고 회개하여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리에서 돌이키길 원하였을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훈계해야 하고, 책망해야 하고 따끔하게 호통을 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나 예언자자를 향해 과거 예언자들의 예언을 상기시키며 “네 예언이 맞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가슴을 후비고, 눈물이 나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을 동행해 주실지에 관심을 가져 어려운 시험에서 고난에서 흑암의 터널에서 이겨내는 성도되시기를 바랍니다.

### 3. 거짓의 결과 (12-17절)

제사장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맨 멩에를 빼앗아 꺾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과시하였으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 멩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멩에를 만들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하셨던 말씀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유다민족에게 임하였고 나아가 멩에를 꺾음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짐승들까지도 느브갓네살을 섬기라 말씀하

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빗나간 삶을 살 때, 성령님의 사인(sign)이 있습니다. 이 사인의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면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됨을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이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활로를 가로막는 일이고, 성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개인이 가정 사업장이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길이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26장부터 이어져 오는 사건으로 본 장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레미야와 그렇지 못한 하나나의 대결을 통해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 해도,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 해도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2 교회와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안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고 있나요?

## 누구의 말에 반응하는가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32절
찬송	257장(통189장), 260장(통194장)
간직할 말씀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꾀 꿈도 꾀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렘 29:8-9)
주제	구하고 전심으로 찾아 만나자.

###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말이 더 잘 들립니다. 아무리 나를 더 구렁으로 몰아넣어도 그 말이 더 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바른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며 준비하여 슬기롭게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잡혀간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1-9절)

본문은 주전 598년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5절과 28절에 재차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속히 돌아가게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여장도 제대로 풀지 않고 고국을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선포하면서 가정을 꾸려 정착해서 그들의 법을 지키며 살게 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을 관철하도록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오늘을 살며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에 부정하지 마시고 발본색원하여 예수님의 은혜의 그늘에 드시길 축원합니다.

### 2. 어두운 터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0-14절)

‘70년이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는 의구심과 허탈함과 내일이라는 아무 희망도 비전도 없는 듯 캄캄하여 깊은 수렁과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 같은 유다의 삶, 이런 그들에게 내리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자신을 돌이켜 제

자리로 돌아와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빛도 소망도 없는 어둠으로 가득한 포로의 삶 속에 아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70년의 세월을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여기 있습니다.

준비된 자는 쓰임을 받는다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준비된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견딘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포로의 삶 70년을 버틴 자들에게 내리시는 희망이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12-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주변에 수많은 거짓이 미혹하고 유혹해도 버티며 기도하며 구하여 복음의 파순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에서 세상으로 눈을 돌려 쾌락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가는 자 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서 내리시는 복음을 지키기를 자처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 3.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거짓에 대하여 (15-32절)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인 예레미야와 다른 내용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벌에서 자유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온갖 악행과 거짓과 속이는 것들과 거짓에 선봉에 선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탈선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나아 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아와 전심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붙들린 자요, 인정받은 자로 복음의 일꾼된 직임을 완수하시는 성도되시길 원합니다.

## 말씀을 마치며

순간의 고비를 넘지 못하여 미혹되거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픔을 느낍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의 목자도 그러합니다. 성도들이 악에게 속지 않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두고 중보하여 악에 물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 교회, 사업 장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비슷한 경우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 2 시시때때로 미혹의 영을 물리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와 기도하나요?

## 회복시키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4절
찬송	180장(통168장), 360장(통402장)
간직할 말씀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렘 30:8)
주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한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인하여 유대 백성들과 예레미야 예언자 사이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말이 아닌 글로 적어서 기록하라고 확고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목조목 나열해 가면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 내리시는 약속입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회복하시는 하나님 (1-3절)

29장까지의 내용으로 일단락되어 30장부터는 새로운 장을 여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라”고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할 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들의 때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즉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참고 견딘 자들에게, 말씀대로 정착해서 살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부르짖은 자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19로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불평과 부정을 입에 달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로 한 걸음 더 나오십시오! 이때가 은혜를 구할 때요, 은혜받을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시간이 속히 맞추어지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 2.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4-17절)

애타는 유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모래 위 두 발자국에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내가 그리도 힘들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느냐고, 그때 주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가 너

무 힘들어해서 내가 업어주었노라 말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아 괴로워하고 불평불만을 내놓지만, 진실은 주님이 더 아파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다 백성, 즉 하나님 백성들의 고충을 아시고 아파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사로잡힌 상태에서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갈기갈기 찢긴 상처를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모든 심령이 돌아와 예수님의 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 3. 담대히 가까이 올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18~24절)

부모가 부를 때 혼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까이 나아올 자를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러 주시길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하면서 손을 흔들며 달려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여 여러분을 지목할까 두려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전자의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어

뚝과는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때, 꼼꼼히 챙기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곳에 있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여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유다 민족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책에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멸망에 이르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야겠습니다.

누구는 되고 안되고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부정했을 때 유다가 어찌 되었는지,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올 때 어떻게 하시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를 입은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 말씀을 마치며

지금까지 예수님 만난 첫사랑을,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불순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므로 얻어진 흔적이든 순종하다가 생겨난 흔적이든 가지고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좋은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얻은 흔적들보다 순종으로 간직한 흔적들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 31

##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40절
찬송	180장(통168장), 360장(통402장)
간직할 말씀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렘 31:33)
주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라.

## 말씀 앞에서

오래된 건축물은 리모델링해서 쓰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가급적 뼈대만 남기고 철거한 후 다시 세우는 것이 편하고, 나아가 다 밀어버리고 기초부터 새롭게 세우는 것이 쉽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중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유다를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씻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대로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회복하심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1-14절)

본 장은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목표를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때가 이르면”에서 다시금 상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임을 고백하며 그때 포로가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며,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포로가 되라 하시니 포로가 되었고 회복시키신다고 하시니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다면, 가로막혀 절망이라면, 깊은 수렁에서 나올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고민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망설임도 버리고 자기의 방식 같은 것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와 기도하시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여러 곳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사 17:2; 미4:4; 습 3:13). 이젠 더는 어둠에 눌리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 2. 라헬의 애곡함을 들으시는 하나님 (15-22절)

하나님께서서는 이제는 울음을 멈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시면서 그들이 끌려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며 내가 주목하여 보고 있음을 창자가 들끓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위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설령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울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잘못된 삶이 없어서 회계의 부르짖음이 없어졌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웃음소리도 점점 없어지는 것으로 볼 때 부르짖음이 없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민하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위로 은혜가 가득 넘치는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의 위로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 3.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23-40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재설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포로에서 벗어나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축복이 선포되리라는 것을 약속하시며 포로 때 받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새 언약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파기하시고 돌에 세우는 기록판의 언약이 아닌 언약 백성 개개인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함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개인이 파기할 수 있는 언약이 아니

라는 것입니다. 전체임과 동시에 한 개개인과 약속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재화를 통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보물을 보기 위해 박물관에 찾아갑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유명한 해돋이 장소를 찾아갑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 전국을 누비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빼놓을 수 없어 음식기행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을 보기 위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새 언약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새겼기에 그 언약을 항상 간직하고 다녀야지 어느 한 곳에 모셔 놓고 가끔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셔서 복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시고 믿음으로 늘 함께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내재하심을 믿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 2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믿나요?

## 32

## 밭을 사는 예레미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44절
찬송	488장(통539장), 494장(통188장)
간직할 말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렘 32:38-40)
주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 말씀 앞에서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입니다. 부동산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시골 지역 어디에 땅을 샀다는 소문이 나면 계산 빠른 사람들은 그 근처가 개발된다든지,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 은밀하게 그 주변 땅을 살 것입니다. 나라가 평화롭고 경기가 좋을 때면 이보다 좋은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앗수르(앗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고, 남유

다는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당해서 함락 직전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이라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밭을 샀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오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장에서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해 유다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밭을 사는 예레미야 (1-15절)

전쟁의 격변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밭을 샀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산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를 이용해 부덕하게 투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화의 시대가 되면 후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밭을 샀던 것과 같이 땅의 밭을 사고, 팔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회복의 소망을 두고 아나돗의 밭을 매입할 수 있었습

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며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제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약속, 천국의 복락을 누릴 것 이란 약속 등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2. 유다가 패망한 이유 (16-35절)

이 시기에 유다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그리고 왕들과 방백들을 포함하여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왕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언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둡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참되고 바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죄를 범하여 큰 재앙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안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집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더럽게 하였고, 우상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는 극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무사하거나 형통할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

종하는 삶을 산다면 결코 그에 따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커서 모든 죄를 감싸고 덮을 정도로 충족하다면 그것을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감사의 이유, 순종과 헌신의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 정녕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3.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 (36-44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나돗의 밭을 매입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당장의 현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패망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패망 위기에서 그의 탄식은 더욱더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서도 의를 지키며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잡혀가서 노예 생활할 것이지만 그 기간은 반드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주셨으며 더 나아가 그에게 장래에 주어질 복된 약속,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축복된 일을 말씀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셨고 그로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만 아니라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처럼 행하십니다. 곧 그들의 기도에 구

체적으로 응답하실 뿐 아니라 넘치는 은혜의 약속을 베푸시고 위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열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분과 가까이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온갖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확고한 삶, 견고하고 굳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멸망을 바로 앞두고 받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비록 고난과 수고, 어려움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소망이 확실하다면 예레미야와 같이 값을 치르고 땅을 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막벨라 굴을 은 사백 세겔에 샀습니다. 요셉도 지도자가 될 희망을 품고 노예살이하고 옥살이를 하며 값을 치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회복의 꿈을 꾸고 사십 년 양치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꿈꾸며 서른 살까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소망을 갖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몸과 마음을 투자하며 소망을 갖고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값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가 유다의 패망과 같이 종말의 때라면 종말의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삶이 유다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소망을 갖고 기꺼이 나의 모든 삶을 드려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증거로 희생의 값을 치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하나님 앞에 가증한 나의 죄악으로 인해 그 보응이 임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 2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 3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으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까?

## 33

##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에 관한 약속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26절
찬송	287장(통205장), 288장(통204장)
간직할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2-3)
주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더욱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 말씀 앞에서

위기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누르는 비상 번호가 있습니다. 응급신고는 119, 범죄 신고는 112, 그리스도인의 응급 비상 번호는 333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위급하고, 낙심되고, 상처 회복이 필요할 때 이 333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직행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간절히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셨고, 고통당하는 곳, 절망스러운 곳에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머지않아 나라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귀환하여 그 땅에서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삶이 영위될 것이며, 동시에 한 의로운 가지 곧 메시아를 보내 다윗 왕가가 회복되어 진정으로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나라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지, 또한 구원의 새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구원을 약속하심 (1-13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란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사죄와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약속하셨고(6-9절), 그리고 회복된 유다 땅에서 찬양과 제사가 재개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10-11절).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범죄에 대해 징계는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

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순히 받으며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며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소홀히 여기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로 여겨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은혜로 받아들일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 시련의 풍파가 몰아칠 때, 고독의 자리에 내던져져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려주기 위함인 줄로 알고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려 그분과 복된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2. 회복된 모습과 메시아의 약속 (14-18절)

구약에서 다윗의 나라와 레위인의 제사장직은 신정정치인 두 기둥이며 기본입니다. 이 두 기둥은 유다가 멸망함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복과 더불어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옴으로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릴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의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 시킬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모두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 하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다른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선민 회복 약속은 단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예표하는 모든 성도의 구원 약속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영속성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아무런 장애도 없게 된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직접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 대하여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벧전 2:9). 모두 하나님 앞에 선 영적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3. 하나님 약속의 신실성 (19-22절)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에게 낮과 밤이 변하지 않듯이 자신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점을 내세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불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모든 약속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고 그날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그 약속의 성취의 참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천국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그리스도의 재림으

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라.”(행 1:7) 실로 천국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오직 하나님의 심중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만이 천국 구원의 약속 성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 말씀을 마치며

이스라엘은 자신을 스스로 선민이라 칭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멀리하면서 우상숭배를 일삼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즐길 것들에 빠졌으며, 이방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의 회초리를 든 것이며, 그들은 치명적인 상처 속에 소망 없는 나날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금 궁핍의 손을 펴사 그들을 치료하며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죄와 허물 속에 영원히 멸망할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죄로 막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분홍빛보다 더 붉었던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하얗게 씻

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징계하실 때에는 오히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 하겠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부르짖고, 응답받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는 복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은 언제입니까?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여 낫게 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 3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다윗의 후손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나임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편에 서 있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34

## 유다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1-22절
찬송	310장(통410장), 314장(통511장)
간직할 말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렘 34:8-9)
주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이다.

## 말씀 앞에서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형태로 ‘평등’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평등하게 살기 위해 어떤 실천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법(출 21:2; 신 15:12)과 희년법(레 25:13)입니다. 희년법은 정해진 해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팔거나 빼앗겼던 자기 땅의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하고, 노예법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을 6년이 넘게 종으로 부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만물의 주인

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레 25:23), 사람 간에 평등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군대가 맹렬하게 침공해오자 국가의 존립에 위협될 만큼 위급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율법에 근거하여 노비를 해방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바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전쟁이 너무 다급하니까 고관들이 일단 노예들을 풀어주기로 했지만, 바벨론의 침공이 잠시 수그러들자 마음을 바꿔, 풀어준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증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약속을 파기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살펴 보며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시드기야 왕의 운명을 예언함 (1-7절)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기 2년 전인 주전 588년부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헛된 위로를 전했고, 유다왕 시드기야는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끝까지 대항하여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불사름을 당하고, 시드기야 자신은 바

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뒤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안전할 자는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비로 그에 대한 심판이 유보된다고 해도 그 최종적인 상태는 멸망입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의 전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마지막 살길을 놓아두셨는데 불구하고 외면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좇지 말고, 유일한 구원이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 허물, 죄악을 아뢰며 그분이 베푸시는 유일하며 완전한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되었다 하여 방종하거나 교만해져서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의 불의한 자들과 같이하지 말고, 인생의 생사화복과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겸손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2. 언약을 깨뜨리는 유다 백성들 (8-22절)

예루살렘성의 풍전등화 위기에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 언약을 체결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는 노비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명의 군사도 아쉬웠기 때문에 노비들이 자발적으로 군사적 행동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언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맹인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자, 바벨론 군대는 잠시 포위를 풀고서 외곽으로 퇴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드기야왕은 예루살렘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

하고, 노비 해방령을 철회하고 다시 주인에게 매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일을 단지 정책이 바뀐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깨뜨린 것으로 여기시고, 그 결과가 더욱 혹독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맺는 언약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언약을 파기하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약속이란 것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며, 너무나 쉽게 약속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의 약속조차 손쉽게 어기면서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녕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해야 하듯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스스로 내뱉은 말, 사람들 앞에서 한 다짐, 약속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약속은 깨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든 간에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곧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 3. 언약을 깨 자들을 징벌하심 (17-22절)

하나님께서서는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

| 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17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자유를 선언하시고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어머니 품속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군집 생활하는 물개나 갈매기 같은 경우 새끼들이 호기심에 부모의 곁을 떠나 다른 물개나 갈매기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순간 우리도 이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유의 억압이라 여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속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요 6:68)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 73:28)고 말한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분의 능하시며 은혜로운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서 사시기 바랍니다.

## 말씀을 마치며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형이 동생을 노예 삼는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좃아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한 유다의 고관과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상황이 어렵고 어찌할 수 없을 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두 손 들고 나아오지만, 기도가 응답되고,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서원을 완전히 까먹고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노예를 풀어줬다가 다시 붙잡아 오는 이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증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본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되게 그분의 뜻을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행해야 합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시드기야는 유다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낭패를 당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얻은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 2 유다 고관들이 노비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가 다시 종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샅습니다. 당신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편에서 못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때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 3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편에서 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 35

## 레갑 족속을 통한 교훈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5장 1-19절
찬송	433장(통490장), 436장(통493장)
간직할 말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렘 35:14)
주제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여라.

## 말씀 앞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신앙위인전기라는 책을 사주시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본받아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워낙 철부지 짓을 많이 하니까 신앙위인 전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고 배우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겐 족속이라고도 불리는 레갑 족속은 당시 유다 평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중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독특한 사람들이었는데, 집을 짓지 않았고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

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3백여 년 동안 조상 요나답이 전한 말을 그대로 지키며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레갑 족속은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았지만 반대로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떠나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레갑 족속의 신실함은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불신실함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신실한 이스라엘에는 심판을 내리시고 신실한 레갑 사람들은 축복하셨습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자신의 신앙의 길을 지속해서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적응해 나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변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패에 물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신앙의 모델로 레갑 족속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레갑 족속의 삶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오늘 레갑 족속의 신앙과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레갑 족속과 예레미야 (1-6절)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에게로 가라고 하였고, 레갑 사람을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을 들은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유는 자기

들의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영영히 마시지 말라는 규례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온 족속들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권유를 거절하고 그들의 전통을 고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특별한 믿음을 지닌 레갑 족속들을 시험하심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시험을 잘 통과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신앙적 순수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불순종을 고집하며, 신앙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한 유다 사람들에게는 살아 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당시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레갑 사람들을 시험하셨듯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익을 위한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을 통해서 그를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굳게 세우셨으며, 요셉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욥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그로 순금처럼 찬란한 믿음을 지닐 수 있게 하셨으며, 다윗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하고 모본이 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을 갖고 시험을 주실 때에는 더욱 겸허한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확신하는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서 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의 경지에 올리시고, 그 시험이 도리어 하나님의 복되심과 사랑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 2. 레갑 족속의 삶 (7-11절)

레갑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한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집도 필요 없고, 포도원이나 밭과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들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300여 년 전 조상대로부터 내려오는 요나답의 명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요나답이 이러한 명령을 한 이유는 사람이 어느 한 곳에 기거하며 소유, 소출 등에 집착하다 보면 자연스레 탐심에 빠지며 물질적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소유욕, 물질적 탐욕에 얽매일 여지를 아예 차단하고자 이런 명령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조의 명령도 거역하지 않고 잘 따르는 레갑 족속에 비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살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그보다 못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지만,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현관을 나서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고 해도 이를 외면하거나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를 삶의 규범과 원리로 삼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를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심령 깊숙이 간직하여야 할 보배롭고, 엄중한 말씀이며, 무엇보다 그 말

숨은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할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엄중하게 진지하게 받으시며 그 말씀을 왕의 명령을 받드는 충성스러운 신복과 같이 목숨을 다해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레갑 족속 사람들과 같이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 3. 재앙과 축복 (12-19절)

하나님께서서는 거듭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시고, 바른길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결국로 나가는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간절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저마다 자기 뜻과 생각대로 그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신 사랑과 긍휼을 지니셨다 해도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멸시하고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까지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는 관용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고 불려도 응답이 없다면 기분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회개의 요구와 바른길로 이끌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패역한 행태는 고쳐질 줄 몰랐고 그로 인해 그분의 마음 또한 상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재앙을 내려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지만 순간순간

범죄의 자리에도 들어설 때도 있고, 육신이 연약해서, 혹은 방심하고 깨어 있지 못하여 그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찔림을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역사를 결코 소홀히 받아들이거나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마시고, 오직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으며 구원의 삶, 축복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말씀을 마치며

한 집안에서도 조상의 뜻과 가훈을 소중히 여기고 대대손손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교만이요 큰 죄악입니다. 레갑 족속은 옛날 자신들의 선조가 했던 명령이 옳으나 그르냐를 떠나 그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듣지 않는 유다 백성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의 순종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긴 자들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십니다. 레갑 족속은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주목하지 않았던 이 경건한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열망과 의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문, 믿음의 순종은 정말 귀하고 귀한 자세입니다. 불경건한 시대에 레갑 족속 같은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가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불순종과 멸망의 길로 갔던 유다가 아니라,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바른 삶을 살았던 레갑 족속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불러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합니다(1절).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집을 짓지도 않고,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지도 않고, 장막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8-10절). 이 철저한 순종의 삶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당신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이런 철저한 순종의 때가 있었습니까? 어느 때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 3 레갑 사람들은 그의 선조의 명령 일지라도 순종하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16절). 당신의 누구와 가깝습니까?

## 회개하지 아니한 유다 왕 여호야김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6장 1-32절
찬송	262장(통196장), 263장(통197장)
간직할 말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렘 36:24)
주제	회개치 아니한 왕과 고관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듦.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서는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멸망하는 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주전 930년에 죽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왕국에 멸망하여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539 BC), 헬라(332 BC), 로마(64 BC)에 차례로 유다 속주(provincia)로 전락하여 그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주후 70년 유다-로마전쟁에서의 패배로 그 속주의 권리마저 상실하였으며, 주후 135년에는 모든 유대인이 조상들의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유다 속주는 ‘팔레스티나’(Palestina)로, 예루살렘은 유포테르(제우스)에게 바쳐진 ‘아엘리아 카피톨리나’(Aelia Capitolina)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세계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1948년 5월 14일에 기적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예레미야서를 읽는다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유다왕국의 국운이 쇠하다

유다왕국의 국운이 쇠하기 시작한 것은 요시아 왕이 이집트 왕 느고 2세의 복진을 므깃도에서 저지하다가 주전 609년 전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느고의 갈그미스로 향한 복진은 아시리아를 지원하여 바빌로니아의 서남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아가 므깃도에서 전사하자 남왕국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었다가 주전 605년에 바빌로니아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을 이김으로써 다시 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요시아를 이어 여호아하스(요하난)가 주전 609년 23세에 왕이 되었으나 석 달 만에 바로 왕 느고 2세가 25세인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김을 왕으로 삼고 여호야김으로 개명시켰고, 여호아하스는 사로잡아 이집트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야김은 느고가 요구한 은과 금을 안겨주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주전 605년부터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바빌로니아가 이집트 공략에 실패하자 친 이집트파의 특사로 주전 601년경에 조공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에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전열을 정비하여 주전 597년 봄에 예루살렘을 침공

하였고, 여호야김은 바빌로니아의 침공이 있기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을 대신하여 여호야긴이 18세(혹은 8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느부갓네살은 그를 폐위시키고, 21세가 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후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시드기야 또한 친 이집트파에 편승하여 바빌로니아 왕을 배반하였는데, 그 대가가 주전 586년 유다왕국의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요시아가 전사하기 18년 전부터(627 BC) 유다왕국이 완전히 멸망하여 바빌로니아로 유배되어간 직후까지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성전이 불탄 날이 아브(Av)월 9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성전이 불탄 날도 같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티나에서 추방된 이후 일년에 단 하루 성전파괴를 애도하는 날(Tisha B'Av)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 2.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신하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신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국제정세를 읽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유다왕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집트는 늙고 약한 사자에 불과했고, 바빌로니아는 젊고 강한 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왕들과 고관들은 친 이집트 정책을 펼쳤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다 왕들의 주변에 있던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나와 같은 예언자는 왕에게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동족을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속히 돌려 보내실 것이고 또 바빌로니아가 탈취해간 성전의 기물들도 곧 되찾게 될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유다가 목에 맨 바빌로니아

의 멩에가 꺾인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바빌로니아의 왕이 반드시 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로부터 적어도 70여 년이 지나야 고국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한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나와 스마야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빌로니아를 꺾어 버리고 예루살렘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거짓 평안’을 예언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예루살렘에 진군한 바빌로니아 군대는 18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고, 성전을 약탈했으며, 많은 수의 유력 인사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유일한 장소인 예루살렘만큼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거짓된 안일에 빠져 하나님의 뜻(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했던 결과였습니다. 이 거짓 안일에 빠지게 한 당대의 예언자들이 바로 하나나와 스마야와 같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이집트에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와 같은 무능한 왕들과 그들의 책사들이었던 하나나와 스마야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무려 656년간이나 주권을 빼앗긴 채로 제국들의 속주(provincia)가 돼야 했고, 그 이후로 1,878년간이나 세계지도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없고,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 남의 나라들을 떠돌며 온갖 박해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오므리와 아합 왕 때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패권 국가가 등장한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에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가진 채로 조공만 바치는 것과 주권을 빼앗긴 채로 속주(provincia)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매우 큼니다. 속주는 식민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후 70년에 그 속주의 권리마저 빼앗긴 채로 1,878년간이나 나라 없이 남의 나라들을 떠도는 방랑자들이 됐어야만 했습니다. 이 무서운 민족의 재앙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와 같은 무능한 왕들과 그들의 책사들이었던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한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찢고 불태우다

36장 1절에서 “여호야김 제사년”은 주전 605년을 말합니다. 주전 605년은 바빌로니아의 지배 아래 놓인 첫해를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6절의 금식일은 24시간 금식하는 대속죄일을 말한 것이거나 해가 있는 낮 동안만 금식하는 그 주의 월요일이나 목요일을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월요일과 목요일은 예루살렘에 장이 서는 날이어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으로 하여금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적게 하여 여호와와 성전에서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성전”은 예루살렘성전의 여성의 뜰을 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루살렘성전은 미문 안쪽이 유대인들의 광장인 여성의 뜰이고, 미문 바깥쪽이 광장인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장이 열린 곳은 아마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입니다.

9절의 “여호야김의 제오년”은 주전 604년을 말하며,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은 지 일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구월”은 ‘키스레브’(Kislev) 월로써 태양력의 12월에 해당합니다. 이달 유다에 금식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대필가로서 왕의 병참감이었던 스라야(렘 51:59)의 형제였습니다(36:14). 10절의 “성전 위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성의 뜰로부터 15계단 위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뜰을 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룩은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는 “문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였는데, 그 장소가 여성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의 뜰에 선 13세 이상 계명의 아들들과 여성의 뜰에 선 남녀 유대인 모두를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안 고관들이 바룩으로 하여금 자기들 앞에서도 이 두루마리 책을 읽게 하였고,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으며, 왕은 여후디로 하여금 자신과 고관들 앞에서 그 책을 다시 읽게 하였다. 22절의 “구월”은 ‘키스레브’(Kislev) 월로써 태양력의 12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왕은 겨울궁전에 머물렀고, 곁에 “불 피운 화로”가 있었는데, 23절 “여후디가 그 앞에서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이 같은 행동은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취한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행한 악한 행위였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은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였고, 끝내 멸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에 담겼던 모든 내용을 다시 쓰게 하였고, 여호야김 왕에게도 다음과 같은 경고장(29-31절)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빌로니아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 말씀을 마치며

예레미야의 예언활동 기간은 4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의 10년을 여호야김 왕에게, 또 다른 10년을 시드기야 왕에게, 바빌로니아 왕의 명을 메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망할 것이고, 바빌로니아 왕의 명을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렘 27:8-11). 그러나 거짓 예언자 하나나는 예레미야와는 정반대로 예언하였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의 명을 꺾었고, 빼앗긴 성전의 모든 기물과 잡혀간 유대인들이 이 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렘 28:2-4).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이 잘못된 예언을 믿고 참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656년간 주권을 빼앗긴 채로 제국들의 속주(provincia)가 돼야 했었고, 그 이후로 1,878년간 나라 없이 남의 나라들을 떠돌며 온갖 박해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세월이 장장 2,533년간이었습니다. 회개치 아니한 왕과 고관들이 나라를 이처럼 처참한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 회개하지 아니한 유다 왕 시드기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21절
찬송	276장(통334장), 278장(통336장)
간직할 말씀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렘 37:2)
주제	회개치 아니한 왕과 고관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다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37장 1절은 주전 597년의 상황입니다. 주전 605년에 이어 두 번째 침략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17절을 보면,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보물을 빼앗고, 여호야긴 왕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과 “용사 칠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 명 곧 용감하여 싸움할 만한 모든 자들”을 사로잡아 갔으며,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맛다니야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7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이때 곧 주전 597년의 상황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주전 586년 유다왕국의 멸망을 가져온 세 번째 침략 때의

상황을 말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후자를 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9장 1-2절에 따르면,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한 해는 “시드기야 왕의 제구년 열째 달” 곧 주전 587년 1월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 번째 달은 테벳(Tevet)으로써 우리의 1월쯤에 해당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드기야의 제십일년 넷째 달”은 바빌로니아 군대에 포위당한 지 18개월만인 주전 586년 7월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달은 탐무즈(Tammuz)로써 우리의 7월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성전이 불에 타 소실된 것은 그다음 달인 아브(Av)월 9일이었습니다. 아브월은 우리의 8월쯤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올해 2022년(히브리력 5782년) 아브(Av)월 9일은 8월 6일 해질 때부터 7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왕과 신하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

1절의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여호야긴은 주전 597년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당하기 3개월 전에 사망한 부친 여호야김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느부갓네살이 그를 폐위시키고 21세인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숙부인 맛다니야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불렀습니다(대상 3:15; 왕하 24:17). 고니야라 불리는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에 있습니다. 예레

미야는 유다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떼고 그를 섬기는 나라와 백성이 살아남을 것이라고도 했지만,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지겠고, 포로 된 중에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유배되어 갔을지라도 회개하면 회복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주는 의미가 경고든, 심판이든, 구원이든 핵심은 회개입니다. 경고의 내용이 ‘회개하라’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아서 재앙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야김 때인 주전 609-598년에는 유다왕국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다는 징조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아시리아-이집트 연합군과 싸워 이겼고, 이로 인해서 이집트는 유다왕국에 대한 영향력을 잃었으며, 아시리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친 이집트파였던 여호야김은 바빌로니아가 임명한 왕이었지만, 바빌로니아의 멍에를 벗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집트가 바빌로니아의 멍에를 벗겨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전술전략은 바빌로니아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두었습니다. 그 완충지대가 유다왕국이었습니다.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로니아에게 이미 패한 것에서 보듯이 이집트는 유다왕국을 보호해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는 바빌로니아가 주전 597년 혹은 588년 예루살렘에 진군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유다왕국

의 요청도 있었을 것이고,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이집트로 남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군대를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월에 의하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라고 했고, 11절도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2. 느부갓네살은 바로를 기만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는 시늉을 했다

5절과 11절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집트 군대와 충돌을 피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빌로니아의 기만전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당국은 이집트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3절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철수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한 때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나서 대략 100년쯤 후에 유다왕국이 처한 국제적 상황은 구한말조선이 처한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과 이집트 제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다왕국은 이집트에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주전 609년에 이집트의 느고 2세가 멸망 직전에 있었던 아시리아를 도와 바빌로니아의 남진을 차단하기 위해 갈그미스를 향해 북진하면서 이스라엘로 진군하였고, 아시리아를 돕는 나라를 적으로 간주했던 요시야 왕은 아마겟돈으로 불린 므깃도에서 이집트 군대를 저지하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유다왕국은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 이집트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로니아에 패한 주전 605년까지 대략 3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느고 2세가 임명한 유다왕국의 왕 여호야김과 정치인들은 하나냐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와 함께 이집트에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간은 바빌로니아를 이길 나라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을 매국노로 간주하는 정적들로부터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처럼 생각했던 우리야는 참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친 이집트파인 왕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렘 26:20-24). 그도 역시 예레미야처럼 침략 세력인 바빌로니아제국에 복종하라고 매국적인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는 이집트로 망명을 했지만, 이집트와 유다왕국 사이에는 종주권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 인도협정과 같은 국제법에 의해서 조국으로 끌려 와 처형되었습니다.

다.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나 우리야가 펼친 친 바빌로니아적인 예언활동은 유다왕국이 취한 친 이집트정책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고, 매국노로 찍혀 처형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 3.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옹덩이에 갇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나자 예레미야는 북동쪽으로 예루살렘에서 4km 떨어진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가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이곳은 예레미야의 출신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자면 제물로 쓰이는 양들이 출입하는 ‘양 문’을 지나야 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베냐민 문’으로도 불린 듯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가려고 한 이유는, 32장을 보면, 그곳에 숙부 하나멜로부터 기업을 무를 권리로 은 십칠 세겔을 주고 산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매입할 당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37장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는 숙부로부터 산 땅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성문을 통과하기 전에 체포되어 수문장 이리야에게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수문장은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에 항복하려고 도망가는 것으로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친 바빌로니아파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끌고 갔고,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곤장을 치게 한 후에 뚜껑 씌운 옹덩이 옥에 가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모른 채 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믿고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믿었다가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집트 군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서 전략적으로 잠시 물러났다가 이집트 군대가 회군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오자, 17절을 보면,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예레미야에게 비밀히 물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였습니다.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18-20절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18-20절) 이 가운데 19절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는 자신의 예언이 사실로 입증되었고,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모두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는 점을 왕에게 상기시킨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청을 받아들여 뚜껑 씌운 웅덩이 옥에 가두지 않고, 감옥 뜰에 머물게 하였으며, 빵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빵 한 개씩 그에게 배급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개의 빵은 마른 덩어리 빵을 의미하므로 그 양이 충분치는 않았어도 크게 부족한 양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1절에서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포위되어 빵을 만들 가루가 성중에서 다 떨어져 죄수에게 더는 빵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왕과 신하와 백성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나긴 2,533년간 겪어야 했던 비극의 이유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주된 말씀은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예레미야 25장 8-11절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랩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빌로니아의 왕을 섬기리라.

### || 말씀을 새기며 ||

- <sup>1</sup>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한 것도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멸망한 상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패권국으로 떠오른 아시리아의 서진을 막기 위해서 시리아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남왕국 유다는 시리아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아시리아 편에 섰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정치 상황을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기도합니다.
- <sup>2</sup> 구한말 조선이 처했던 상황과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정치적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처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확실한 안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 국민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숙고해 봅시다.

## 문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유다 왕 시드기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1-28절
찬송	449장(통377장), 446장(통500장)
간직할 말씀	예레미야가 이르되 ...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 바 여호와 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렘 38:20-21)
주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자.

### 말씀 앞에서

38장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상황에서 성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빌로니아가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한 때는 “시드기야 왕의 제구년 열째 달” 곧 주전 587년 1월경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기간은 주전 586년 7월경까지 18개월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겨울을 두 번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예레미야가 갇힌 구덩이의 바닥이 진흙탕이었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 두 번의

겨울 가운데 첫해든 둘째 해든 겨울에 구덩이에 갇혔었다는 것을 추정케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거의 겨울에만 내리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서 가끔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을 보면, 그 자신도 앞날이 무척 걱정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했지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최후가 얼마나 처참했는가는 39장에 나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예레미야가 바다가 진흙탕인 구덩이에 갇히다

주전 605년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로니아에 패하고 아시리아가 역사에서 지워지고 이집트가 노쇠한 사자였던 것이 드러나자, 유다왕국은 원치 않는 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되었고, 에스겔과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제1차로 바빌로니아에 잡혀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지속해서 바빌로니아에 복종하고 배반하지 말라고 예언을 했지만, 바빌로니아에 의해 왕이 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기어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빌로니아를 배반했다가 주전 597년과 586년에 각각 제2차, 제3차 침략을 받아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유다의 왕들, 특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종종 묻기만 하고 순종하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바빌로니아가 이집트보다 더 독하게 유다왕국을 다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21세 때 자신을 왕위에 올려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0년 후 31세 때에 아들들이 처형되는 것을 똑똑히 봐야 했던 두 눈이 뿔힌 채 포로가

될 운명의 시드기야는 이집트의 군사지원을 받아 바빌로니아를 막아야 한다는 반 바빌로니아파의 압력을 받고 있었고, 암몬, 베니게, 모압, 에돔 등의 주변국들이 반 바빌로니아 동맹을 맺고, 유다왕국의 가담을 종용하였으며, 하나냐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로부터는 하나님은 반드시 바빌로니아를 꺾어 버리고 예루살렘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거짓 평안’을 예언 받고 있었습니다. 구한말 조선이 친일파와 친청파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지 못함으로써 일제에 침탈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것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국제정세 판도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주전 612년 함락되기 15년 전인 주전 627년 예언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쇠퇴를 읽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627-586 BC) 근동 세계를 장악했던 아시리아는 주전 612년 신흥 바빌로니아의 나보폴라살(625-605 BC)에게 수도 니느웨가 함락당함으로써 쇠망의 길을 걷고 있었고 주변국들에 대한 지배력도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이틈을 타서 이집트가 유다왕국의 지배력을 키웠고, 이로 인해서 유다왕국에는 친 이집트파가 득세하였습니다. 이집트는 바빌로니아의 남진을 막아야 했고, 유다왕국은 두 제국의 충돌을 흡수하는 완충지대였습니다. 이집트는 근동의 패권국가와 싸우더라도 이집트가 아닌 유다, 암몬, 모압, 에돔 등의 지역에서 싸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집트는 유다왕국의 보호자가 아니라 이용자였습니다. 이런 이용가치 때문에 이집트는 유다왕국에 바빌로니아보다는 훨씬 가벼운 멍에를 메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왕국은 바빌로니아보다는 이집트에 복종하기를 원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윗언약과 성전과 왕권이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와 성전’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민족주의자들과 정치지도자들에게 성전을 마술적으로 믿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본문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을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고관들은 이 같은 말에 분노하였으며, 6절에서 예레미야를 바닥이 진흙탕인 구덩이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 2.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묻다

본문 38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일정 부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예레미야를 중오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가두거나 죽이려고 했던 반면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시위대 뜰에 두었고, 종종 은밀하게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16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겨우 30살을 넘긴 시드기야 왕이 친 바빌로니아파인 예레미야와 친 이집트파인 고관들 사이에서 사생결단하지 못하고 강성 이집트파이자 권모술수에 능한 고관들에게 질질 끌려다닌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드기야를 우유부단하고 책임을 회피한

왕이었다고 설명합니다.

17-18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냉정하게 끝이끝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행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행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20-23절에서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면 여호와와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행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띄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예언을 고관들과 공유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그들을 설득할 만큼의 리더십이 없었거나 참과 거짓을 구분하여 옳음을 선택할 만큼의 안목이나 결단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

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마 13:14) 이 예언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사 6:9). 예레미야는 15절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고 하였습니다.

### 3.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무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의 믿음이 전자에 해당하고, 예레미야의 믿음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1998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들 가운데 『눈먼 자들의 도시』와 그 후편인 『눈뜬 자들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 책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눈이 멀고, 눈먼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눈이 멀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시민이 다 눈이 멀어버리는 비극과 눈먼 상황에서 벌어지는 참혹함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육체적 장애이든, 영적 장애이든, 사회적 병폐이든 간에 흑암에 있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않은 단 한 사람, ‘안과의사의 아내’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점차 회복되고, 인간애가 살아나고, 연대의식이 살아나고, 나눔의 정신이 살아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의식이 살아나고, 그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랫동안 오물구덩이 속에서 헤매던 인간들이 벌거벗고 깨끗하게 물로 씻듯이 망하기 직전에 있던 눈먼 죽음의 도시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명예와 권세와 물욕에 빠진 우매한 민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먼 지도층이 나라를 망치고 도시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후편 『눈뜬 자들의 도시』에서는 우매한 정권이 전편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도시를 죽음에서 건져낸 실명을 피했던 유일한 한 사람, 안과 의사의 부인을 선거에서 전체 투표의 70% 이상의 백지투표를 했던 눈뜬 자들의 주모자로 몰아서 암살합니다. 이 소설들을 본문에 대입해 생각해본다면, 실명 상태에 빠져 오물구덩이 속에서 헤매던 자들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었던 것이고,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아니한 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뜬 자를 탄압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 말씀을 마치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눈먼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참 빛, 생명의 빛, 곧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눈먼 세상에 빛을 비쳤지만, 눈먼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요 1:4-5).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던 우매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은 귀먹고 어눌했던 사람이 귀가 열리고 혀의 멧힌 것이 풀리자 “말이 분명하여졌다.”고 했고, 8장 25절은 한 맹인이 고침을 받아 눈이 뜨이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귀가 열리고 혀의 멧힌 것이 풀리자 또 눈이 뜨이자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들이 바로 귀먹고 어눌한

자들이요, 눈먼 자들이며,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풀리고 눈을 뜬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입니다. 전자는 세상에 어둠과 혼돈과 죽음을 가져오는 자들이고, 후자는 세상에 빛과 질서와 생명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sup>1</sup> 내가 혹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아닌지 반성해 보시다.
- <sup>2</sup> 나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해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다.

## 예루살렘과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최후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1-18절
찬송	455장(통507장), 195장(통175장)
간직할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렘 39:18)
주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는 목숨을 얻는다.

## 말씀 앞에서

39장 1-2절에 따르면,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한 해는 “시드기야 왕의 제구년 열째 달” 곧 주전 587년 1월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 번째 달은 테벳(Tebet)으로써 우리의 1월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드기야의 제십일년 넷째 달”은 바빌로니아 군대에 포위당한 지 18개월만인 주전 586년 7월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달은 탐무즈(Tammuz)로써 우리의 7월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성전이 불에 타 소실된 것은 그다음 달인 아브(Av) 월 9일이었다. 아브월은 우리의 8월쯤에 해당합니다.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붕괴시킨 날도 655년(586 BC) 전 그날 곧

아브(Av)월 9일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올해 2022년(히브리력 5782년) 아브(Av)월 9일은 태양력으로 8월 6일 해질 때부터 7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자들은 불행한 최후를 맞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예레미야와 구스인 에벳멜렉은 목숨을 얻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의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유다 성읍들의 새로운 통치자 그다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체포되다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시기를 보면, 제2차(주전 597년 1-3월경)와 제3차(주전 587년 1월경)가 모두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라고 해 봐야 약간 쌀쌀한 정도이기 때문에 군대가 먼 길을 이동하는 데 유리했을 것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막 13:18)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군대에 포위당한 지 18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빌로니아의 고관들이 중문에 앉자, 4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라바로 갔다”는 아바라 쪽으로 곧 이집트 쪽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5절에 의하면,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고, 여리고 평원에서 모두 사로잡혔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고도차는 대략 1000m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80m 정도이고,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로 250m 정도입니다. 도망하는 자나 추격하는 자들이 높이 1천 미

터 정도의 산에서 여리고 평원으로 내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산길이라 강도당할 위험이 있어서 그렇지 도로 사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사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을 사로잡아 시리아의 “하맛 땅 립나”에 주둔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호송하였습니다. 립나는 다마스쿠스 북쪽 하맛에 못 미치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6-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8-10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성벽을 헐었다고 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사로잡은 포로들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고 했으며,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제3차에 걸쳐 바빌로니아의 침략과 유배가 완결되고 유다왕국은 철저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만큼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의 미래를 놓고 목숨을 걸고 왕과 주류세력들에 맞섰습니다. 11-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했고, 13-14절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다랴는 바빌로니아 속주(provincia)로 전략한 유다의 초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15-18절은 하나님을 믿었던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죽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38장 7-13절을 보면, 에벳멜렉은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달려가 주청하기를, 바빌로니아에 포위된 지가 오래되어 성안에 빵이 떨어졌는데,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 있으면 필시 굶어 죽게 될 터이니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왕은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했고, 에벳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줄을 내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구출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린 에벳멜렉의 목숨을 보전하신 것입니다.

## 2. 역사를 읽는 패러다임

역사를 읽는 패러다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으로만 읽는 사관이요, 둘째는 정세로만 읽는 사관이며, 셋째는 정세와 신앙 모두로 읽는 사관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예언자들은 그 이유를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한 사랑의 매였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항상 가볍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심한 경우 멸망까지 시키셨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왕국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고, 남유다왕국도 주전 586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앙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끝에 또 많은 경고와 회개 촉구가 있고 난 뒤에 닥쳤습니다. 재앙에 대한 전조는 항상 있었고 차고 넘쳤습니다.

이 전조를 읽는 패러다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신앙만으로 읽고 해석하는 틀(패러다임)이고, 둘째는 정세나 지정학적 관계에서만 읽고 해석하는 틀입니다. 셋째는 정세의 흐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읽고 해석하는 틀이다. 이 세 번째 틀(패러다임)로 국제정세를 읽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조를 해석한 사람들이 이사야, 우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원인을 국제정세나 지정학적인 탓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나라를 원상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국제정세나 지정학적 탓만으로 보았다면, 회복운동을 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600여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들의 나라에 대한 희망(Ha-Tikvah)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근거가 바로 이들 예언자의 역사를 읽는 패러다임에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에서 찾았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는가를 묻고, 그 해답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는가에서 찾았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결론을 근거로 예언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대상으로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당대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읽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놓치지 않았다

는 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회복에 대한 예언자들의 희망 근거는 국제정세의 흐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있었다는 점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 3. 예언자 예레미야의 영성

비록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었던 예레미야와 같은 당대의 예언자들은 회복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영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를 자기 민족의 빼앗긴 나라와 주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유대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민족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또 비록 유다 왕국의 멸망이 유대민족에게는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슬픈 일이며 가장 큰 재앙이었지만,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믿음과 전도 덕분에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인류가)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전 세계인들에게) 빛이 비취었다.” 유대인들의 불행(어둠, 혼돈, 죽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복(빛, 질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성이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이 뜨인 것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것을 말합니다. 이런 뜨인 눈과 열린 귀가 있을 때, 말이 분명하게 되고, 만물을 밝히 보게 됩니다.

유다왕국이 세 차례나 바빌로니아제국의 침략을 받아 재산을 몰수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하며, 사람들이 유배되는 비극을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영안이 열리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만한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귀는 멀쩡했지만, 영이(영의 귀)가 열리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매국노로 찍혀 감당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민족의 살길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간히고 매 맞고 매국노로 찍힌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생애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으며 민족의 살길을 외쳤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바른 영성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역사가 입증하였습니다.

## 말씀을 마치며

이스라엘의 멸망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로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도 읽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들은 멀쩡했지만, 영안이 열리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귀들은 멀쩡했지만, 영이(영의 귀)가 열리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예언자들의 경고를 수없이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신앙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쓰면 뵈고 달면 삼키는 신앙 곧 하나님을 자기이익의 수단과 도구로만 삼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참 예언자

들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뿔박했습니다. 그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적 재앙이었습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sup>1</sup> 만일 내가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막 8:18)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현명한가, 아니면 어리석은가 성찰해 봅시다.
- <sup>2</sup> 구상의 「기도」란 시가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들이 하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눈먼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두 이레 강아지 눈만큼이라도 보이게 하소서.” 눈뜨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이 내게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 <sup>3</sup> 여리고 맹인 거지 바디매오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여, 나를 붙잡히 여기서!”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는 겹옷을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막 10:46-52) 눈뜨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이 과연 내게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 유다 총독 암살 음모와 풀려난 예레미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0장 1-16절
찬송	425장(통217장), 420장(통212장)
간직할 말씀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렘 40:6)
주제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40장 1-6절은 39장 11-14절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39장 11-14절은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의 지시에 따라 예레미야가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 40장 1-6절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대인 포로들에 섞여 끌려온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풀어주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7-16절은 유다 총독 그다라가 암살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다라는 바빌로니아 속주로 전락한 유다의 초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41장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예레미야가 라마(Ramah)에서 풀러나 미스바(Mizpah)에 거주하다

앞장인 39장 13-14절에서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살았다”는 분명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40장 1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예레미야가 사로잡혀 결박되어 다른 유대인 포로들에 섞여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다가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호의로 ‘라마’(Ramah)에서 풀려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라마’라는 지명이 여러 곳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풀려난 곳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 라마에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한 것을 보면, 라마는 바빌로니아로 호송할 포로들의 집결지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2-4절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고, 5-6절은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를 택하지 않고 미스바를 택하여 그곳에 거주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 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

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이때 예레미야는 당대 유대인들의 기대수명을 이미 넘긴 노인이었으므로 바빌로니아로 이주할 처지가 못 되었을 뿐 아니라 유대 땅에 남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도 고국 땅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유다 총독부가 있었던 미스바(Mizpah)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km 정도, 라마(Ramah)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 2. 유대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유다 총독 그다라의 통치를 받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대 땅에 남겨둔 사람 중에 빈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39:10). 왕의 종친도 있었고, 이곳저곳에 숨어있었던 지휘관들과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으로서 왕의 장관을 지낸 자였고, 지휘관 중에는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에배의 아들들, 여사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7-8절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다라에게 이르렀다”는 뜻은 ‘그다라를 만났다’ 혹은 ‘그다라를 찾아갔다’는 뜻입니

다.

그러자 유다 총독 그다라가 9-10절에서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맹세하며,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고 하였습니다. 11-12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 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와 “심히 많이 모았다”는 말은 바빌로니아에 바칠 공물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39장 2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가 “넷째 달 아홉째 날” 곧 주전 586년 7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 그다라가 암살당한 때가 41장 1절에 의하면 그해 “일곱째 달” 곧 10월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곱째 달은 ‘티쉬레이’(Tishrei)로써 우리나라 음력 8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총독 그다라는 3개월간 유다 속주를 다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임한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밀과 보리 수확이 이미 끝나고, 무화과, 석류, 포도, 대추야자열매, 올리브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였습니다. 밀과 보리의 수확은 5월 말과 6월 초 사이에 닿는 오순절 경에, 올리브는 10월에 닿는 초막절(우리나라의 추석 곧 음력 8월 15일에 해당) 이후까지, 나머지는 오순절과 초막절 사이에 수확됩니다. 그러므로 유다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와 “심히 많이 모았다”는 말은 유다 총독 그다라가 재임한 3개월간 실제로 이뤄졌을 일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 ‘~의 아들’이란 말이 유독 많은데, 이것은 히브리어 이름의 표준 형태로서 남자아이일 경우 아이의 이름 다음에 ‘~의 아들’이란 말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철수, 배호의 아들’ 곧 ‘Cheolsoo, benBaeho’라고 합니다. 여자아이일 경우 아이의 이름 다음에 ‘~딸’이란 말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순이, 순자의 딸’ 곧 ‘Soonee, batSoonja’라고 합니다. 아이가 제사장이면, ‘하-코헤인’(ha-Kohein)이란 말이 더 붙고, 레위인이면 ‘하-레바이’(ha-Levi)란 말이 더 붙습니다.

### 3. 암살 음모를 전해 들은 그다라 총독이 그 말을 믿지 아니하다

유대인이었던 그다라가 어떻게 해서 유다 총독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도 예레미야처럼 친 바빌로니아파였을 것이고, 여호와와 말씀의 따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마 아람어에 능통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어찌면 바빌로니아 군대에 투항했고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거나 통역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로부터 65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로마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갈릴리 전투에서 로마군의 포로가 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Josephus)였습니다. 요세푸스는 나중에 황제의 배려로 로마 시민이 되었고, 티투스 장군의 통역관으로서 예루살렘의 함락을 지켜 보았습니다. 로마에서 요세푸스는 황제의 옛 저택에 머물면서 연금을 지급받았으며, 황제 가문의 이름인 ‘플라비우스’(Flavius)도 얻었습니다.

다. 그는 로마 황실의 비호 아래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를 저술하였습니다.

그다라의 부친 아히감(Ahikam)과 할아버지 사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성전에서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26장 24절에 의하면, 그때 그다라의 부친 아히감(Ahikam)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감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감의 부친 사반은 요시아 왕 때 서기관으로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 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백성 앞에서 낭독한 사람입니다(왕하 22:3-14; 대하 34:14-21). 왕은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반에게 명하여 성전에 가서 율법 책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사반은 여예언자 홀다에게 가서 예언을 받아 유다 왕 요시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다 속주의 총독으로 삼은 것이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을 잘 돌보아 유다 왕국이 회복될 때를 대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예레미야도 그다라에게 그렇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다라는 유다 땅에 남은 그 누구도 해칠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생각과 매우 달랐습니다.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친 이집트파였고, 바빌로니아를 증오했으며, 바빌로니아를 섬기는 그다라와 예레미야를 해칠 궁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다라가 유다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레미야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친 이집트파들은 그다라와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앞잡이 혹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3-16절에 의하면,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라에게 찾아와서 유다 왕족인 이스마엘이 반바빌로니아파인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Baalis)가 보낸 자객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다라는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하난은 허락만 해준다면 자신이 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다라는 요하난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이 진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다라가 요하난의 정보를 가볍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그다라가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요하난이 분열을 꾀하고 있다고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왕족이자 왕의 장관을 지낸 이스마엘을 죽이는 것은 유다 땅에 내린 끔찍한 비극에 비극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에게 이스마엘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 말씀을 마치며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바빌로니아의 끈나풀이거나 바빌로니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의 길이 없어서였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유다 땅이 바빌로니아의 속주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유다 땅에 유대인들이 남아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다왕국 회복의 희망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그다라의 오관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물거품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반란과 요하난의 개입은 유다 땅에 남은 자들에게 더 큰 혼란과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sup>1</sup> 실수나 잘못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단 한 번의 오판이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멍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다 왕들은 물론이고 유다 총독 그다랴와 그를 죽인 이스마엘까지도 동족에게 큰 비극과 고통을 안겼습니다. 후시나의 오판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 <sup>2</sup> 새찬송가 195(통175)장의 가사 가운데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고 가치 있게 만들었는지를 회고해 봅시다.

## 41

## 이스마엘의 반란과 그다랴 총독의 죽음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1장 1-18절
찬송	446장(통500장), 195장(통175장)
간직할 말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렘 41:16-18)
주제	단 한 번의 오판이 평생 멍에가 될 수 있다.

## 말씀 앞에서

39장 2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가 “넷째 달 아홉째 날” 곧 주전 586년 7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한 때가 41장 1절에 의하면 그해 “일곱째 달” 곧 10월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곱째 달은 ‘티쉬레이’(Tishrei)로써 우리나라 음력 8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총독 그다랴는 3개월간 유다 속주를 다스렸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임한 기간은 이스라엘에서 봄에 밀과 보리, 여름에 무화과, 석류, 포도, 올리브, 대추야자 열매 등이 수확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들 곡물과 열매들의 수확은 5월 말과 6월 초 사이에 닿는 오순절부터 10월에 닿는 초막절(우리나라 음력 8월 15일에 해당)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리브는 초막절 이후에도 수확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은 우리처럼 음력을 민력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태음력은 동양의 태음력과 비슷하지만, 모슬렘들의 태음력은 코란이 윤달 혹은 윤일 사용을 금하고 있어서 일 년이 365(366)일이 아닌 354일입니다. 따라서 이슬람력은 태양력인 그레고리우스력보다 해마다 11일이 짧고, 33년마다 둘 사이에 1년의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모슬렘들의 일 년은 우리보다 짧고 33년마다 1년이 더 추가됩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켜 유다 총독 그다랴를 살해하다

1-4절은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써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유다 총독 그다라에게 찾아가서 이스마엘이 반바빌로니아파인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Baalis)가 보낸 자객이라고 일러준 정보가 거짓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유다 총독 그다라가 무엇 때문에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다라가 요하난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이 진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뿐입니다. 또 이스마엘 일행이 그다라를 방문하였을 때 그다라는 그들을 정중히 손님으로 모셨고 음식을 대접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스마엘은 바로 이 식사 자리에서 보복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스마엘 일행은 단칼을 몸에 숨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아랍인들은 단칼을 몸에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식사할 때 몸을 바닥에 비스듬히 눕습니다. 식사와 함께 포도주도 곁들입니다. 이런 식사 관행은 적의 기습에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공동식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공동식사를 통해서 평화협정이나 계약체결을 인준하는 규정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창 26:30), 야곱과 라반이(창 31:54) 그러했고, 다윗과 아브넬이 그러했습니다(삼후 3:20). 쌍방 간에 의견이 교환되고, 그것이 수용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이 백성들에게 공포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다라 일행과 이스마엘 일행이 함께 공동식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구두였던 문서 형태였던, 상호 협력하고 돕자는 협약이나 계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다라의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라나 요하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계획이 치밀했고 그 수법도 비열하고 잔인했습니다. 이스마엘의 반란으로 살해된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다라의 오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유다 총독 그다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함께했던 유다 사람들과 미스바에 잔류한 바빌로니아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했던지 4절에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건의 진상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 2. 이스마엘이 그다랴에 속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해하다

5-8절 “그 때에 사람 팔십 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의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에서 이 80명의 북쪽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스마엘은 왜 울면서 이들을 영접하러 가야 했을까요?

이들 80명은 사마리아와 세겜과 실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적어도 세 군데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

로 나아가려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에서 일곱째 달은 ‘티쉬레이’(Tishrei)로써 우리나라 음력 8월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티쉬레이’ 15일 곧 우리나라 음력 8월 15일 추석 때와 같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티쉬레이’ 10일 곧 우리나라 추석 5일 전이 ‘대 속죄일’(욘 키푸르, Yom Kippur)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찾은 목적은 바로 이 ‘대 속죄일’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욘 키푸르는 회개의 날이며, 연중 가장 엄숙한 날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목욕하는 것, 화장하는 것, 가죽옷을 입는 것, 가죽신을 신는 것, 부부 행위 등을 금합니다. 이날은 죄 사함을 받고 또 죄를 용서하는 속죄일이고,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해원(解冤) 하는 상생(相生)의 날이며, 월초부터 시작한 열흘간의 회개 기도를 완결시키는 날이고, 요일과 관계없이 모든 안식일 가운데 가장 엄숙한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24시간을 금식하며, 예배로 기록하고 엄숙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양각나팔을 불니다. 예루살렘성전이 불타지 않았더라면, 이날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자신의 죄, 제사장들의 죄,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차례로 고백하는 정교한 제사의식을 거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흰 아마 옷을 입고, 일 년에 한 차례 바로 이날에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至聖所)에 들어가 제물의 피를 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진 숫염소(속죄염소)를 광야로 몰아내 죽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성전이 아브(Av, 태양력 8월쯤에 해당) 9일 곧 두 달 전에 불에 타 소실되었기 때문에 대 속죄일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단 한 개의 성전 곧 예루살렘성전만 인정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여호와와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대신에 회당은 가장이 1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하나밖에 없던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 소실된 상황에 대한 큰 슬픔과 애통과 회개, 이것이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또 이스마엘이 이들을 영접하러 나갈 때 울면서 간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무엇 때문에 굳이 죽일 필요까진 없었던 동족을 무참히 살해하였을까요? 예루살렘성전을 향해 가고자 한 북쪽 사람들이 단순히 예루살렘만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새로 임명된 유다 총독 그다랴를 방문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를 찾게 되면 엄청난 반란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은 식량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그 중의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량을 얻기 위한 것만으로 동족을 70명이나 죽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 3. 요하난이 백성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다

9절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뚫던 것이다.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처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

고”에서 구덩이는 바아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웅덩이(cistern)를 말하는데, 단순히 물을 가둬두는 큰 수조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해자 곧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파놓은 연못을 말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수개월째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물웅덩이가 말라 있었을 것이란 점입니다.

아사(Asa) 왕과 바아사(Baasha)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5장에 실려 있습니다. 아사 왕(재위 911 BC-870 BC)은 분열 유다 왕국의 3대 왕이고, 바아사 왕(재위 908 BC-885 BC)은 분열 이스라엘 왕국의 3대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들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왕상 15:16).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자” 아사가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시리아) 왕 벤하닷(Ben-Hadad)에게 보내며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기도 했던 아람은 이때다 싶어 군대를 동원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갔고, 이 소식을 들은 바아사 왕은 라마에 성을 세우던 일을 중단하고 급히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계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왕상 15:17-23)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친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쳐들어가 성을 포위하기도 하고(왕상 20:1), 여자 아이를 잡아가 종으로 부리기도 하였다(왕하 5:2). 자강(自強)에 힘을 쏟지 않고 외세(外勢)에 힘을 빌리거나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우쳐 주는 사례입니다.

10절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

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사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에서 볼 때, 이스마엘의 반란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거사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암몬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암몬으로 피신했다고 해서 안전할 리가 만무합니다. 오히려 암몬만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몬 역시 바빌로니아에 조공을 바치는 처지요 약소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에게서 유다 백성을 되찾아 온 것은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군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11절) 싸움에 나섰고,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힌 백성은 자기들을 구하러 온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하였으며, 이스마엘은 여덟 사람과 함께 암몬으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따르던 열 명 중 두 명에게는 무슨 변고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이스마엘로부터 기브온에서 빼앗은 살아남은 백성 곧 군사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내시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김함에 머물렀다.”에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대략 9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룻김함(Geruth Kimham)에서 게룻은 도로가의 숙박장소 곧 ‘칸’(Khan)이라 불리는 여관을 의미 할 수 있고, 게룻김함(Geruth Kimham)은 ‘김함의 여관’이란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게룻’이 요세푸스가 <고대사(X, ix, 5)>에서 말한 ‘기드룻(gidthroth)과 같다면, 그 뜻은 ‘허들’(울타리) 또는 ‘양 우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김함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 때 다윗이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님(오

늘날의 요르단 땅)으로 피신해오자 다윗을 도왔던(삼하 19:37) 길르앗 사람 바실래(Barzillai)의 아들이다. 압살롬이 살해되고 반란이 진압된 후 다윗은 바실래를 예루살렘으로 초청하여 여생을 같이 보내길 바랐으나, 나이가 팔십 세인지라, 다윗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대신 아들인 김함을 다윗의 신하로 팔려 보냈습니다. 김함이 연고가 없는 베들레헴 인근에 땅과 여관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래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의 땅인 베들레헴의 토지 일부와 저택을 김함에게 하사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추측에 불과할 뿐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41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또 물었더라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피는 피를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잔인한 보복은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약소국에서 펼쳐진 한 토막 역사에 그치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없이 많이, 심지어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펼쳐진 비극적 역사입니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 같은 행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기도 했고, 지금도 그 형태나 방법은 다르지만, 여전히 그 같은 일들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요하난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2장 1-22절
찬송	449장(통377장), 549장(통431장)
간직할 말씀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렘 42:11)
주제	인간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自招)한다.

### 말씀 앞에서

본문을 보면 인간에게 왜 불행이 끊임없이 지속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불과 수개월 전에 국가에 닥쳤던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 예레미야와 같은 참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과 살아남은 백성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 엄청난 재앙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함이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자 곧바로 자기들의 뜻대로 행한 것을 보아 그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대재앙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인간들의 서글픈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고 속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요하난과 백성이 속마음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다

2-3절과 5-6절은 요하난과 백성의 속마음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입으로 말한 것과 상반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2-3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는 5-6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

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와 상반됩니다.

이 구절들은 또 9절과 20절이 상반된 것과도 같습니다. 9절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2절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와 9절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우리의 탄원을” 혹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허락을 받게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와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고한 말은 그들이 속마음을 속이고 예레미야에게 말한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의 탄원을” 혹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허락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마음 편히 가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고 했고, 20절에서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는 ‘너희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또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불행을 초치(招致)하고 죽음을 자초(自招)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말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몸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결정한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로써 그들은 또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자신을 속였으며,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인간에게 지워진 명예가 누구의 잘못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自招)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고 속습니다.

## 2. 예레미야가 요하난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7-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열흘 후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백성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흘씩이나 지체한 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 멋대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회개(번복)하기를 바라셨는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예레미야가 그들의 뻔한 거짓말과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닥칠 불행을 내다보고 그들과 기 싸움을 펼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들은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지, 대안을 내놓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기도 응답을 받고서 요하난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10-17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혈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은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이 말씀에는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암시가 내포되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포함된 준엄한 경고가 바로 그들이 불순종할 것이고 실제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부르짖은 목선 외침이 대부

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 백성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먹고 말이 어눌한 영적 장애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나 수단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등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었던 것을 후회한다는 식으로 말을 내뱉곤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지가 명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기보다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도대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 듯이 하나님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손가락조차 까닥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교회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하는 것이고, 교회와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사람들한테서 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대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노력 없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요? 자신의 유익만 꾀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단 말인가요?

### 3. 예레미야가 요하난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다

18-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열흘 동안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백성의 마음속 결정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도 훤히 읽히는 그들의 속마음과 결정을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18-22절은 진실하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는 요하난과 백성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아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 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였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 같고, 뭔가 항상 손해를 보라는 식의 말처럼 들립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살았지만, 그것은 자기들

이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결과였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시행한 일에 실패를 겪었을 때, 하나님을 무척 원망하며 교회에 다녀봤자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며 불평합니다. 멸망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처럼, 요하난과 그를 따른 백성처럼 자기가 결정해 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시행해놓고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보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찬송가 195장의 가사처럼,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서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간절함 절실함 겸손함 진실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지요?

## 말씀을 마치며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 아니었나요?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불행이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예레

미야 42장의 말씀은 인간에게 왜 불행이 끊임없이 지속하는가를 충분히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은 흘러간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등장인물이 다 다르지만, 발생한 사건들은 오늘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하기에 충분한 만큼 비슷한 사건·사고들이 많습니니다. 그런데 요하난과 그를 따른 백성은 불과 3-4개월 전에 자기 나라에 자기들에게 닥친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불순종하였으며, 예언자들을 속이고 이용하려 하였으며, 자기 자신들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인간들의 서글픈 모습입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혹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나의 이야기,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저지른 실수에 적용하지 않고, 여전히 남의 이야기, 먼 옛날 유다 왕국이 처한 상황,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저지른 치명적 실수로만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 2 사람들은 왜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또 그것이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닌지도 살펴봅시다.

## 43

## 요하난과 백성이 이집트 다바네스에 정착하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1-13절
찬송	261장(통195장), 262장(통196장)
간직할 말씀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 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렘 43:7)
주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43장은 교만하여 “여호와 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6절은 “...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고 하였고, 이사야 28장 2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믿지 못했던 고대 그리스인들도 오만한 자들을 신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생각했고, 신들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보응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를 신이 사랑하여 긍휼을 입힌다고 믿었습니다. 테바

이의 왕비였던 니오베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신이 혐오하는 사람’이 되었고, 남편과 열네 명의 자녀를 잃고, 분노와 슬픔에 찬 모습의 석상(뜰)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고린도의 난쟁이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은 신들을 믿고 감사예배를 바침으로써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신으로부터 공황을 입었습니다. 신은 그가 조각한 아름다운 여성 석상(뜰)을 사람이 되게 하여 그의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리스의 파르나소스 산 중턱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계의 배꼽(움팔로스)으로 믿었던 텔포이가 있었고, 그곳에 아폴론 신이 인간들의 운명을 맡긴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상인방에 “너 자신을 알라”는 경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신 앞에서 겸손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신에게 도전하면 반드시 응보(네메시스)가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하다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는 2-3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

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2-3절은 아사라와 요하난과 백성을 일컬어 “오만한 자들”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선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가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는 자들을 일컬어 “오만한 자들”, 곧 “여호와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였고, 반대로 그들은 예레미야를 일컬어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자, 또는 바룩의 부추김에 놀아난 자, 또는 살아남은 자기들을 바빌로니아에 노예로 넘기려고 꾀수를 부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는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생존자들이 유다 땅에 남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42장 11절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또 전지전능하시다면, 이방 나라들의 모든 신이 피조물에 불과하거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짓 신들에 불과하다면, 또 만일에 바빌로니아의 창조신 마르дук이 짐승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дук으로부터 자기 백성의 나라를 보호하지 못하고 빼앗기게 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할 수 있으며, 그토록 많은 사람이 파리 목숨처럼 처참히 죽도록 둘 수 있으며, 여호와를 모신 유일한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불에 타게 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고대의 전쟁은 수호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수호신

은 마르독이었고, 유다왕국의 수호신은 여호와(야훼)이셨다. 보통 사람들의 판단으로 본다면, 여호와가 마르독에게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라는 회초리를 이용해서 유다왕국의 죄악을 훈육하신 것이었습니다(사 10:5, 15). 여호와가 마르독보다 능력이 없어서 유다왕국을 바빌로니아에 넘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관계는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613개의 모세오경 계명들(토라)뿐 아니라, 수많은 구전 율타리 법들(미슈나, 탈무드) 가운데 단연 최고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 1-2계명은 유대인들에게 닥친 모든 불행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최고의 기준이자 규범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불행하게 된 것이고,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면 회복된다는 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4-7절은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 2.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이집트 다바네스에 정착하다

요하난과 유다 백성이 정착한 곳은 이집트 땅인 다바네스(Tahpanes)였습니다. 다바네스는 다반헤스(Tahpanhes)와 드합느헤스(Tehaphnehes)로도 불립니다. 예레미야와 바룩도 이곳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착한 다바네스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아니었습니

다. 그들이 그곳을 정착지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미래는 평탄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불행이 예견되었습니다. 다바네스는 이집트의 나일 강 삼각주(지중해변) 동편 언덕에 있는 도시였다(렘 2:16). 유다와 이집트의 국경지대의 요충지로써 오늘날의 ‘텔 데프네’(Tel Defneh)로 알려져 있습니다.

8-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는 궁전 대문 앞 벽돌로 포장된 광장을 말합니다. 또 “진흙으로 감추라”는 큼지막한 돌들을 숨기기 위해서 벽돌들을 거둬내고 그 밑을 파서 돌들을 숨긴 후 진흙으로 덮고, 그 위에 벽돌들을 원위치시켜놓으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 행위 곧 퍼포먼스를 유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퍼포먼스는 그들에게 주는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10-13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 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벤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10절에서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일컬어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종”은 고대근동세계나 그리스로마시대의 개념으로 볼 때, 주인이 부리는 노예를 뜻합니다. “내 종”은 기업을 무를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돌보는 노예(몽학교사)와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몽학교사는 아이들을 교사들에게 데려다주고 감시하며 데려오는 보호자 노예였으며, 호신 겸 훈육을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13세 이상 계명의 아들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에게 부득이 손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데, 그 회초리가 바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을 돌보는 노예(몽학교사)와 같습니다. 주인의 노예들은 주인의 아들이 장성하여 아버지의 기업을 무르게 되면 그 주인의 아들의 노예들이 됩니다.

또 10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는 점령군 황제가 천막을 치고 적국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다름 아닌 바로 왕의 궁전 입구 광장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벤세메스”는 히브리어로 ‘온’(On), 헬라어로는 ‘헬리오폴리스’(Heliopolis)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수도 카이로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태양신 라(Ra)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나일 강의 삼각주가 시작되는 곳으로 고센 땅 남단에 위치하였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원정이나 이집트의 다바네스 및 벤세메스를 향한 원정이 거리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바빌로니아 군대를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이집트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겠다고 하셨

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군사지원을 받거나 거주지를 허락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량의 조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유다왕국이 어차피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조공을 바쳐야 했다면, 차라리 바빌로니아에 바치는 지혜로운 정책을 펼쳤더라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제국의 한 속주(provincia)로 편입되는 처지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3.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멸망을 말씀하시다

『역사의 연구』를 쓴 아놀드 토인비(A. J. Toynbee, 1889-1975)에 따르면, 인간의 문명은 자연환경의 도전에 직면한 인간이 성공적으로 응전을 한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속해서 발전을 하려면 새롭게 부딪치는 도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응전을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문명이 계속되는 새로운 도전들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토인비는 그 해답이 ‘창조적 소수자’의 창조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적 소수자’의 창조성이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사회를 창조성을 지닌 소수자와 그렇지 못한 다수자의 집합으로 나눴는데, 창조적 소수자는 사회의 극히 일부이지만 새로운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창조성이 없는 다수의 사람, 곧 대중의 지지를 얻어 그들을 이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유다왕국에서는 이 논리가 통하지 않았 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창조적 소수자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성(영성)이 없는 다수의 통치자는 예레미야를 지지하지 않고 탄압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유다왕국의 멸망이라는 응보였습니다. 토인비는 그것을 ‘네메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서두에서 우리는 신을 향한 오만과 자만이 사람을 석상(돌)이 되게 한 것과 신을 향한 경건한 믿음과 감사가 석상(돌)을 사람이 되게 한 그리스신화를 짧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테바이의 왕비였던 니오베는 오만했습니다. 오만했기 때문에 신들을 가볍게 여기면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본받으려 하지 않았고, 감사예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니오베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왕비였습니다. 남편 암피온은 어찌나 수금을 잘 탔던지 수금 소리만으로 돌을 들어 성벽을 쌓았던 왕이었고, 다스리고 있던 왕국도 자랑거리였으며, 무엇보다도 아들 일곱, 딸 일곱, 도합 14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즈음에 예언자 만토가 예언의 권능을 받아 테바이 여자들에게 레토 신과 아폴론 신과 아르테미스 신에게 향을 사르고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테바이 여자들은 모두 신전으로 나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지만, 니오베만큼은 온갖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나 예배하는 여자들을 신전에서 내쫓으며 하는 말이, “어찌 내가 레토 신만 못하단 말인가?”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니오베는 오만이 지나쳐 자신을 여신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니오베는 ‘신이 혐오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신들을 믿고 감사예배를 바침으로써 ‘신이 사랑하는 인간’이 되었지만, 니오베는 신들을 모욕함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레토의 아들이자, 활의 신인 아폴론이 쏜 화살들에 14명의 자녀가 모두 비참하게 세상을 하직하였고, 남편은 자살하였으며, 참기 어려운 슬픔은 니오베의 몸을 돌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화살을 쏘는 아폴론을 향한 채, 제발 마지막 남은 딸만은 살려달라며 간청하면서, 몸뚱이로는 하나 남은 딸을 치마폭에

숨기고 있는 모습으로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신화를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인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오만과 자만은 불행을 초치하고 자초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란 것을 말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어둠과 혼돈과 죽음은 자연법칙에 속합니다. 과학에서는 그것을 열역학2법칙 혹은 ‘엔트로피’(Entropy)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나 역사와 만물의 흥망성쇠는 지극히 자연적입니다. 유다왕국의 흥망성쇠도, 유다왕국을 지배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자연적이지 역사 한 토막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자연현상인 어둠과 혼돈과 죽음을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바뀌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며, 성령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비롯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유다왕국에 몰아친 어둠과 혼돈과 죽음 속에서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과 질서와 생명을 보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40년 넘게 인내하며 항상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딤후 4:2).



## 44

## 유다 사람들에게 재앙이 선포되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1-30절
찬송	279장(통337장), 280장(통338장)
간직할 말씀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렘 44:27)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목숨을 잃는다.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아서 1장부터 52장 끝까지를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기록된 글로 보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44장 역시 앞장들 특히 43장에 이어진 말씀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요하난과 그 일행과 예레미야와 바룩이 다바네스로 이주한 주전 586년보다 더 빠른 주전 609년 이후 느고 2세에 의해 이집트로 끌려온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군대가 침략할 때마다(605, 597, 586 BC) 이집트로 도주했던 유다 사람들이 이집트 전역 특히 1절에 언급된 지역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뎀피스)과 바드로스”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44장은 그들에

게 보낸 하나님의 경고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들, 그것들이 파피루스에 적어 보내졌든, 직접 구두로 전했다든, 그 핵심은 4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지 말고, 복귀하여 그 땅을 경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유다 사람들이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지다

1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므딕들과 다바네스와 눅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는 유다 사람들이 하(下)이집트의 주요 도시들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상(上)이집트의 주요 도시들에도까지 이주했음을 보여줍니다. ‘므딕’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지중해 연안과 유대광야에 인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입니다. 므딕들은 ‘다바네스’를 가기 전에 있었고, ‘눅’은 멤피스를 말합니다. ‘눅’은 카이로 남쪽 약 37 km 지점의 나일강 서편 강둑 위에 있는 성읍으로써 이집트의 고대 도시 중 가장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드로스’(남쪽의 땅이란 뜻)는 상(上)이집트 지역 수에네(아스완)에서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1절로 볼 때, 유다 사람들이 패망 직전에 도주를 했던 포로로 끌려왔던 이집트 여기저기에 흩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국 땅을 향한 이주, 특히 예루살렘 시온에 오름(ascension to Zion)을 ‘알리야’(aliyah)라 부릅니다. ‘알리야’(aliyah)는 문자적으로 ‘오름’이란 뜻입니다. 끊임없이 본향을 생각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선민의 조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희망’을 ‘하티크바’(Ha-Tikvah)라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국가 제목도 ‘하티크바’입니다.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유대인의 정신이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있는 한, 눈을 동쪽으로 향하여 시온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천년을 간직한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그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로의 이주행렬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 예로 러시아 한 나라에서만 이스라엘로 이주한 ‘알리야’의 수가 1998년에 1만4천 명, 1999년에 3만 명, 2000년 2만 명에 이릅니다. 이 같은 오름의 뿌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땅에 돌아가 그 땅을 일궈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외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2-6절)

이 구절은 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재앙이 임했는가를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십계명 제1-2계명을 어긴 우상숭배 때문이었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우상숭배를 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이 넘게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2. 이집트 전역에 흩어진 유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독려하다

7-10절은 회개할 것을 독려하는 말씀이고, 11-14절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을 때 받을 재앙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유대민족의 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하나님 인식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뉘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유대민족의 흥망성쇠의 이유를,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활동표준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성실성에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언서들의 내용은 언약에 대한 유대민족의 성실성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는가를 묻고, 그 해답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켰는가에서 찾았습니다. 예레미야 44장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에 이스라엘 회중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무, 곧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6절을 보면, “... 너희가 ...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였고,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키는가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사 24:5)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렘 22:9)라고 했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기”(렘 11:10)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3. 이집트 전역에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다

15-19절은 ‘바드로스’(Pathros)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에게 반기를 든 모습이다. 바드로스는 상(上)이집트 지역의 룩소르(테베)와 아스완 사이쯤에 있었던 도시로 추정됩니다. 이 도시의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답하기를, 자기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본래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고 강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섬긴 우상이 “하늘의 여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의 여왕”이란 우상을 섬긴 것이 유다 땅에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유다 땅에도 있었고, 이집트 땅에도 있었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여왕”은 누구일까요? 가나안의 여신 가운데 ‘아스다룻’이 가장 유명합니다. 따라서 가나안땅에서 “하늘의 여왕”은 아스다룻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나안의 최고신은 엘(El)이었다. 엘은 ‘산당’을 뜻하는 아세라(Asherah)한테서 바알(Baal)과 아스다룻과 아낫(Anath)을 낳았다. 풍요와 사랑의 여신 아스다룻과 전쟁의 여신 아낫은 자매로서 오빠인 바알의 부인들이었다. 바알은 ‘주인’ 또는 ‘소유주’를 의미하며, 하늘의 폭풍, 비,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자, 척박한 근동에 비를 뿌리는 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스다룻은 바알로부터 비를 받아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룻이 성생활을 많이 할수록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하늘의 여왕”은 ‘이시스’(Isis)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하늘의 여신 ‘누트’(Nut)는 이란성 쌍둥이 남편이자 땅의 신인 게브를 통해서 오시리스, 세트, 이시스, 네프티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시리스가 동생인 세트의 손에 죽자 오시리스의 누이이면서 아내였던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사체를 수습한 다음 홀몸으로 오시리스의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이시스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호루스였습니다. 호루스는 오시리스의 환생이었습니다. 아기 호루스는 세트의 복수를 피해 나일 강의 갈대숲에 숨겨졌다가 훗날 호루스가 세트를 패배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이시스는 신성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집트에서 널리 숭배되었습니다.

20-30절은 “이집트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될” 것과 “이집트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호브라’(Hophra)는 ‘아프리에스’(Apries, 589~570 BC)의 다른 이름으로써 바빌

로니아가 주전 597년 혹은 588년 예루살렘에 진군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군대를 이동시켰던 바로였습니다.

## 말씀을 마치며

이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유다왕국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그 생각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14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였고, 30장 22절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사 우리가 회개하면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재앙을 예고한 성경의 모든 글이 회개를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든, 성경의 역사든, 유대민족의 역사든 경고의 의미와 심판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의 경고를 받아들이면 심판을 면하게 되고, 경고를 무시하여 심판을 받았더라도 회개하면 회복(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45

## 바룩의 탄식과 하나님의 격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5장 1-5절
찬송	300장(통406장), 292장(통415장)
간직할 말씀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렘 45:5)
주제	우리가 탄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경험한다.

##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서 기록하는 서기관 바룩이 여호야김왕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렘 36장), 그가 당하는 고통을 탄식하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바룩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박해를 당하면서 불안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불안과 탄식은 아직 자기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신앙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오늘 각자 자신들

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바룩의 고통과 탄식 (1-3절)

바룩은 예루살렘 지사 마아세야의 손자(대하 34:8)이며, 시드기야왕의 시종장이었던 스마야(렘 51:59)의 형제였습니다. 귀족가문 배경과 서기관으로서의 그의 학식과 능력이, 무엇인가 ‘큰 일’(5절)을 꿈꿀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를 기록하고, 때로는 이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는 일을 했습니다(렘 36:5-8).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록하는 예언이 모두 조국 유다의 파멸과 민족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또 파멸과 심판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살라 버렸다는 것과 그것을 다시 기록해야 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과 왕과 방백의 박해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의 명목이 ‘민족 반역자’와 ‘매국노’라는 데 이르러서는 인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내가 어찌다가 이런 악역을 맡게 되었는가?’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박해입니다. 어느 누가 내 민족이 망한다는 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본인의 임무를 다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고통은 없고 축복만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고통에 슬픔이 더한 삶이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2.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4절)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나라도 당신이 선택한 유대 백성들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도 그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바룩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곧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낭독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알리는 괴로운 사역이, 바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할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룩이 그 민족을 위하여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면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른 사람이 하는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나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 붙들고 하나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3. 사사로운 꿈을 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5절)

세상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룩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지금은 나라가 멸망해 가는 난세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큰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내리시는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바룩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사사로운 일의 경영을 금하시면서 그 '생명'에 대하여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5절).

바룩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첫 마음이 퇴색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설상가상 고통에 슬픔이 더해지는 일이 일어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나의 사사로운 꿈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말씀을 마치며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에서 일이 잘 안 풀려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내가 만약 바룩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잠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분은 절대적 주권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불러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슬픔을 세상에서 풀지 말고, 탄식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면서 격려의 말씀과 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고통과 탄식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 2 나를 일깨워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 3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꿈이 부딪쳤을 때 선택한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 심판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 1-28절
찬송	325장(통359장), 406장(통464장)
간직할 말씀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굽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흠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렘 46:28)
주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신다.

## 말씀 앞에서

예언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애굽이 패망하여 약소국가로 전락할 것을 예언하는 목적은 유다 여호야김의 친 애굽 정책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무지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섭리의 확실성을 인식시켜 회개로 인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민족과 역사에 관계된 큰 사건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깨우치시는 섭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의 주권자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방나라의 패망 원인과 결과들을 보면서 영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훈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세상 힘을 의지하는 삶은 교만한 삶이다 (1-12절)

본문은 주전 605년 애굽과 바벨론 간의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의 바로느고의 군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패하리라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로느고의 군대가 유대 땅을 위풍당당하게 가로질러갈 때는 애굽의 세력이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7절)와 같이 강성할 때였습니다. 그 누구도 초강국 애굽이 신흥 바벨론에게 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5절)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의 세력이 막강하다 해도 신앙의 눈으로 보는 예언자에게는 종이호랑이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패망의 원인은 인간의 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3, 4절에 큰 방패, 작은 방패, 기병, 투구, 창, 갑옷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와 같은 무기는 당시로써는 최첨단의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강의 물이 출렁임 같다는 것은 나일강의 홍수 같은 군국주의자들의 흥포성을 의미합니다. 9절에 방패 잡은 구스 사람, 붓 사람과 활을 당기

는 루딤 사람들은 위성국의 용병을 의미합니다. 막강한 세력에 용병까지 있었으니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1절에 유명한 의약품 길르앗의 유향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2절에 그 수치가 나라들에 들렀다고 전합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면 회복 불가능 상태와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 2.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사용되길 사모하자 (13-26절)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한 후 애굽의 영화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17절). 그러나 애굽은 여전히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청종치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여 완전한 심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두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라고 하셨습니다(렘 25:9).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인데, 이방인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자격을 상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사용하여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실 때 예언자를 통하여 먼저 유대인들에게 재차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과 패역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방 민족의 심판에도 도구로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으면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길가의 돌들을 사용하여 외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도 열방의 도움을 받았지만, 심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연합군도 바벨론의 대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22절에 애굽은 뱀의 소리 같이 도망가는 모습이고, 바벨론은 사기충천하여 마치 나무를 베러 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은 우상숭배에 기인했으며(20절), 그 심판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까지 포함되었습니다(25절).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셔야 했으며,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유대인이라도 징벌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 대상은 ‘하나님’뿐이며, 대적의 대상은 ‘우상’입니다. 이 심판에도 하나님의 공휼은 있었습니다. 26절에 “그렇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 같이 살 곳이 되리라”라고 애굽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교만하여 심판을 받으나, 이들에게 다시 공휼을 베풀어 소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공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 3.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27-28절)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의 패망에 관한 선고에서 갑자기 선민 이스라엘을 위로하심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로 보건대 애굽을 비롯한 이방 나라에 관한 예언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27절)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과 그 위성국 및 바벨론까지도 패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앗수르나 애굽 그리고 바벨론 등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실 목적

으로 허용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하려는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에 불순종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선민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다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같은 원리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기반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뜻 가운데에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은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론에서 연단 받고 회개한 선민들만을 구속하신다는 뜻이니, 택하신 선민일지라도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버림받을 것이요, 이방 민족일지라도 불신 죄를 깨닫고 우상주의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구속의 보편적 대원칙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흠엿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렘 46:28)

여기서 아주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그것도 오래 참으신 끝에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

리 영혼에 성령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한 성도만의 특권입니다. 징계는 하시되 모든 것이 선하심과 생명에 이르는 섭리임을 믿고(롬 8:28), 회개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말씀을 마치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는 혼란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 주시고 회복 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신앙의 깊은 성숙을 위해 거치지 않으면 안 될 홍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환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의지가 아닙니다. 성도의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 의지함과 더불어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과 교만함,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 탐심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만민에게 알리시려고 이 땅에 세워 놓은 선교적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의 빛된 생활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과 직결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의 영혼에 큰 장애가 됩니다.



## 47

## 공의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7장 1-7절
찬송	279장(통337장), 310장(통410장)
간직할 말씀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렘 47:7)
주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 말씀 앞에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일찍이 아모스 예언자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긴 이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암 1:6). 블레셋의 잔악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도 징계하시며 그 길을 바로잡는 공의의 하나님이 불의를 눈감아 보실 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도 피할 수는 없다 (1-3절)

예레미야 예언자는 블레셋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절에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때때로 물은 허다한 사람과 각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계 17:15). 그리고 큰 위협적인 재난을 뜻하기도 합니다(시 69:1). 신흥 국가인 갈대아 군대가 홍수처럼 블레셋 땅에 밀려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작은 영토를 가진 블레셋은 북방에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군대의 힘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방금 일어난 사건처럼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뻐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라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블레셋 땅의 참상을 예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군대와 말발굽 소리, 어른과 아이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을 이루는 지옥의 참상을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블레셋은 적의 말발굽 아래 짓밟힐 것입니다. 북방 군대의 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 2.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소중한 것부터 임한다 (4-5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징계 받는 자를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를 말씀합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바 도와 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4절)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에 속한 주요 도시입니다. 블레셋과 베니게는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니게가 블레셋보다 먼저 망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도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인간의 힘도, 조직의 힘도 무력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 3:5)고 간곡히 당부 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도울 수 없는 상황에 가사와 아스글론의 참극을 봅니다(5절). 블레셋을 구성하는 다섯 토성 중의 제일 큰 성이 가사입니다. 그리고 아스글론은 가사와 이웃한 토성입니다. 가사의 사람들은 슬픈 일을 만나면 자기 머리를 삭발하는 풍습이 있었고, 아스글론 사람들은 칼로 몸을 베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에 내리는 재앙은 가사의 삭발로 표현되었고, 아스글론의 몸 베게로 상징되었습니다. 가사와 아스글론의 참상은 블레셋의 참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 3.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스리신다 (6-7절)

오호라 여호와와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

| 쟁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6-7절)

칼은 전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혹은 재앙이라는 것으로도 표현합니다(신 32:41; 사 2:4,5; 겔 21:28). 칼을 여호와와 칼로 표현한 것은 블레셋에 임한 재앙과 전쟁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그가 중단하시지 않고는 아무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도 하시며(시 46:9),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군사력을 무력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와 칼은 공의를 이루어야 멈추십니다. 여호와와 칼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렘 21:9). 칼이 일단 뽑히면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 칼집에 꽂혀서는 안되듯이 하나님의 공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려고 내리시는 재앙은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말씀을 마치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사고를 당할 때나 비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사고를 당할 때 너무 쉽게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나 말고 저들은 분명 자신들이 잘못된 죄 때문에 고통이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말고 이웃을 심판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웃 민족에게 심판이 내렸다고 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동정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본문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5절),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6절)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웃 영혼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정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7절). 그래서 그 누구도 징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 가는 경험을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다스리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개개인과 국가를 감찰하십니다. 언제 어디서고 심판하시고, 또 위로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징계받은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부모님, 선생님 등).
- 2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이야기해 봅시다.
- 2 공의의 하나님께 내 영혼과 신음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8장 1-47절
찬송	258장(통190장), 212장(통347장)
간직할 말씀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렘 48:47)
주제	업적과 보물, 안일함과 우상숭배,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찬송을 회복하자.

## 말씀 앞에서

오늘의 본문은 모압의 거민이 포로가 되고, 황폐해질 것이며 모압의 모든 영광이 떠나버려 철저하게 파멸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압의 멸망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의 멸망을 주관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압과 이스라엘과의 역사적 배경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에게서 낳은 아들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하셨습니다(신 23:3-6). 그 이후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모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도와 유다를 대적했으나, 유다가 멸망한 5년 후에 역시 그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582 BC). 모압이 멸망하는 원인과 결과들을 통해 주신 교훈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찬송 소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자기의 업적과 보물(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7, 36절)

모압의 모든 성읍은 다 훼파되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9절). 느보, 기라다임, 미스갑, 헤스본, 맛멘, 호로나임, 그리고 루히 등의 성읍 이름(1-5절)이 나열된 것은 모압 전 지역이 철저히 파멸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파멸을 태만히 여기거나 동정을 베푸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10절).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요새의 시설물들(업적)과 모아둔 것들(보물)을 의지합니다(7절). 이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다 보니 당시 모압 사람들의 부는 타민족들의 눈을 현혹할 만큼의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멸하는 자(8절) 느부갓네살의 습격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36절에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이는 약탈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재물은 타민족의 침략으로 인하여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요는 무가치한 것임을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히 11:26).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성도는 특히 재물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고, 그것의 수명은 유한합니다(잠 27:24). 재물은 때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합니다.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 거침돌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막 10:23). 재물과 사람은 영원히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려는 사람은 재산과 모든 부귀영화를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에 탐닉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업적과 재물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 2. 안일함과 우상 숭배를 확실하게 버리자 (7, 11, 13, 35, 46절)

11절에 모압은 오랜 기간 평안을 유지해 왔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포도주를 익게 할 수 있었을 때, 그 포도주는 큰 번영의 표로 통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아 패한 일이 없으므로 잡혀가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마치 술병 안에 가라앉은 찌꺼기 위에 떠 있는 술과 같이 부패의 온상 위에 피어 있는 꽃과 같은 평안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안일함이었습니다. 안일은 개인이나 교회, 나라를 썩게 만듭니다. 안일은 정체를 뜻하며, 정체는 부패의 온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안일함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버려야 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주신입니다(7, 13, 35, 46절). 그모스 숭배는 자녀들을 번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왕하 3:27). 우상 앞에 자기 자녀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입니다. 모압의 신이지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산에 그모스 산당을 세워 이스

라엘도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왕상 11:7). 안정된 경제 성장이 우상의 덕분에 돌려졌고 많은 외적의 침략의 고난 속에서도 그모스로 인해 보호를 받는다고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과는 수치를 당하고(13절), 망한 것입니다(46절).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는 외면하고 생명도 없는 우상을 섬겼던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우상 숭배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출 20:4, 34:17; 레 26:1; 겔 14:4, 6, 20:7, 18). 사람이 편안하고 태평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일함과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참된 신앙은 변화가 적고 일상이 단조로울 때 더욱 열심을 내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 3.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슬리지 말라 (26, 29, 42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뿔뿔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2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29절)

모압은 천혜의 요새화된 지리적 조건, 풍성한 생산이 그들에게 부를 쌓게 했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오만하고 거만하여 자랑하는 자기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힘과 부를 의지하여 교만하고 자기 도취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이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42절)

모압인들은 너무 평안하였기 때문에 교만하여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빈곤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부유함과 평안이 스스로 노력의 결실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풍성하고 윤택한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항상 대립하였고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조롱을 일삼았습니다(27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표적을 모압에게로 돌리셨습니다(30절).

주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낱 얕은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모압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닥칩니다(43절).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는 결과를 맞이합니다(44절). 하나님께 거슬리는 교만과 자만을 버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늘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 말씀을 마치며

에레미야는 모압이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면서 그것에 대해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조차 슬퍼하십니다. 그들도 회개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이처럼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하는 깊고 확산된 열린 마음입니다. 모압이 받을 고통스러운 형벌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 중에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47절).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개인과 민족의 머리(골 2:19)로 삼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수단을 삶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은 성공한듯하나 바로 그것이 자신의 함정과 울무(43절)가 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삶은 어둠과 사망과 패배의 삶을 성도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모압 회복의 약속은 선민들에게 구속의 용기와 확신을 주시려는 뜻입니다. 모압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오면 어떤 역사적 상처도 개인의 죄악도 모두 치료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분깃을 얻을 것을 암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를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심판 후에 회복과 미래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와 보살핌의 말씀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죄악 때문에 찬송 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여 찬송 소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49

## 암몬, 에돔, 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이 받을 심판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1-39절
찬송	73장(통73장), 273장(통331장)
간직할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렘 49:5)
주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46-51장은 열방에 대한 예언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문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은 예레미야 사역 당시 유다에 영향력을 미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46-49장에서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이집트와 여러 국가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제거하십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암몬이 받을 심판 (1~6절)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 곧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아들 벤암미를 조상으로 하는 민족입니다(창 19:8).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갓 지파의 동쪽 땅에 거주했습니다. 모압과 더불어 암몬은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우상을 숭배한 나라였습니다.

암몬에 대한 예언은 암몬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해 점령한 것을 고발하며 그들의 지형적 우위와 제물에 대한 의존을 규탄합니다.

먼저 1-3절은 이스라엘을 침탈한 암몬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말감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것으로 나오는데, 말감은 암몬의 국신(國神)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며 숭배하였던 몰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암몬이 갓과 르우벤 지파의 영토를 점령한 사실을 말합니다(왕하 15:29). 이스라엘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암몬을 처벌할 파괴자가 올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암몬의 주요 도시인 랍바가 전쟁에 휩싸이고 그곳은 폐허가 될 것이며 마을은 불에 탈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잃었던 땅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3-5절은 암몬의 폐허됨에 대해 탄식합니다. 전쟁 패배의 결과로 그들의 신인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3절). 그들의 폐허의 원인은 풍부한 경제력에서 오는 부에 대한 잘못된 신뢰("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와, 암몬의 도성인 랍바의 견고함만을 믿었던 군사적 오만 때문("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입니다.

사방에서 몰려올 두려움은 바벨론은 가리킵니다. 이 예언대로 암몬은 모압과 함께 주전 582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6절은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미에 주어진 것과 같이 암몬 자손의 포로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주십니다. 유다에게도 그렇고, 모압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암몬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며 또한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 2. 에돔이 받을 심판 (7-22절)

사해 남쪽에 위치한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에돔 왕국은 세렛강과 아카바만 사이의 높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매우 비탈진 지형에 거했지만, 토지는 비옥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은 에돔이 지혜로운 분별력을 상실함으로써 재앙을 맞이한다고 경고합니다. 7-13절은 포도를 거두는 농부와 밤에 오는 도적의 비유를 통해 에돔을 철저히 멸망시키려는 여호와와 강력한 심판 의지가 천명됩니다. 만약 에돔이 지혜롭다면 다가오는 재앙을 피해 도망하기를 경고합니다. 하지만 에돔은 위기에 빠졌으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별히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선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술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받을진대 하물며 에돔은 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는 경악의 대상, 모욕의 대상, 공포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폐허로 남게 될 것입니다.

14-19절은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를 다시 한번 되풀이 하면서, 에돔을 철저히게 비천케 하시려는 여호와의 심판 의지를 천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과 바위 위에 요새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교만한 에돔으로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작아지게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사자와 같이 강한 자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철저히게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끝으로 20-22절은 에돔 땅에 여호와의 심판이 집행될 날의 통탄과 절규와 고통의 경고를 보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으로 말미암을 에돔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호와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에돔에 대한 예언은 앞선 모압과 암몬의 예언과는 달리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의 메시지도 언급하지 않고 끝을 맺습니다.

### 3. 다메섹, 게달과 하술, 엘람이 받을 심판 (23~29절)

23-27절은 아람의 수도이자 당시 근동 지역의 교통, 군사, 상업의 요충지로서 크고 아름다우며 견고한 성읍이었던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명성을 잃고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과 하맛, 아르밧은 아람 왕국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특히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로서 교통, 상업, 군사적 요충지였고, 당시로써는 지상 낙원이라 불릴 만큼 잘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북쪽으로는 하란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북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로 나가는 길이 있어서 수많은 대상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아람을 대표하는 다메섹에 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에서 하맛과 아르밧이 등장하

는 것은 이들 도시가 다메섹과 마찬가지로 아람을 대표하는 도시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도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은 육체적 쾌락의 추구가 심판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다메섹은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으로 불리던 성읍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성읍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다메섹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읍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란 사람들이 다메섹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다메섹이 영화를 누리던 성읍임과 동시에 육체적 쾌락에 심취하여 있었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다메섹은 일찍부터 많은 부가 축적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에 심취하여 있었습니다. 육체적 쾌락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을 수반하기에 이로 말미암아 다메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28-33절은 요단 동편의 광야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던 유목민인 게달과 하술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게달은 동쪽의 베두인 족을 지칭하며 하술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으나 아라비아 지역으로 이해됩니다. 게달과 하술에 대한 예언에서는 유일하게 ‘파괴하는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게달과 하술에 대해서는 풍요와 평안의 상태에서 약탈당할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31절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지방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은 이들이 참으로 평화롭게 사는 민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이 사막 가운데 사는 자신들의 지형적 특성을 인하여 무사 안일한 삶을 살았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무사 안일한 삶 속에서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로움에 만족하여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하

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결국 게달과 하술은 2단계에 걸친 공격으로 인해 폐허가 되고 영원히 황폐한 곳이 되어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 버립니다.

34-39절은 바벨론 동부의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던 엘람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엘람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고(35절; 사 22:6), 이웃 종족에 대하여 매우 잔인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겔 32:24). 10개 열방 중 유일하게 유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엘람은 교만이 그 심판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람의 힘의 으뜸기는 활’이라는 표현은 엘람이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하였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하였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즉 엘람은 자기들의 활 잘 쏘는 것으로 교만해진 결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46:26), 모압(48:47), 암몬(49:6)과 마찬가지로 엘람에 대한 예언도 여호와께서 계획하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예언을 끝맺습니다.

## 말씀을 마치며

46장에서 49장까지 애굽(46장), 블레셋(47장), 모압(48장), 암몬(49:2-6), 에돔(49:7-22), 다메섹(49:23-27), 게달과 하술(49:28-33), 엘람(49:34-39) 등 열방에 대한 예언에서 공통적인 주제는 온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열방에 처절한 파괴가 행해진 목적은 파괴 그 자체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서 열방에 보복하는 것도 아니며,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여호와와의 주권적 통치를 세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겼던 강국들이나 부유함으로 오만함을 자랑했던 국가들이나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이스라엘 가까이 있던 국가들이나 멀리 떨어진 국가들이나 그 열방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열방에 대한 파괴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의해 행해졌던 것처럼, 회복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의해 ‘그날에’ 이뤄질 것이다.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이뤄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의 인간 매체로 사용하신 바벨론에 대한 운명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51~52장)에서 밝혀집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sup>1</sup>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각각 무엇이었던지 토의해 봅시다.
- <sup>2</sup> 에돔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의 메시지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 에돔은 회복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는지 토의해 봅시다.
- <sup>2</sup>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한정되지 않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토의해 봅시다.

## 바벨론이 받을 심판 1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1-46절
찬송	521장(통253장), 585장(통384장)
간직할 말씀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렘 50:34)
주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50-51장은 시문(poetry)으로 쓰인 연속적인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댄 나중에 다루는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 바벨론이 앞서 언급된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후에 최종적으로 멸망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대기적 서술에 따라 사건을 기술하기보다, 다양한 원근법에 따라 바벨론의 멸망 사건을 조명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민들의 구출과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과 포로민들의 회복이라는 상이한 두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음으로 이야기 전개가 반복적이

면서도 동시에 역동적입니다. 예언의 핵심 내용은 주로 바벨론의 멸망과 그 효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에 대해선 주로 부정적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는 반면에, 포로민들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 들어서면 멸망과 파멸의 먹구름이 마침내 바벨론 위에 짙게 드리워집니다. 제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그 거민들의 교만함과 잔인함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바벨론이 받을 심판 (1-10절)

1-3절은 바벨론 멸망 예언 기사를 시작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바벨론 멸망 예언을 숨김없이 공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의 파괴와 함께 바벨론 신전의 주신인 벨(또 다른 이름은 마르дук)이 수치를 당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4-8절은 바벨론 멸망과 병행된 선민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즉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 쉴 곳을 잃고 잃어버린 바와 같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시온으로 귀환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 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반부에 걸쳐 반복해 지적하

고 있는 바는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뤄진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주전 538년에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 사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에 즈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중대한 내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은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하나로 연합해 함께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4절), 또한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물을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양 떼에 비유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떼가 의미하는 바는 적절한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목자’라고 부르는 왕이 명목상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백성들이 이산 저산으로 헤매고 방황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백성들은 쉴 곳이 어디였는지조차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7절에서 유다를 삼킨 대적들은 놀랍게도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8절은 리더십의 부재 속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 양 떼를 앞서 이끌던 숫염소와 같이 앞장서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9-10절은 바벨론이 북방 큰 민족에 의해 정복과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에서 오는 큰 민족의 무리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의미하는 말로서 그들은 활을 잘 쏘는 싸움에 능한 군대였습니다. 메대와 바사 군에게 있어서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적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와 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 놓고 바벨론 사람들만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보면 속히 그곳을 탈출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 2.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11-28절)

11-16절은 여호와와 그의 보응으로서의 바벨론 멸망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포한 바벨론이 황폐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벨론을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라고 부르심으로써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그들이 선민을 침략하여 약탈한 것과 직접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시고 있습니다(11-13절).

14-15절은 바벨론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승리의 환호를 외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포로들이 자기 자신들의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16절),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민들에게는 70년 후에 귀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할 것입니다.

17-20절은 바벨론 멸망과 병행될 선민의 회복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을 '홀어진 양 떼'에 비유해 힘의 상징인 사자에 비유한 앓수르 및 바벨론과 대조시킵니다. 사자 앓수르가 먼저 양 떼 이스라엘을 먹었고, 또 다른 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뼈까지 먹어 치웠다고 고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앓수르 왕을 벌하신 것처럼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 34절에서 이미 선포하신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민들은 그들의 죄악의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으로의 근본적인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적 변화와 본질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조건 없이 용서하심으로 가능케 되는 것으로 주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는 그들 속에서 죄악을 찾으려 해도 없을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20절).

21~28절은 하나님께서 익명의 침략자들을 다시금 호출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지시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서 ‘온 세계의 망치’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메대와 바사이지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한 것뿐입니다(21절). 바벨론을 멸망시킨 실제적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병기창에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어 갈대아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25절). 그 종말의 모습은 바벨론 땅의 곡간이 헐릴 것이고, 식량은 남은 것 없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며, 황소들도 남김없이 끌어내어 도살장으로 데려가 살육하라는 명령에 따라 시행될 것입니다(26절).

28절은 바벨론에서 살아남아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전하는 생생한 ‘도피한 자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보우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복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시온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주전 약 578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당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한 행위들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 3. 삼대 범죄에 대한 징벌과 절대자로서의 바벨론 심판 작정 선언 (29-46절)

29-40절은 바벨론 심판과 멸망의 원인인 삼대 범죄와 여호와께서

직접 주도하신 징벌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32절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특별히 32절을 보면 직설적으로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만한 자’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교만에 찌든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31절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영원한 과멸에 이르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앗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앗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에 해방되지 못하고 그대로 그 땅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자’는 원어로 ‘요엘’인데, 이는 ‘보수자’,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 무르는 자’라는 뜻으로, 친척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하였을 때 원수를 갚아주거나, 가난하여 종으로 팔려 갔을 경우 값을 치르고 친척을 해방해 주거나,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때 그 기업을 물려줄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이스라엘의 ‘요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5-37절에서는 ‘칼’이라는 단어가 무려 5회나 사용됩니다. 이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정할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칼’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될 메대와 바사 군대를 의미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바벨론 거주민들과 바벨론의 고관들, 지혜자들, 점하는 자들, 용사들, 말들과 병거, 보물들, 그뿐 아니라 물 근원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임하게 되어, 점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이고, 용사들은 공포에 떨 것이며, 말들과 병거는 여인처럼 되고, 그들이 모아들인 보물들은 모두 약탈을 당하게 되며, 온 땅은 가뭄으로 물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바벨론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에게 예외 없이 철저하게 임하게 될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8-40절에서는 바벨론의 우상 숭배 범죄를 지적하고 그로 인하여 바벨론 땅이 황폐해지는 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심판 이전에 바벨론은 중근동 지역의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던 나라였습니다. 견고히 세워진 성읍들, 강력한 국력에 기초해 세워진 행정 체계로 인하여 제국 곳곳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었을 것이며 무수한 사람들의 왕래로 곳곳마다 생기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론 땅이 사막처럼 변모하여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더불어 살며 타조도 거기 살며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41-43절은 예레미야 6장 22-24절의 예언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6장에서는 그 침략 소식을 듣고 있던 자들이 시온의 딸

들이었다면(6:23), 여기서는 유다를 멸망시켰던 민족, 바벨론의 딸들이 그 멸망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 죄로 인한 심판을 예언하실 때 사용하신 내용을 그대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에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44-46절은 예레미야 49장 19-21절의 예언과 내용상 일치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49장의 경우에 에돔을 향한 예언이었다면 50장에서는 바벨론을 향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목자 없는 양 떼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마치 사자와 같이 요단강 강가의 수풀에서 올라와 바벨론을 황무케 하실 것입니다(44-45절). 46절 말미를 보면 “바벨론이 약탈 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벨론의 파멸 소식과 약탈이 참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이란 사실입니다. 그들의 패망이 세상 나라들을 격동케 할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강대국으로 중근동을 호령하던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 주변의 모든 나라는 바벨론의 권세와 영화가 천년만년 계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 말씀을 마치며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들, 그 나라를 통치하던 군주들은 자신들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것인 양 착각하던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고대 중근동의 전통적 강자였던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가 그러하였고, 이후 새로

운 패권자가 된 앗수르의 제왕들이 그러했습니다. 또 앗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애굽까지도 파멸시킨 바벨론의 왕 또한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 모든 나라, 그리고 교만하여 자기를 신격화하였던 대제국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 세움을 입기도 하고, 넘어지고 하며, 패망하기도 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사람들의 상상과는 달리, 것처럼 강성하고 위대한 자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덧없기 그지없는 자들임을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sup>1</sup> 본문을 볼 때 사람이나 공동체가 넘어지는 제일 큰 원인은 무엇인지 토의해 봅시다.
- <sup>2</sup>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토의해 봅시다.
- <sup>2</sup> 그가 누구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지 토의해 봅시다.

## 51

## 바벨론이 받을 심판 2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1-64절
찬송	150장(통135장), 338장(통364장)
간직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잇돌이나 기춧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51:25-26)
주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 말씀 앞에서

51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50장과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세부적 핵심 주제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바벨론의 멸망이 던져주는 의미를 조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개가 매우 역동적입니다. 반면 어떤 면에서는 주제가 반복되고, 구성이 복잡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바벨론의 멸망과 시온 백성들의 귀환과 찬양 예언 (1-19절)

1-14절은 하나님께서 타국인을 바벨론에 파견하여 그들을 치고 살육하게 하심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한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의 “부추겨”와 2절의 “키질하여”라는 표현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나라를 근동 지역에서 기근과 파괴를 가져왔던 뜨거운 동풍에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뜨거운 동풍은 모든 식물을 말려서 죽이는 그야말로 멸망의 바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할 도구로 사용될 나라가 이러한 동풍에 비유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벨론의 멸망이 그 어떤 심판보다 철저할 것이며 가혹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바벨론의 멸망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침략군을 보내어 그들로 키질하게 하여 바벨론 땅을 비게 할 것이란 말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키질’이란 표현과 ‘비게 하리라’는 표현은 추수 때에 무가치한 가라지 또는 쭉정이 등을 바람에 날려 버리는 것을 연관시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바벨론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돈, 보화, 집, 가축, 가족 등 모든 것이 모두 무가치하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5-10절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심판으로 인한 선민들의 회복과 찬양 결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언급한 “이스라엘과 유다”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선민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

처럼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가증한 우상들을 숭배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더럽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 땅에서 추방하셨습니다.

6절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권고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이 매우 임박하였음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과멸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주전 627년 세워진 바벨론이 앗수르와 애굽이라는 두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최고의 나라로 서는 데는 불과 20여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국가의 시초부터 멸망할 때까지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번영하였고,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번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쉽게 멸망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주전 539년 메소포타미아 동부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갑자기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웠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악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수에 처하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수에서 해방하심으로 자신들을 무죄한 자와 같이 여겨주시고 만천하에 그들이 의로운 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셨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 즉 그들을 해방하신 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11-14절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될 북방 민족 곧 메대 왕을 향한 바벨론 포위 명령을 통하여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심판의 때가 도래하였음을 다시금 선언한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파괴한 데 대한 보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메대와 바사 군대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11절의 “화살을 갈며 등근 방패를 준비하라”는 명령에 이은 두 번째 명령으로서 전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세워진 바벨론 제국을 지칭합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재물이 많은 자라고 한 것은 바벨론이 여러 속국에서 조공들을 거두어들여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한 것은 그들이 물과 재물에 의지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14절에서 바벨론에 크고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군의 여호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셨음을 밝힙니다. 이 예언을 접한 사람들이 당시 근동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암시합니다.

15-19절은 바벨론에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묘사합니다. 특별히 10장 12-16절에서 열방의 우상들이 무가치함을 논쟁

하는 본문에서 사용되었던 바로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15-16절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결코 이해가 불가능한 권능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반면, 17절에서는 인간들은 우둔하고 무식하여 신상을 부어 만드는 수고를 하지만, 정작 그 속에 생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상으로 인해 금장색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17절에서 설명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야곱의 분깃이시니,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19절).

## 2. 병기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와의 심판 예언 (20-32절)

20-32절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을 위하여 바벨론을 당신의 병기로 사용하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침략자들을 하나님의 철퇴 또는 병기라 명하시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온 산지와 도시와 거민들까지 모두 파괴할 것을 직접 지시하십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가리켜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 즉 ‘바벨론’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열거합니다.

24-26절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갚으시되 그들을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바벨론 땅이 영원히 황무지가 되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칭하였는

데, '멸망의 산'이란 '화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화산'은 그 안에서 뿜어내는 것으로 주위에 있는 것들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뿜어내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도 파괴합니다. 이 파괴의 결과로 바벨론 땅은 주춧돌 하나라도 취할 수 없을 만큼 영영히 황무지로 변해 버릴 것입니다.

27-32절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수행할 새 도구의 예비와 바벨론의 무력한 멸망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칠 북방 세력으로 메대와 바사, 그 속국들을 준비시키실 것인데 바벨론은 이러한 북방 세력에 의해 무기력하게 패망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 3. 선민의 학대자 바벨론의 멸망과 황폐의 예언 (33-44절)

33-35절은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 도래 예고와 바벨론에게 학대받던 선민의 바벨론 심판 기원을 예언합니다.

33절에서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추수 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중요한 영적 진리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 날을 따로 정하여 두시고 그날이 이르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34-3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핍박한 바벨론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34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약탈한 후에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추방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35절은 바벨론의 잔학한 행위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 원수를 갚아주기를 요청하는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을 향한 청원

입니다.

36-40절은 선민의 송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바벨론 멸망과 황폐화에 대한 심판 약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6절은 34-35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들으사 그들을 위해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37절에서는 그러한 당신의 보응의 결과로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 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은 바벨론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바벨론을 ‘어린 양’, ‘숫양’, ‘숫염소’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앞선 38절에 보면 바벨론을 백수의 왕인 사자에 비유하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가히 백수의 왕 사자에 비유될 만한 위용과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운명은 순식간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염소의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41절에 나오는 ‘세삭’은 암호문자로서 언어유희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풍자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가라앉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가라앉음’에 비유하는 내용은 바벨론 멸망의 글을 담은 두루마리를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확증하는 스라야의 예언자적 예언 행위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61-64절).

42절에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바다로 비유하여 바다가 넘치듯 맹렬한 기세로 밀려 들어와 바벨론을 순식간에 멸망케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41절에서 바벨론을 ‘세삭’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42절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44절에서 ‘벨’은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바벨

론 사람들에게 하늘 위를 관장한다고 믿었던 신 '아누'와 땅 아래의 물을 다스린다고 믿었던 신 '이아'와 함께 공중과 땅 위 세계를 다스리는 신으로 숭배되었던 우상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마르둑이 그들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믿었고 마르둑을 국가의 가장 최고의 신으로 부르며 섬겼습니다. 이 마르둑을 바벨론 제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여 우상의 종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 4. 바벨론 포로민들을 향한 권면과 바벨론을 벌하심 (45-64절)

45-53절은 바벨론에 심판이 집행될 상황을 염두에 둔 선민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과 예언자의 권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선민 포로들을 향하여 바벨론을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오게 될 때 전쟁의 공포와 유언비어의 난무로 인하여 우왕좌왕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탈출할 것을 권고하시며 바벨론은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4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선포할 때는 바빌론은 커녕 아직 남유다조차 멸망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완전한 점령을 받아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근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으로 70여 년의 포로 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시간이 차기까지는 바벨론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29:1-14).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벨론에 미칠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극심한 환난을 피해 바벨론을 떠날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는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부도 축적하여 남 부러운 것 없는 삶을 살게 되자 바벨론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이방인들과 진배없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이나 하는 가증하며 불경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약속된 70년의 징계 기간이 차고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에도 그들은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 안에 머무르는 우를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에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46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징조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벨론 멸망의 징조는 다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징조는 멸망과 관련된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바벨론 내에서 권력 다툼으로 말미암아 내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 다툼으로 인한 내전은 과멸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49절을 원문이나 문맥의 흐름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새번역)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세상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것처럼 수만

은 나라의 사람들을 죽인 사실로 바벨론을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곧 당신의 선민을 죽였다는 데 있습니다.

50절을 보면 ‘칼을 피한 자들’이란 바벨론이 함락될 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칼날로부터 생명을 보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바벨론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외국인들을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학살하지 않고 따로 구별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칼로부터 생명을 보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선민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음으로써 불가피하게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여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 그들은 포로에서 놓임을 얻고 멸망하는 바벨론에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지체하면 할수록, 바벨론에 미련을 두면 둘수록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아말렉 출신의 총리였던 하만의 간계로 멸망할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에스더 3:7-4:3).

53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져서 주인을 무는 개처럼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즉 바벨론이 하늘에 올라 그 높은 곳에 요새를 쌓아 피난처로 삼는다고 해도 결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하여 그들을 멸망시

킬 자가 당신으로부터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4-55절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침공에 의한 바벨론이 파멸을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소리’라는 표현을 네 번이나 거듭 사용하여 바벨론 파멸에 대하여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56절은 ‘여호와와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원문으로 다시 해석하면 ‘여호와와 상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감정에 따라 당한 만큼 돌려주기를 좋아하시는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리시는 ‘보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8절 후반부를 보면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고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란 바로 바벨론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힘들여 건축한 바벨론 성은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너져 내린 바벨론 성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왔던 포로민들의 땀과 수고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59-64절은 바벨론 관련 예언 일련 기사의 기록 시점과 스라야를 향한 예언 공포와 사후 조치 지시를 기록한 끝맺는 말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관련 일련의 기사는 시드기야 제4년 곧 주전 593년 예레미야 예언의 대필자였던 바룩의 형제(32:12)로서 당시 병창감의 직무에 있었던 스라야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봉신의 신분으로 바벨론 왕을 알현하기 바벨론을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60~62절에서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바벨론 멸망 예언이 기록된 책

을 주며 그것을 돌에 매어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게 하였는데 여기서 스라야에게 바벨론 멸망 예언이 기록된 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한 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선민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림으로써 그들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말씀을 마치며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불렀고, 유다와 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국의 팽창을 향한 끝없는 야망과 교만으로 인해 자멸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잠시 잠깐의 영화에 빠져있는 동안 강력한 메대 연합군이 쓰나미같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바벨론 군대는 제대로 방어조차 못 하고 함락돼 물거품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 쓰임 받을 때, 그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해야 하며, 주께서 명하시는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50-51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며 두려운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당시(주전 약 587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보응하시는 심판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시온의 백성들은 새롭게 일어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악으로 인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방황하

는 시온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에 대해 그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곁길로 가고 있거나 죄악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의 길로부터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21세기, 죄악이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거나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 것이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1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토의해 봅시다.
- 2 바벨론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토의해 봅시다.
- 2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것이나 진배없었을 메대와 바사의 군에게 가능한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토의해 봅시다.

## 심판과 희망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1-34절
찬송	310장(통410장), 336장(통383장)
간직할 말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렘 52:31)
주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단초를 남겨두신다.

##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서는 예언서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책이며 52장은 그 마지막 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4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 나라”는 표현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마무리되고, 52장이 ‘역사적 부록’으로 첨부되어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52장은 예레미야의 조력자이자 그의 예언의 대필자였던 바룩이 첨가한 것입니다. 52장이 내용은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상황과 바벨론 포수 현황 등을 담고 있는데, 바룩이 이를 예레미야의 예언에 부록 형식으로 첨가한 것은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 또는 그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종 형태의 예레미야서 독자들은 포로기의 백성들이며 시드기야와 남유다에 임한 심판(1-30절)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 성취에 대한 확실성을 증명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호야긴의 석방에 대한 기록(31-34절)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선포하는 회복의 예언(새 언약)도 확실하게 성취되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 말씀을 나누며

### 1. 시드기야의 통치와 남 유다의 멸망 (1-11절)

1~11절은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약력과 유다 멸망의 불가피성으로서의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시드기야 통치의 부정적인 측면을 간략히 서술하면서 남 유다 멸망의 원인이 된 시드기야의 두 가지 과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악의 사슬을 끊지 못한 것이며(2절), 또 하나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것입니다(3절). 2절에서 첫 번째 과오에 대해 간단하게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 36장 11-21절은 시드기야의 악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악행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권고를 받고 이전부터 전해 오던 악행을 단절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과오인 시드기야의 배반은 바빌론 침략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남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쓰

임을 받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렘 27:6)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렘 27:8-11). 하지만 시드기야는 여전히 살길을 포기하고 심판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것입니다.

7~11절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시드기야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지 만 1년 6개월 만에 마침내 함락되자 시드기야는 성을 빠져나와 아라바 길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를 지나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 동편 광야나 산악 지대로 피신하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추격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리블라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심문을 받으며, 목전에서 자기의 어린 아들과 신하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눈이 뽑힌 다음 사슬에 결박된 채로 바빌론에 끌려가 그의 여생을 감옥에서 마치게 됩니다.

## 2.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 (12-27절)

12-27절은 예루살렘 파괴와 포수 및 성전 약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2-16절은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완전히 파괴하기까지 한 달 정도를 기다린 이유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 그것을 철저히 파괴했다는 사실입니다. 13-14절에서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느부갓네살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성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함께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어 봉헌된 이후 400년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선민의 삶과 신앙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었으며 지상의 어느 건축물과도 비할 바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군대에 의한 성전의 파괴와 소화는 하나님의 영광에 엄청난 누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의 전쟁에서는 한 나라가 정복을 당하고 신전마저 파괴되는 일은 그 나라의 신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식되었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므로닥(Merodach, 또는 마르두크)을 주신으로 섬기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신인 므로닥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하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17~23절은 바벨론 군대가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는 성전 기물들은 성전 바깥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던 기물들입니다. 따라서 이 기물들은 주로 놋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비치되어 있던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기물들은 이미 여호야긴 시대에 약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놋은 당시 세계에서 금과 은 다음으로 값나가는 금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면서 놋으로 제작된 성전 기물들도 모두 약탈하여 간 것입니다.

### 3. 바벨론 포수 현황과 여호야긴의 석방 (28-34절)

예레미야의 예언은 51장 64절의 기록이 보여 주듯이 제51장으로 마

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필했던 바룩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감된 51장 뒤에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까지의 내용을 본 장에 첨가하여 52장으로 예레미야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바룩이 이처럼 본문을 예레미야의 예언에 부록 형식으로 첨가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31-34절을 보면 예루살렘 함락 25년 후인 주전 567년경에 있었던 한 사건 여호야긴 석방과 그에 대한 후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앞선 30절까지의 내용과는 극명한 대조를 형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최후, 예루살렘의 파괴와 포수, 성전 약탈 등의 내용을 수록한 그야말로 어두움이 자욱한 내용이었는데, 바룩은 31절 이하에 여호야긴의 석방과 그가 후대 받은 것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왕으로 그는 일면 유다 백성들 전체의 형편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그의 복역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 그 머리를 들게 하며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 유다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징계 기한이 다하면 결국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실로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단초를 주시는 분이며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서도 위로를 받게 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 말씀을 마치며

예레미야서는 장 수로는 52장으로 성경에서 세 번째로 길지만, 실제 분량상으로는 이사야서나 시편보다 더 많은 가장 긴 책입니다. 본서의 내용은 우리와 상관없는 한 패역한 민족의 이야기, 그들이 당할 당연한 귀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로 그릇 행한 자녀에게 매를 대지만 매를 맞는 그 자녀보다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느끼며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 || 말씀을 새기며 ||

- <sup>1</sup>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정하신 때에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유다의 회복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언제 성취되었는지 토의해 봅시다.
- <sup>2</sup>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교회 또한 그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토의해 봅시다.
- <sup>2</sup>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단초를 남겨두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누어 봅시다.

그리스도의교회 성경공부 시리즈 9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시즌 5**

**지은이** 그리스도의교회 교재집필위원회

**집필위원** 김수환(원주) 김천국(화평) 김한결(신정)  
방동용(해남은혜) 서재룡(세종 으뜸) 양성섭(강서)  
윤석환(한국) 이무형(목포)  
조동호(빛과생명) 조병옥(움직이는)

**엮은이** 김복철 김홍철 장성일

**책임편집** 김한결

**디자인** 제테오

**펴낸이** 정환정

**펴낸날** 2021년 12월 10일

**펴낸곳** 도서출판 시시울

**등록** 제364-1998-000008호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7번길 52 (한밭오피스텔 407호)

**전화** 0505-333-7845

**팩스** 0505-815-7845

**전자우편** sisiwool@daum.net

ISBN 979-11-89732-36-3 (03230)

값 15,000원

© 그리스도의교회 교재집필위원회

\* 저자와의 협의로 인지는 생략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